연구보고서 2021-10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방안

연구책임: 박지영(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오지혜(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정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혜림(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Gyeongsangnam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발 간 사

최근 저출생 및 고령화 등 인구 감소 시대로 진입하면서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국가 및 지역사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저출생 및 고령화 현상은 국가 및 지역의 생산 가능한 인구를 감소시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청년인구 유출의 가속화에 따른 인구 감소는 지방소멸의 가능성을 높이면서 지방의 위기와 함께 지역의 인적자원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경남은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지역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의 청년여성은 학교 졸업 후에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노동시장에서의 애로사항, 주거 불안정 뿐만 아니라 여성 생애단계 별로 발생하는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청년남성보다 인구유출이 다소 높은 상황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경남의 청년여성의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의 영역별로 청년여성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이슈를 파악하여 인구이동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정책 방안이 경남 청년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인구유출을 감소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의 박지영 박사를 비롯하여 오지혜 박사, 이정희 박사, 이혜림 박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움과 자문을 주신 경남도청 및 관계기관, 다양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2022년 4월

(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민 말 순

요약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경남은 청년인구가 수도권이나 타 대도시 등으로 유출되면서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 중임. 지난 20년간, 경남의 총인구는 6.8%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만 19~34세의 청년인구의 경우 3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경남의 청년남성 인구 감소(27.7%)보다 청년여성의 인구 감소(37.0%)가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남 청년여성의 순유출은 역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청년남성의 순이동률의 변화(2010년 -0.5%, 2021년 -3.0%) 보다 청년여성의 순이동률 변화(2010년 -0.2%, 2021년 -3.04%)가 높은 편으로, 경남 청년여성의 순유출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

○ 남의 청년여성 인구의 감소 및 순유출 심화는 저출생 및 고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성 인적자원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이어짐. 또한 경남 지역의 활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청년여성의 인구유출에 대응이 필요함

○ 경남 청년여성의 타 지역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이자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추진되는 만큼 경남 청년여성이 지역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남 지역이 청년여성에게 적합한 공간, 즉 일자리, 주거, 교육 등의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결혼, 임신, 자녀출생,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 방안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 이 연구에서는 경남의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및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또한 지역의 청년여성으로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에서 겪는 문제점과 이슈를 파악하고자 하며, 경남 청년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 내용적 범위

-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 중앙정부 및 경남 청년·인구정책
- 청년·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
-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방안

○ 대상적 범위

- 경남 청년여성

· 「청년기본법」과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여성을 의미함

3. 연구 방법

○ 통계자료 분석

○ 문헌연구

○ 설문조사 분석

○ 초점집단면접(FGI) 분석

II.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1. 경남 청년 인구 현황

○ 최근 20년간,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이 27.3%에서 17.3%로 10.0%p 하락하여 지속적으로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경남 인구 증가의 동력은 청년층이라고 볼 수 없음

- 청년인구를 5세 단위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 20년간 청년 연령3계층별 인구감소 규모의 크기는 30~34세 집단(41.1%), 25~29세 집단(29.4%), 19~24세 집단(26.1%) 순으로 발생함

○ 특히 청년인구 이동 패턴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청년은 일반적으로 20대 정도에 타 지역에서 인적자본을 쌓은 후, 30대에 숙련된 인적자원으로 귀향하는 경향을 보이며, 경남은 이 패턴이 약화되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한번 이동한 청년인구가 돌아오지 않는 패턴으로 전환됨

○ 연령 코호트별(cohort) 인구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청년인구 이동 패턴의 감소일로 변화는 2006년에 15~19세였던 1987년~1991년생 코호트부터 시작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2.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 청년여성 인구의 순이동 패턴은 2016년을 기점으로 변화함.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청년여성 인구의 평균 순이동률은 -0.3%로 -0.8%~-0.5% 범위 안에서 움직였으나, 2016년부터 박스권을 이탈하여 청년남성보다 더 급격한 감소세가 진행됨

- 2021년 청년여성 인구만 일부 유입된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청년여성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타지역에서 귀향하여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청년여성 인구의 순이동 패턴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얻기 위해 청년여성 연령3계층별 순이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4세 청년여성의 인구 순유출 수준이 25~29세와 30~34세 청년여성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여성 인구가 경남을 떠나 향하는 주요 목적지는 서울, 경기, 부산 등임. 서울과 경기는 전통적인 유출 목적지이나, 부산은 2019년을 기점으로 유출 목적지로 전환됨. 이 외에도 경남 청년여성 인구는 경남 인근 지역인 영남권(대구, 경북, 울산,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여성은 주로 직업, 교육의 이유로 경남을 떠나고, 가족을 이유로 경남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청년여성 인구이동 이유를 생애주기에 따라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를 나타냄. 3개 연령층 모두 직장이 가장 큰 순이동 이유였으나, 고등교육으로 진입하는 시기인 19~24세의 경우 교육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Ⅲ. 청년·인구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1. 청년 및 인구정책 검토

○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계획에서는 일자리에 관련된 과제가 가장 많음

○ 청년이자 여성인 청년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은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중앙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과 경남의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2022-2026)〉 등을 바탕으로 진행 중임. 해당 정책에서는 결혼, 임신, 자녀출생, 돌봄 및 가족구성원, 즉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여성에 대한 정책은 생애단계적 관점으로 정책 및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2. 청년·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

○ 청년 관련 정책연구는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복지·문화 등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 종합정책연구기관 및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연구 중 청년 대상 연구는 일자리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련된 연구, 복지·문화에 관련된 연구가 순으로 많은 편임. 반면, 교육이나 참여·권리에 관련된 연구는 적은 편수인 것으로 나타남
-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해서는 2021년에 진행된 최신 연구 동향만 살펴보면, 역시 일자리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거, 복지·문화, 기타 정책 및 종합계획 등 순으로 나타남. 반면, 교육 관련 연구는 적은 편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권리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이동과 관련된 연구 중 청년을 대상으로 다룬 연구를 지난 10년간 살펴보면, 인구 이슈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진행하기보다는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 세부적으로의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가 많은 편이며, 그 외 지역의 대학, 법·제도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와 연계하여 진행됨.

- 경남에서도 최근 청년 종합계획연구 및 인구유출 대응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년여성으로 갖게 되는 생애단계 이슈를 고려한 연구, 경남의 시·군의 청년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Ⅳ.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1. 설문조사 분석

1) 조사개요

○ 조사대상 : 경상남도 거주 만 19세-34세 청년여성 946명(19-24세, 25- 29세, 30-34세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층화 표본 조사 시행)

○ 조사방법 및 진행방식

- 조사기간 : 2021.10.19.~10.30.(약 2주간 진행)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전문 조사업체 활용)
- 조사신뢰도: 95% 신뢰구간에서 ±3.1%
- 온라인으로 수집된 자료는 전산 프로그램(EXCEL, SPSS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Frequency-analysis),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등의 방법을 활용함

○ 조사내용

-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방안의 조사내용은 응답자 인적사항(4개 문항)을 포함하여, 청년정책의 5대 영역(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과 여성 생애주기별 접근 정책(결혼, 임신, 자녀출생, 돌봄, 가족) 등을 고려하여 문항을 구성함
- 세부적으로는 청년여성 인식 및 의향(16개 문항), 일자리(21개 문항), 주거(10개 문항), 교육 및 복지·문화(13개 문항), 사회적 관계망(7개 문항), 정책에 대한 요구(5개 문항) 등 7개 영역 76개 문항으로 구성함

2) 조사 결과

□ 청년여성 인식 및 의향

○ 경남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정주 및 이주의사에 대한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경남에 계속 정주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1.0%만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정주 의사에 대해서는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19-24세의 경우 전체의 44.9%가 경남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에 정주 의사가 없는 경우 이주하고 싶은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부산(42.3%), 서울(35.0%)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이주하고 싶은 지역에 대한 선호 또한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서울을 더 선호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산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 및 수도권' 또는 '부산·울산 등 인근 대도시'로 이주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서울 및 수도권'보다는 '부산·울산 등 인근 대도시'로 이주하고 싶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더 높게 나타남

○ 경남 청년여성 중 현재 혼인상태가 미(비)혼인 713명을 대상으로 결혼 의향을 질문한 결과, 54.4%는 결혼 의향이 있고 45.6%는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후에도 경남에 거주할 의향 대해서는 66.2%만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결혼 후 경남 거주 의향이 없는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일자리 때문으로 나타남

○ 경남 청년여성들은 결혼 및 자녀출생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문제'(34.9%) 또는 '경력단절 및 고용에 대한 불안'(27.1%)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 일자리

○ 설문조사에 응답한 946명 중 현재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89명(51.7%)이며, 취업자의 직장 유형은 민간회사(개인 사업체), 업종은 제조업(사무종사직), 고용형태는 정규직, 월평균 소득(세후 기준)은 200-300만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취업자들 대상으로 고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직장 내 인간관계', '평균 업무시간', '고용 안전성 보장' 순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고,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급여(소득) 수준'이었음

○ 하지만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경남지역 일자리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고용 만족도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음. 이는 현재 취업 중인 응답자가 실업자(구직중)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응답자보다 고용이나 일자리 전반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경남지역 일자리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경남지역 일자리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2.70점)이고,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노동시장 문화가 조성되어 있다'(2.30점)로 나타남

□ 주거

○ 전체 응답자의 87.0%는 경남지역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거환경과 생활 편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주거하는 곳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대형유통시설 및 상업시설 이용 편리성,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공공기관 이용 편리성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모두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남. 다만, 문항별로 시·군, 동서부 지역, 정주의사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해서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중교통 또는 도보' 이용률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가용/오토바이/자전거'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 청년여성에게 필요한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매입/보증/전세금 지원'과 '월세/관리비 지원'과 같이 주거비 직접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교육 및 복지·문화

○ 전체 응답자 대상 최종학교 소재지를 질문한 결과 경남과 부산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여성 대부분은 경남 또는 부산 소재 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함

○ 경남지역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았는데, 특히 '수준 높은 초·중·고등학교 교육 제공'보다 '수준 높은 대학·평생 교육 이수 가능' 부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임

○ 교육 및 복지·문화 만족도, 지역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가운데, 경남 청년여성들은 현 거주지에 가장 필요한 여가시설은 '공연/전시장'이고, 청년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여가·문화 정책은 '다양한 문화예술/취미생활 프로그램 개설'이라고 응답함

□ 사회적 관계망

○ 경남 청년여성들은 가족, 친구, 단체와 같은 사회적 관계망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망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하지만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에 대한 요구

○ 경남 청년여성들은 지역에서의 자아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참여 보장 정도에 대해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청년여성을 위한 정주여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일자리 환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택문제', '문화(여가생활) 환경', '보육·양육 환경'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 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19-24세 집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문화(여가생활), 안전, 생활편의 서비스, 교통' 부문의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25-29세와 30-34세 집단은 '보육·양육'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경남지역으로 청년여성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거비용 부담 완화', '쇼핑, 공원 등 근린생활시설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관내 기업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19-24세 집단은 '대중교통의 편리성 강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30-34세 집단은 '근린생활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년여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거안정 정책', '자녀출생 및 보육지원 정책',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19-24세 집단은 '의료·건강서비스 지원, 교통시설 확충'에 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30-34세 집단은 '자녀출생 및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남 청년여성들의 정책 수요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청년여성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일자리 분야의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다만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라 시급하게 인식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청년여성을 하나의 통일된 집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연령, 지역, 취업상태, 혼인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FGI 분석

1) 조사 개요

○ 경남 청년여성들의 지역내 거주 및 이동에 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재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

○ 2021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 동안 총 7차례의 FGI를 실시하였고, 미취업자(대학생 및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취업자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년여성 집단이 FGI에 참여함

○ FGI는 청년 및 인구 정책의 영역을 고려하여 1) 일자리, 2) 주거(교통환경), 3) 교육, 4) 복지·문화, 5) 사회적 관계망, 6) 정책에 대한 요구, 7) 청년여성으로서의 인식(결혼 및 출산 관련 태, 삶의 만족도, 가치관) 및 향후 거주 의향이 포함된 반구조화된 질문 가이드를 기반으로 진행됨

○ 일 시 : 2021년 10월 15일(금) ~ 21일(목)

○ 대 상 : 현재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의 청년여성 32명

2) 조사 결과

□ 일자리

○ 경남 청년여성들은 제조업 중심의 경남 산업구조로 인해 구직활동과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 중심으로 발달한 경남의 산업구조에서 대다수의 기업들은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고, 인문·사회 및 예체능을 전공한 청년여성은 이공계를 전공한 청년보다 지역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 경남지역의 기업문화는 보수적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역 내 청년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수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청년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혹은 제조업에서도 사무종사자와 같은 여성 친화적인 직업군에 대부분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제외한 직업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며 지역내 청년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의 다양성이 부족, 대학에서 전공을 통해 진로를 찾고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경남 지역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낮은 처우, 여성의 승진 제한, 기업의 남성 선호, 성차별 등이 여전히 존재해 가부장적인 조직문화와 함께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처우에 위치하여 있다는 것으로 확인됨

○ 경남 청년여성 대다수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인근 광역시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음

□ 주거(교통환경)

○ 청년여성들은 주거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음. 특히 청년층의 거주율이 높은 대학가 주변의 원룸촌,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남

○ 청년여성들은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였고, 청년여성의 경우 대출에 제약으로 인해 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해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 경남 지역에서 제공되는 대중교통 수단은 제한적이고 이용에 있어서도

불편한 것으로 확인됨. 경남 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상당 수준 불편할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과의 경남 지역의 연결성 또한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

○ 경남 청년여성 대다수는 지역 내의 대학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향후 지역에서의 진로를 정하고 취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원으로의 진학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남

○ 지역내 교육훈련(학원 등)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교육의 질이 매우 낮아 대다수가 인근 광역시인 부산이나 서울에서 교육을 듣고 있음.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하여 지역 내 직업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자 할 때 해당 인프라가 부족하여 타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으나, 연계가 되지 않는 등의 아쉬움이 있음

○ 평생교육은 시설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설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여 청년여성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복지·문화

○ 청년여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과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프로그램 수준 또한 낮아 대다수가 오히려 지역 내 보다는 인근 광역시나 서울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지역에서 문화 정책 지원 등에 관심 정도가 매우 낮고,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시설 이용의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남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발전은 힘들 것으로 인식함

○ 경남 지역내 의료시설 수는 타지역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으며 서비스의 질 또한 낮게 평가됨

□ 사회적 관계망

○ 청년여성 대다수는 지역에 거주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 긍정적인 사회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 같이 지역에서 구축된 인맥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에 머물며 거주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남

○ 한편, 청년여성은 코로나 19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일상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 형성하는 것에 회의적이거나 신체·정신 건강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에 대한 요구

○ 일자리의 경우 비대면 여성 일자리 창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기업 내 양성평등 교육 및 보육시설 확대 등 경남의 가부장적인 기업문화가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

○ 거주 지원 정책은 청년여성들이 주거 마련을 위해서 미혼 및 1인가구의 주거비용 지원을 비롯해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내, 지역 외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봄

○ 교육·문화영역의 경우, 청년(여성)들이 모여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지역에서 조성해 주고, 시대 흐름에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되길 바람

○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청년여성들을 위한 산부인과 관련 진료 지원 등 건강 증진 서비스가 요구됨

□ 청년여성으로서의 인식 및 향후 거주 의향

○ 결혼 및 출산 정책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향후 결혼과 출산 경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임

○ 경남에서 타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남 청년여성 대다수는 더 나은 직장과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얻고자 이주하려 함

○ 향후에도 경남 지역에 머물고자 하는 이유로는 이주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하였으며, 이 외에도 현 거주지에서의 안정감, 주거 요건, 만족감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Ⅴ.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방안

○ 연구의 주요 결론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영역과 함께 청년여성 정책 및 연구 추진 기반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Ⅴ-1〉 결론 및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방안 영역

구분		결론	대응 방안 영역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 경남 지역에서 청년여성이 우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고 노동시장(경남인적자원-경남지역 대학-경남일자리)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교육
		▪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라 유출되는 요인이 다르므로 연령을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	정책 및 연구 기반 강화
		▪ 경남 지역과 인근지역과 연계, 즉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한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마련 필요	정책 및 연구 기반 강화
청년·인구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 경남의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와 인구정책, 여성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의 지속적 협업 필요	정책 및 연구 기반 강화
		▪ 경남 청년정책 추진사업(청년정책, 청년교류, 청년지원)에서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청년이자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접근 필요	정책 및 연구 기반 강화
		▪ 경남 교류 및 지원 사업(청년정책네트워크 등)에서 성인지적관점과 함께 청년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필요	참여·권리
		▪ 청년여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령별, 생애단계별, 지역별 요구사항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 협동 연구 추진 및 정책 수행 필요	정책 및 연구 기반 강화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조사	▪ 경남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 강화와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일자리
		▪ 경남 청년여성의 전·월세자금 등의 주거비 직접지원과 주거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제도적 완화 필요	주거
		▪ 경남의 문화예술, 취미를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청년여성을 위한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 설치 필요(시·군 지역 고려)	복지·문화
		▪ 청년여성의 진로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고등평생교육기관 확대	교육

구분		결론	대응 방안 영역
	FGI	▪ 지역대학의 전공과 일자리를 연계하고 진로와 취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청년여성 비대면 직종 개발, 창업 플랫폼 지원 필요	일자리
		▪ 경남 기업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 필요	일자리
		▪ 청년여성의 경우 대출에 제약으로 인해 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해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 필요	주거
		▪ 경남 지역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타 지역과의 인프라 연계 지원 필요	교육
		▪ 경남 지역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위한 청년 문화 지원 정책 강화 필요	복지·문화
		▪ 지역 보건소 등 기관을 활용한 청년여성의 신체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추진 필요	복지·문화

○ 청년여성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영역별(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정책 및 연구 기반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청년여성의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단기적 접근도 필요하나, 중·장기적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노력이 지속될 때 지역 청년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인구이동을 완화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제시함

1) 일자리

□ 경남 청년여성을 위한 일 경험 프로그램 제공

○ 경남은 청년여성이 일자리에 진입하기 전 일 경험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에 경남 지역의 기업들이 본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남의 기업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청년여성의 전공 비율이 높은 인문·사회계열 등의 학생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 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경남 지역에서는 청년인싸희망로드맵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더욱 홍보 및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남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청년여성이 일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경남 청년여성을 위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경남 지역 기업은 남성중심의 조직문화가 만연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경우가 많아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 청년여성에게 수평적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지원하고 청년여성의 일-가정양립을 넘어서 일생·활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기업, 여성친화기업 등을 확대하고 성평등한 기업문화와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경남 청년여성 대상 일자리 요구 파악 및 사업 모니터링

○ 경남의 청년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동향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등이 마련되어야 함

○ 그리고 경남 지역의 일지라는 신규 정책을 통해 청년여성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나, 일자리 정책에서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어느정도 인지, 추진 중인 사업에서 청년여성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청년여성 수혜자를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2) 주거

□ 청년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경남 주거비용 지원

○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청년 중 1인가구 형태가 보편화되어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나, 청년을 지원하는 주거비용

및 대출 등은 신혼부부 등 일반가구를 지원하는 주거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하는 것이 요구됨

○ 특히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에서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청년여성의 경우 결혼, 임신, 자녀출생 등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늦어진 경우 혜택이 34세 이후에는 해당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경남에서 만이라도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남 청년여성의 주거 안전 지원

○ 경남 청년여성의 거주율이 높은 대학 주변의 원룸, 다주택 등 대학가 주변의 경우 안전에 대한 불안도가 높은 편으로 청년여성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주거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여성 및 1인가구를 지원하는 안심홈 지원 확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안전 모니터링, 다양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 공유 및 교육과 홍보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교육

□ 경남 인적자원-경남 지역대학-경남 일자리로의 선순환 체계

○ 경남지역 대학은 경남의 인적자원이 지역 대학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선순환 체계를 지원해야 할 것임. 경남은 산-학·연-관 체계를 바탕으로 경남지역 인재가 경남에서 취·창업을 하여 지역에서 성장하고 경남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경남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확대

○ 경남의 청년여성이 자신의 직업능력 및 역량을 향상하는 데 요구되는 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됨. 먼저, 경남 지역에는 고용

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지역 내 청년여성들을 위한 맞춤형을 운영하면서 시설들이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설계되어야 함

○ 특히 4차 산업혁명, 코로나 19 발생 등으로 기술혁신과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경남에서는 청년여성이 비대면으로 취·창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 경남 평생교육기관의 역할 및 프로그램 확대

○ 경남 지역 대학 내에서 청년여성이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의 대학이 청년여성에게 전문교육, 청년 재직자의 교육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우수 인적자원 및 전문가로 육성시키는 시스템, 대학평생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리고 경남 지역은 평생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경남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경남의 청년여성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함

4) 복지·문화

□ 경남 청년여성을 위한 신체·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지원

○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하여 경남 청년여성들은 사회적 관계 축소,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위치 및 조건 등으로 인하여 신체·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청년여성의 신체·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청년시기에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적 위축으로 삶의 질 저하, 만족도가 낮은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마음단디 경남청년조기중재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청년들에게 홍보하고 확대하여 18개

시·군의 청년들 모두가 심리증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야 할 것임

5) 참여·권리

□ 경남 청년지원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 확대와 청년여성 참여 촉진

○ 청년세대의 경우 젠더이슈, 페미니즘 등을 둘러싼 성별 인식의 격차가 큰 만큼 경남은 청년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확대, 올바른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청년 대상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하여 청년여성과 청년남성 모두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경남 청년정책네트워크와 같이 참여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모임에서는 다양한 청년여성(농산어촌, 한부모, 다문화 등)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경남은 청년정책의 거버넌스로써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청년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노력이 요구됨

6) 정책 및 연구 기반 강화

□ 경남 청년의 다양성과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 추진

○ 경남은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청년의 다양성, 여성으로서의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정책, 청년여성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에 다양한 정책 대응 방안 간의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계, 경남 내에서는 여성정책, 청년정책,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간의 연계, 청년여성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 협력, 민간 단체들과의 협업 등 전체적인 거버스 구성이 필요함

○ 무엇보다 경남이 추진 중인 〈(2022~2026년)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 등 청년의 인구인동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경남 지역은 18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바, 시·군의 특성 역시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경남 청년여성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 추진

○ 청년여성의 인구이동에 대한 이슈는 일자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 관련된 이슈가 주된 문제이므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되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의 쟁점들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정책연구가 추진되어야 함. 이러한 이슈는 경남 지역에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 지원 정책은 부울경의 동남권 메가시티, 그리고 영남권이 연계한 정책과 연구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위한 연구 추진이 필요함

○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남은 청년여성을 위한 다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면 청년여성의 순유출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차 례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범위 및 내용 ····· 5
3. 연구방법 ····· 6
4. 연구 추진 절차 ····· 6

Ⅱ.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 9

1. 경남 청년인구 현황 ····· 11
2.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 25
3. 소결 ····· 33

Ⅲ. 청년·인구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 35

1. 청년 및 인구정책 ····· 37
2. 청년·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 ····· 57
3. 소결 ····· 61

Ⅳ.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 65

1. 설문조사 분석 ····· 67
2. 초점집단면접(FGI) 분석 ····· 118
3. 소결 ····· 148

Ⅴ.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방안 ····· 157

1. 요약 및 결론 ····· 159
2.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방안 ····· 164

참고문헌 ····· 173

부 록 ····· 177

표 차례

〈표 Ⅱ-1〉 청년인구 변화 추이(2001~2021) ····· 12
〈표 Ⅱ-2〉 청년 연령3계층별 인구변화 추이(2001~2021) ····· 14
〈표 Ⅱ-3〉 연령 코호트별 규모 변화 추이(2001~2021) ····· 15
〈표 Ⅱ-4〉 시·군별 청년인구 변화 추이(2001년과 2021년 비교) ····· 19
〈표 Ⅱ-5〉 시·군별 청년 연령3계층별 인구변화 추이(2001년과 2021년 비교) ····· 21
〈표 Ⅱ-5〉 시·군별 청년 연령3계층별 인구변화 추이(2001년과 2021년 비교)(계속) ··· 22
〈표 Ⅱ-5〉 시·군별 청년 연령3계층별 인구변화 추이(2001년과 2021년 비교)(계속) ··· 23
〈표 Ⅱ-5〉 시·군별 청년 연령3계층별 인구변화 추이(2001년과 2021년 비교)(계속) ··· 24
〈표 Ⅱ-6〉 청년여성 인구 시·도간 인구이동 추이(2001~2021) ····· 26
〈표 Ⅱ-7〉 청년여성 연령3계층별 시·도간 인구이동 추이(2001~2021) ····· 28
〈표 Ⅱ-8〉 지역별 경남 청년여성 순이동 추이(2001~2021) ····· 30
〈표 Ⅱ-9〉 청년여성 순이동 이유(2010 vs. 2020) ····· 31
〈표 Ⅱ-10〉 연령별 청년여성 순이동 이유(2020) ····· 32
〈표 Ⅲ-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5대 정책방향 및 20개 중점과제 38
〈표 Ⅲ-2〉 정부부처별 청년정책 현황 ····· 39
〈표 Ⅲ-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중 청년여성 관련 세부과제 ····· 40
〈표 Ⅲ-4〉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부서업무 ····· 41
〈표 Ⅲ-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추진 전략 및 과제 ····· 42
〈표 Ⅲ-6〉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의 청년 및 여성 관련 세부 과제 43
〈표 Ⅲ-7〉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중 청년 관련 세부 과제 ····· 45
〈표 Ⅲ-8〉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의 청년 및 여성 관련 세부 과제 ····· 47
〈표 Ⅲ-9〉 〈경상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19-2023)〉의 사업 현황 ····· 50
〈표 Ⅲ-10〉 경상남도 청년정책추진단 부서업무 ····· 51
〈표 Ⅲ-11〉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 추진 전략 및 과제 ····· 52
〈표 Ⅲ-12〉 '함께 돌보고 키우는 경남'의 청년 및 여성 관련 세부과제 ····· 53
〈표 Ⅲ-13〉 '청년이 빛나는 경남'의 청년 및 여성 관련 세부과제 ····· 54
〈표 Ⅲ-14〉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경남' 중 여성 관련 세부 과제 ····· 55
〈표 Ⅲ-15〉 '경남에서 길러내는 경남 人' 중 여성 관련 세부 과제 ····· 56
〈표 Ⅲ-16〉 '인구 변화 선제 대응' 중 여성 관련 세부 과제 ····· 56
〈표 Ⅲ-17〉 전국 종합정책연구기관 및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의 청년연구 동향 (2011-2021) ····· 57
〈표 Ⅲ-18〉 청년 및 인구 선행연구 동향(2011-2021) ····· 58
〈표 Ⅲ-19〉 전국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의 청년여성 연구 동향(2016-2021) ····· 59

〈표 Ⅲ-20〉 청년여성 2021 연구 동향 ····· 60
〈표 Ⅳ-1〉 조사내용 ····· 68
〈표 Ⅳ-2〉 응답자 인적사항 ····· 69
〈표 Ⅳ-3〉 청년여성으로서 삶의 만족도 ····· 70
〈표 Ⅳ-4〉 청년여성으로서 삶의 만족도 ····· 72
〈표 Ⅳ-5〉 경남지역 정주 의사 ····· 73
〈표 Ⅳ-6〉 (정주 의사 없는 경우) 이주를 고려하는 지역 ····· 74
〈표 Ⅳ-7〉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 이주 의사 ····· 74
〈표 Ⅳ-8〉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 이주 계획 ····· 76
〈표 Ⅳ-9〉 혼인상태 ····· 77
〈표 Ⅳ-10〉 (미·비혼 대상) 결혼 의향 ····· 77
〈표 Ⅳ-11〉 결혼 의향 없는 이유 ····· 78
〈표 Ⅳ-12〉 결혼 후 경남 거주 의향 없는 이유 ····· 78
〈표 Ⅳ-13〉 결혼 및 자녀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 79
〈표 Ⅳ-14〉 취·창업 상태 ····· 80
〈표 Ⅳ-15〉 (취업자 대상) 직장 유형 ····· 80
〈표 Ⅳ-16〉 (취업자 대상) 업종 ····· 81
〈표 Ⅳ-17〉 (취업자 대상) 고용형태 ····· 82
〈표 Ⅳ-18〉 (취업자 대상) 월평균 소득(세후 기준) ····· 82
〈표 Ⅳ-19〉 취업자 고용 만족도 ····· 83
〈표 Ⅳ-20〉 취업자 고용 만족도(1) ····· 84
〈표 Ⅳ-21〉 취업자 고용 만족도(2) ····· 85
〈표 Ⅳ-22〉 경남지역 일자리 평가 ····· 86
〈표 Ⅳ-23〉 경남지역 일자리 인식도 평가(1) ····· 88
〈표 Ⅳ-24〉 경남지역 일자리 인식도 평가(2) ····· 89
〈표 Ⅳ-25〉 경남지역 거주기간 ····· 90
〈표 Ⅳ-26〉 주거환경 만족도 ····· 91
〈표 Ⅳ-27〉 주거환경 만족도 ····· 92
〈표 Ⅳ-28〉 주거지역 편리성 ····· 93
〈표 Ⅳ-29〉 주거지역 편리성 ····· 94
〈표 Ⅳ-30〉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95
〈표 Ⅳ-31〉 청년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 96
〈표 Ⅳ-32〉 최종학력 ····· 97
〈표 Ⅳ-33〉 (졸업자 대상) 전공계열 ····· 97
〈표 Ⅳ-34〉 최종학교 소재지 ····· 98
〈표 Ⅳ-35〉 경남지역 교육환경 평가 ····· 99

〈표 Ⅳ-36〉 경남지역 교육환경 평가 ····· 100
〈표 Ⅳ-37〉 교육 및 복지·문화 만족도 ····· 101
〈표 Ⅳ-38〉 교육 및 복지·문화 만족도 ····· 102
〈표 Ⅳ-39〉 경남지역 문화 및 여가활동 평가 ····· 103
〈표 Ⅳ-40〉 경남지역 문화 및 여가활동 평가 ····· 104
〈표 Ⅳ-41〉 현거주지에 가장 필요한 여가시설 ····· 105
〈표 Ⅳ-42〉 여가·문화 활동을 즐기려는 청년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3순위) ····· 105
〈표 Ⅳ-43〉 사회적 관계망 인식 ····· 106
〈표 Ⅳ-44〉 사회적 관계망 인식 ····· 108
〈표 Ⅳ-45〉 사회적 관계망 만족도 ····· 109
〈표 Ⅳ-46〉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만족도 ····· 110
〈표 Ⅳ-47〉 청년여성 정책참여에 대한 인식 ····· 111
〈표 Ⅳ-48〉 청년여성 정책참여에 대한 인식 ····· 112
〈표 Ⅳ-49〉 청년여성 정주여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분야(3순위) ····· 113
〈표 Ⅳ-50〉 청년여성 정주여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분야 (연령별 비교) ····· 114
〈표 Ⅳ-51〉 청년여성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 (3순위) ····· 115
〈표 Ⅳ-52〉 청년여성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 (연령별 비교) ····· 115
〈표 Ⅳ-53〉 청년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3순위) ····· 116
〈표 Ⅳ-54〉 청년여성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 (연령별 비교) ····· 116
〈표 Ⅳ-55〉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방안 FGI 주요 질문 내용 ····· 118
〈표 Ⅳ-56〉 초점집단면접(FGI) 대상자(타지역 → 경남 이주) ····· 119
〈표 Ⅳ-57〉 초점집단면접(FGI) 대상자(타지역 거주 경험 없음) ····· 119
〈표 Ⅴ-1〉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요약 및 결론 ····· 157
〈표 Ⅴ-2〉 청년·인구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요약 및 결론 ····· 158
〈표 Ⅴ-3〉 설문조사 분석 요약 및 결론 ····· 159
〈표 Ⅴ-4〉 FGI 분석 요약 및 결론 ····· 161
〈표 Ⅴ-5〉 결론 및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방안 영역 ····· 163

그림 차례

[그림 Ⅰ-1] 연구 절차, 내용 및 방법 ····· 7
[그림 Ⅱ-1] 청년인구 변화 추이(2001~2021) ····· 11
[그림 Ⅱ-2] 연령3계층별 청년인구 증감률(2001~2021) ····· 13
[그림 Ⅱ-3] 시·군별 청년인구 변화 추이(2001년과 2021년 비교) ····· 18
[그림 Ⅱ-4] 청년여성 인구 시·도간 순이동률 추이(2001~2021) ····· 25
[그림 Ⅱ-5] 청년여성 연령3계층별 순이동률 추이(2001-2021) ····· 27
[그림 Ⅱ-6] 지역별 경남 청년여성 순이동 추이(2001~2021) ····· 29
[그림 Ⅱ-7] 연령별 청년여성 순이동 이유(2020) ····· 31
[그림 Ⅳ-1] 청년여성으로서 삶의 만족도 ····· 71
[그림 Ⅳ-2]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 이주 계획 ····· 75
[그림 Ⅳ-3] 취업자 고용 만족도 ····· 84
[그림 Ⅳ-4] 경남지역 일자리 평가 ····· 87
[그림 Ⅳ-5] 주거환경 만족도 ····· 91
[그림 Ⅳ-6] 주거지역 편리성 ····· 94
[그림 Ⅳ-7] 경남지역 교육환경 평가 ····· 99
[그림 Ⅳ-8] 교육 및 복지·문화 만족도 ····· 101
[그림 Ⅳ-9] 경남지역 문화 및 여가활동 평가 ····· 103
[그림 Ⅳ-10] 사회적 관계망 인식 ····· 107
[그림 Ⅳ-11] 사회적 관계망 만족도 ····· 109
[그림 Ⅳ-12] 청년여성 정책참여에 대한 인식 ····· 111

I

서 론

GNWFF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 경남 청년여성 순유출 심화와 지역 경쟁력 약화

○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지방은 지역을 떠나 수도권 등으로 이동하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인구 감소와 청년 인구이동에 대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지방의 인구 문제는 인구 재생산 기능 약화와 지역의 경기 침체 및 성장잠재력 저하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경남 역시 청년인구가 수도권이나 타 대도시 등으로 유출되면서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 중임. 지난 20년간, 경남의 총인구는 6.8%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만 19~34세의 청년인구의 경우 3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경남의 청년남성 인구 감소(27.7%)보다 청년여성의 인구 감소(37.0%)가 더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남 청년여성의 순유출은 역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청년남성의 순이동률의 변화(2010년 -0.5%, 2021년 -3.0%) 보다 청년여성의 순이동률 변화(2010년 -0.2%, 2021년 -3.04%)가 높은 편으로, 경남 청년여성의 순유출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임

○ 경남의 청년여성 인구의 감소 및 순유출 심화는 저출생 및 고령화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여성 인적자원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이어짐. 또한 경남 지역의 활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청년여성의 인구유출에 대응이 필요함

□ 중앙정부 및 경남 청년정책 추진

○ 그간의 청년 문제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

지 못하면서 일자리에서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보면서 청년인구 문제 역시 일자리 부문에 국한하여 살펴본 경향이 있었음

❍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 주요핵심은 일자리인 것은 틀림없으나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한 정책으로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이윤주, 하형석, 김기헌, 2017). 이에 청년의 삶을 둘러싼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다양한 제도 및 정책을 시행 중임

- 중앙정부에서는 청년과 인구 변화에 대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기본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수립하여 추진 중임
- 경남은 민선 7기를 통하여 청년특별도를 조성하고 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경상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19-2023)을 추진 중임. 이와 함께 인구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과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2022-2026)〉 등을 바탕으로 청년 인구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경남의 18개 시·군 차원에서도 청년층의 문제와 인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청년의 인구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을 수립하여 시행 중임

□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완화를 위한 대응 방안 필요

❍ 경남 청년여성의 타 지역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이자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함.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추진되는 만큼 경남 청년여성이 지역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남 지역이 청년여성에게 적합한 공간, 즉 일자리, 주거, 교육 등의 토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결혼, 임신, 자녀출생,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 방안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

- 경상남도 청년실태조사에서는 경남 청년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문제를 겪

고 있으며, 지역을 떠나고 싶은 이유로 경제 및 일자리, 문화 및 여가, 교육 등인 것으로 나타남(김유현 외, 2020). 즉 인구감소 문제는 단기간 대응이 어렵고 청년의 전 분야와 연계되어 있어(김경수 외, 2022) 청년여성의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방면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이 연구에서는 경남의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및 청년 지원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또한 지역의 청년여성으로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등에서 겪는 문제점과 이슈를 파악하고자 하며, 경남 청년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목적

○ 이 연구에서는 경남 청년여성의 일자리, 교육, 문화 등에 관련된 실태와 의식, 정책 요구 등을 파악하여 경남 청년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인구유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 범위 및 내용

1)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경상남도

○ 내용적 범위

-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 중앙정부 및 경남 청년·인구정책
- 청년·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
-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방안

○ 대상적 범위

- 경남 청년여성

· 「청년기본법」과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의거하여 만 19세 이상 34

세 이하의 청년여성을 의미함

2) 연구내용

○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 경남 청년인구 현황
-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 청년·인구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 중앙정부 및 경남 청년·인구정책
- 청년 관련 선행연구

○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 설문조사(청년여성 대상 설문조사)
- 초점집단면접(FGI)(주요 청년여성 대상 면접조사)

○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방안
-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방안 및 정책제언

3. 연구방법

○ 통계자료 분석
- 경남 청년의 일반적 현황 분석
-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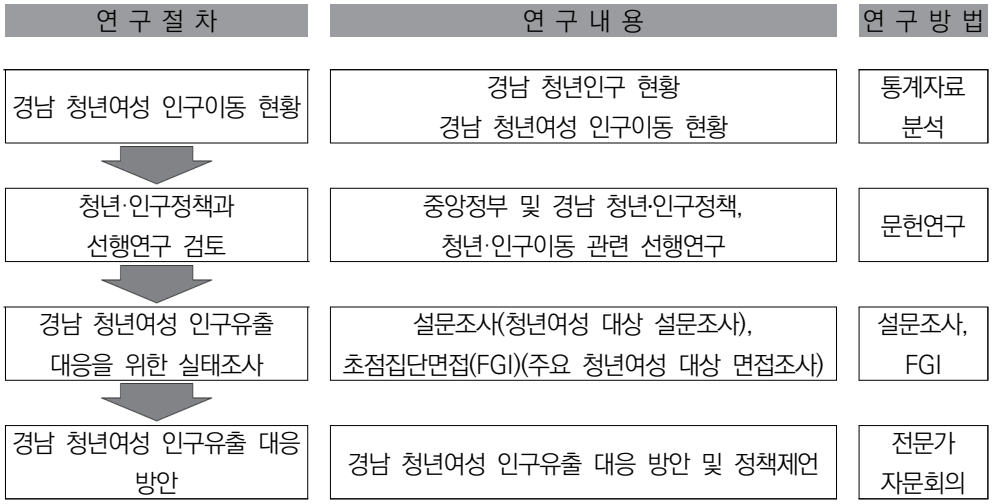
○ 문헌연구
- 중앙정부 및 경남 청년·인구정책 검토
- 청년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설문조사 분석
-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 초점집단면접(FGI) 분석
- 경남 주요 청년여성 대상 초점집단면접 분석

4. 연구 추진 절차

○ 이 연구의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그림 Ⅰ-1]과 같음



[그림 Ⅰ-1] 연구 절차, 내용 및 방법

Ⅱ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GNWFF

Ⅱ.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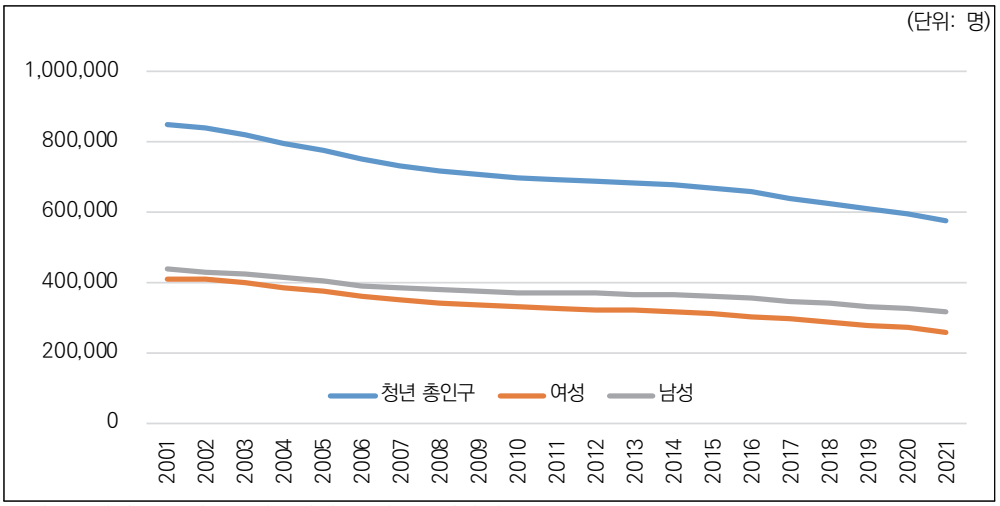
1. 경남 청년인구 현황

1) 경남 청년인구 현황

□ 청년인구 변화 추이

○ 최근 20년간, 총인구는 6.8% 증가했으나(2001년: 3,100,458명→2021년: 3,311,249명), 만19~34세 청년인구는 32.2% 감소함(2001년: 846,484명→2021년: 573,648명)

○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은 경남에서 전개되고 있는 청년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줌. 〈표 Ⅱ-1〉에 따르면,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은 2001년 27.3%에서 2021년 17.3%로 10.0%p 하락하여 경남 인구 증가의 동력은 청년층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음



출처: 통계청.「주민등록인구현황-주민등록연앙인구」, KOSIS.

[그림 Ⅱ-1] 청년인구 변화 추이(2001~2021)

○ 청년여성 인구는 청년남성 인구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함. 지난 20년간, 청년남성 인구는 27.7%(2001년: 435,530명→2021년: 314,712명) 감소

했으나, 청년여성 인구는 37.0%(2001년: 410,954명→2021년: 258,936명) 감소함. 그 결과, 청년 총인구 대비 청년여성 비율도 48.5%에서 45.1%로 하락해 만19~34세 청년층의 성비 불균형이 강화됨

〈표 Ⅱ-1〉 청년인구 변화 추이(2001~2021)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청년 총인구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	청년 총인구 대비 청년 여성 비율
			여성	남성		
2001(A)	3,100,458	846,484	410,954	435,530	27.3	48.5
2002	3,115,460	837,038	406,495	430,543	26.9	48.6
2003	3,131,718	820,347	397,453	422,895	26.2	48.4
2004	3,141,416	796,944	385,053	411,891	25.4	48.3
2005	3,152,123	773,623	372,314	401,309	24.5	48.1
2006	3,166,644	752,159	360,792	391,367	23.8	48.0
2007	3,184,905	733,215	350,617	382,598	23.0	47.8
2008	3,211,104	718,497	341,399	377,098	22.4	47.5
2009	3,237,716	707,488	333,912	373,577	21.9	47.2
2010	3,258,283	699,094	328,546	370,548	21.5	47.0
2011	3,276,317	694,081	325,292	368,790	21.2	46.9
2012	3,291,679	689,532	321,978	367,554	20.9	46.7
2013	3,304,756	684,743	318,356	366,387	20.7	46.5
2014	3,321,035	679,303	314,399	364,904	20.5	46.3
2015	3,336,799	669,747	308,489	361,258	20.1	46.1
2016	3,348,252	656,818	301,782	355,036	19.6	45.9
2017	3,356,330	640,609	294,113	346,496	19.1	45.9
2018	3,356,947	624,068	286,108	337,960	18.6	45.8
2019	3,348,258	610,250	278,726	331,525	18.2	45.7
2020	3,332,034	594,226	269,641	324,585	17.8	45.4
2021(B)	3,311,249	573,648	258,936	314,712	17.3	45.1
증감률	6.8	-32.2	-37.0	-27.7	-	-

주: 증감률=(B-A)/A×100
출처: 통계청.「주민등록인구현황-주민등록연앙인구」, KOSIS.

□ 청년 연령3계층별 인구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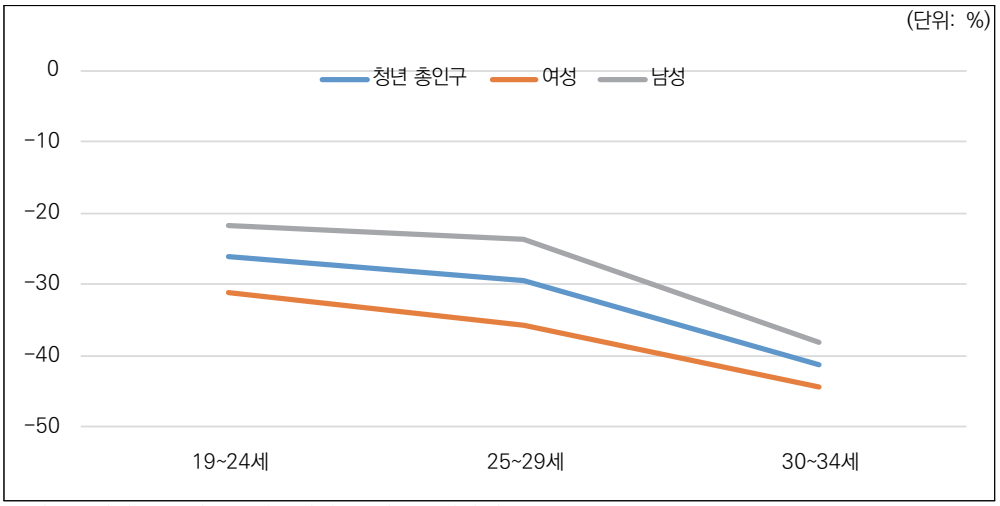
○ 청년인구를 5세 단위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 20년간 청년 연령3계층별 인구감소 규모의 크기는 30~34세 집단(41.1%), 25~29세 집단(29.4%), 19~24세 집단(26.1%) 순으로 발생함

○ 청년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인구감소 규모가 증가하는 현상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령3계층별 청년여성 인구의 감소 폭은

청년남성 인구의 감소 폭보다 큼

○ 〈표 Ⅱ-2〉에 따르면, 2001년 대비 2021년 남녀 청년인구 감소 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9.3%p 더 많이 감소함. 남녀 청년인구 감소 격차를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19~24세 구간에서 9.4%p, 25~29세 구간에서 12.0%p, 30~34세 구간에서 6.2%p 더 많이 감소함

○ 남녀 청년인구 감소 격차는 청년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30~34세 구간에서 좁아지는데, 그 이유는 해당 연령대의 청년남성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임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주민등록연앙인구」, KOSIS.

[그림 Ⅱ-2] 연령3계층별 청년인구 증감률(2001~2021)

○ 특히 청년인구 이동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면, 연령3계층별 청년인구 규모의 비율은 30~34세, 25~29세, 19~24세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청년은 일반적으로 20대 정도에 타 지역에서 인적자본을 쌓은 후, 30대에 숙련된 인적자원으로 귀향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생애주기에 따라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청년인구의 이동 패턴은 지속적으로 약화되었으며, 2019년을 기점으로 한번 이동한 청년인구가 돌아오지 않는 패턴으로 전환됨

- 경남 지역이 진학을 이유로 경남을 떠난 19~24세 청년이 사회 초년생으로 취업하여 경력을 쌓은 후, 더 나은 직장을 탐색하는 숙련된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게 되었을 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표 Ⅱ-2〉 청년 연령3계층별 인구변화 추이(2001~2021)

(단위: 명, %)

구분	청년 총인구				청년 여성인구				청년 남성인구			
		19~24세	25~29세	30~34세		19~24세	25~29세	30~34세		19~24세	25~29세	30~34세
2001(A)	846,484	301,066	257,080	288,339	410,954	143,723	124,778	142,453	435,530	157,343	132,302	145,886
2002	837,038	300,912	245,763	290,364	406,495	143,229	119,926	143,341	430,543	157,683	125,838	147,023
2003	820,347	296,628	235,069	288,651	397,453	140,561	114,887	142,005	422,895	156,067	120,182	146,647
2004	796,944	287,297	226,449	283,198	385,053	135,668	110,213	139,172	411,891	151,629	116,236	144,027
2005	773,623	273,644	225,198	274,781	372,314	128,361	108,973	134,981	401,309	145,283	116,226	139,800
2006	752,159	259,473	229,075	263,612	360,792	121,067	110,217	129,509	391,367	138,406	118,858	134,103
2007	733,215	246,533	233,655	253,028	350,617	114,312	111,875	124,431	382,598	132,221	121,780	128,598
2008	718,497	237,532	236,878	244,087	341,399	109,195	112,572	119,632	377,098	128,337	124,306	124,455
2009	707,488	233,917	234,783	238,789	333,912	106,747	111,010	116,155	373,577	127,170	123,773	122,634
2010	699,094	234,527	224,492	240,076	328,546	106,464	105,857	116,225	370,548	128,063	118,635	123,851
2011	694,081	238,890	210,956	244,235	325,292	108,254	99,231	117,807	368,790	130,637	111,725	126,428
2012	689,532	244,846	196,721	247,965	321,978	110,416	92,235	119,327	367,554	134,430	104,486	128,638
2013	684,743	250,712	184,998	249,033	318,356	112,339	86,298	119,719	366,387	138,373	98,700	129,314
2014	679,303	256,540	179,005	243,759	314,399	114,441	82,811	117,148	364,904	142,099	96,194	126,611
2015	669,747	261,513	176,488	231,747	308,489	116,611	80,811	111,068	361,258	144,902	95,677	120,679
2016	656,818	263,087	176,735	216,996	301,782	117,744	80,429	103,610	355,036	145,343	96,307	113,387
2017	640,609	259,874	179,459	201,276	294,113	116,687	81,541	95,886	346,496	143,188	97,919	105,390
2018	624,068	254,249	182,027	187,792	286,108	114,432	82,376	89,301	337,960	139,817	99,651	98,492
2019	610,250	247,472	183,719	179,060	278,726	111,336	82,637	84,753	331,525	136,136	101,082	94,308
2020	594,226	237,162	183,930	173,134	269,641	106,191	82,096	81,355	324,585	130,972	101,834	91,780
2021(B)	573,648	222,543	181,410	169,696	258,936	99,163	80,372	79,401	314,712	123,380	101,038	90,295
증감률	-32.2	**-26.1**	**-29.4**	**-41.1**	-37.0	**-31.0**	**-35.6**	**-44.3**	-27.7	**-21.6**	**-23.6**	**-38.1**

주: 증감률=(B-A)/A×100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주민등록연앙인구」, KOSIS.

□ 연령 코호트별(cohort) 인구 규모 변화 추이

○ 경남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년인구 이동 패턴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얻기 위해 청년인구 유출입 지표로서 출생 코호트별 인구 규모를 산출함(김준영, 2019)

- 1982년~1986년에 태어나서 2001년에 15~19세가 된 인구를 준거집단으로 둔 경우를 예로 설명하면, 〈표 Ⅱ-3〉은 이 코호트의 규모가 5년 후(2006년), 10년 후(2011년), 15년 후(2016년) 시점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줌
- 그러나 이 방법은 인구의 시·도간 전출입 즉, 사회적 이동을 해당 출생 코호트의 규모 변화에 절대적 영향요인이라 전제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표 Ⅱ-3〉 연령 코호트별 규모 변화 추이(2001~2021)

(단위: %)

구분	청년인구				청년여성				청년남성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2001	100.0				100.0				100.0			
2006	100.0	92.6			100.0	88.4			100.0	96.2		
2011	100.0	93.9	86.9		100.0	90.9	84.7		100.0	96.3	91.0	
2016	100.0	92.6	87.0	91.1	100.0	89.2	81.6	89.5	100.0	95.4	86.0	92.6
2021	100.0	86.0	71.9	79.1	100.0	78.6	66.4	80.0	100.0	91.9	74.4	78.4

출처: 통계청.「주민등록인구현황-주민등록연앙인구」, KOSIS.

○ 〈표 Ⅱ-3〉에 따르면, 경남 청년인구 유출은 2006년에 15~19세였던 1987년~1991년생 코호트부터 본격적으로 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2001년에 15~19세였던 1982년~1986년생 코호트는 2001년 대비 2006년(20~24세)에 92.6%, 2011년(25~29세)에 86.9%, 2016년(30~34세)에 91.1%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함
- 1982년~1986년생 코호트의 규모는 일반적인 청년인구의 이동 패턴인 감소(7.4%p)-감소(13.1%p)-약간 회복(8.9%p)을 경험해 2001년 대비 90% 이상의 인구 규모를 유지함
- 그러나 2006년에 15~19세였던 1987년~1991년생 코호트는 2006년 대비 2011년(20~24세)에 93.9%, 2016년(25~29세)에 87.0%, 2021년(30~34세)에 79.1%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함. 1987년~1991년생 코호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청년인구의 이동 패턴이 감소세로 변화했

고(6.1%p, 13.0%p, 20.9%p),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임

○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01년에 15~19세였던 1982년~1986년생 코호트는 여성이 남성보다 인구의 유출 규모가 일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경우 2001년 대비 2006년, 2011년, 2016년 꾸준히 90% 이상의 인구 규모를 유지했으나, 여성의 경우는 80% 이상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수준을 보임

○ 2006년 15~19세였던 1987년~1991년생 코호트는 2006년 대비 2011년(20~24세), 2016년(25~29세)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인구유출 규모가 크게 나타났으나, 2021년(30~34세)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인구유출 규모가 크게 나타난바, 시점 간 청년남성 인구이동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음

○ 2011년 15~19세였던 1992년~1996년생 코호트와 2016년 15~19세였던 1997년~2001년생 코호트의 인구유출 규모와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특히, 청년여성 인구의 유출은 이전 출생 코호트 및 청년남성 인구와 비교했을 때 매우 심각한 수준임

- 2011년 15~19세였던 1992년~1996년생 코호트의 경우 여성은 2011년 대비 2016년(20~24세)에 89.2%, 2021년(25~29세)에 66.4%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했고, 2016년 15~19세였던 1997년~2001년생 코호트의 경우 여성은 2016년 대비 2021년(20~24세)에 78.6% 수준의 인구 규모를 유지함

- 경남 청년인구 유출의 패턴이 2001년에 15~19세였던 1982년~1986년생 코호트부터 감소세로 전환된바, 이들 코호트의 인구 규모 감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2) 경남 시·군 청년인구 현황

□ 시·군별 청년인구 변화 추이

○ 2021년 기준,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만19~34세 청년 인구수 상위 5개 지역은 창원시(197,809명), 김해시(103,696명), 진주시(67,478명), 양산시(64,348명), 거제시(39,211명)임

- 반면, 하위 5개 지역은 의령군(2,875명), 산청군(3,503명), 합천군(4,223명), 함양군(4,371명), 남해군(4,601명)으로 나타나, 시지역보다 군지역의 청년 인구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인구 변화 추이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20년간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 변화를 살펴봄. 경남의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은 2001년 27.3%에서 2021년 17.3%로 10.0%p 감소함

○ 〈표 Ⅱ-4〉에 따르면, 2001년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창원시(28.7%)와 거제시(28.7%), 가장 낮은 지역은 남해군(21.0%)임. 2021년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진주시(19.5%), 가장 낮은 지역은 합천군(9.8%)임. 진주시의 경우 진주혁신도시로 인하여 청년인구층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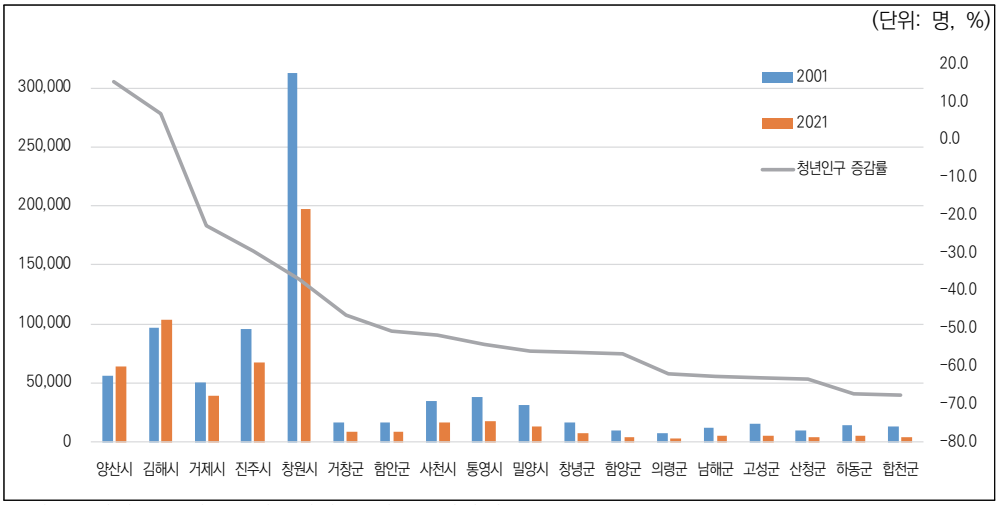
- 2021년 기준,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 상위 5개 지역은 진주시(19.5%), 김해시(19.3%), 창원시(19.2%), 양산시(18.3%), 거제시(16.2%)임. 반면, 하위 5개 지역은 합천군(9.8%), 산청군(10.2%), 하동군(10.9%), 남해군(10.9%), 의령군(10.9%)임

-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 상하위 5위에 포함된 지역을 2001년과 비교했을 때 상위 5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통영시와 사천시가 하위 5개 지역에서는 하동군과 산청군이 진입하였음

○ 지난 20년간,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청년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양산시(15.3%)와 김해시(6.9%)가 유일했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심각한 청년인구 유출을 경험함

- 특히, 군지역 청년인구 유출 평균은 62.4%에 달했는데, 〈그림 Ⅱ-3〉에 따르면, 합천군은 2001년 대비 2021년 청년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으로 67.6%가 감소함

- 시지역 청년인구 유출 평균은 32.6%이고, 밀양시가 2001년 대비 2021년 청년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으로 56.0%가 감소함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주민등록연앙인구」, KOSIS.

[그림 Ⅱ-3] 시·군별 청년인구 변화 추이(2001년과 2021년 비교)

〈표 Ⅱ-4〉 시·군별 청년인구 변화 추이(2001년과 2021년 비교)

(단위: 명, %)

구분	2001						2021						청년인구 증감률 (B-A)/A×100
	총인구	청년 총인구(A)	여성	남성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대비 여성 비율	총인구	청년 총인구(B)	여성	남성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	청년인구 대비 여성 비율	
창원시	1,089,036	313,023	156,046	156,977	28.7	49.9	1,029,443	197,809	88,779	109,030	19.2	44.9	-36.8
진주시	340,864	95,903	46,891	49,012	28.1	48.9	346,381	67,478	30,771	36,707	19.5	45.6	-29.6
통영시	136,206	37,405	17,182	20,224	27.5	45.9	126,112	17,141	7,821	9,320	13.6	45.6	-54.2
사천시	119,316	34,112	15,847	18,265	28.6	46.5	109,887	16,448	6,842	9,606	15.0	41.6	-51.8
김해시	348,693	97,047	50,001	47,046	27.8	51.5	537,685	103,696	47,879	55,817	19.3	46.2	6.9
밀양시	123,787	30,718	14,127	16,591	24.8	46.0	103,475	13,511	5,863	7,648	13.1	43.4	-56.0
거제시	176,981	50,792	24,031	26,761	28.7	47.3	242,385	39,211	17,678	21,533	16.2	45.1	-22.8
양산시	197,123	55,821	28,976	26,845	28.3	51.9	352,203	64,348	30,333	34,015	18.3	47.1	15.3
의령군	33,992	7,540	3,249	4,291	22.2	43.1	26,456	2,875	1,256	1,619	10.9	43.7	-61.9
함안군	65,107	16,428	7,356	9,072	25.2	44.8	63,026	8,089	3,481	4,608	12.8	43.0	-50.8
창녕군	72,033	16,681	7,385	9,296	23.2	44.3	60,343	7,292	3,114	4,178	12.1	42.7	-56.3
고성군	62,760	15,266	6,662	8,604	24.3	43.6	50,645	5,638	2,365	3,274	11.1	41.9	-63.1
남해군	58,839	12,351	5,399	6,952	21.0	43.7	42,401	4,601	1,874	2,728	10.9	40.7	-62.7
하동군	59,927	14,663	6,501	8,162	24.5	44.3	43,883	4,799	1,970	2,829	10.9	41.0	-67.3
산청군	40,430	9,535	4,053	5,482	23.6	42.5	34,378	3,503	1,530	1,973	10.2	43.7	-63.3
함양군	45,780	10,103	4,413	5,690	22.1	43.7	38,444	4,371	1,931	2,441	11.4	44.2	-56.7
거창군	69,159	16,076	7,308	8,768	23.2	45.5	61,002	8,619	3,651	4,969	14.1	42.4	-46.4
합천군	60,427	13,025	5,530	7,495	21.6	42.5	43,105	4,223	1,802	2,421	9.8	42.7	-67.6

주: 2001년은 통합창원시 출범 이전으로 창원시 인구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인구의 합산으로 산출함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주민등록연앙인구」, KOSIS.

□ 시·군별 청년 연령3계층별 인구변화 추이(2001년과 2021년 비교)

○ 지난 20년간, 경남의 대부분 시·군의 청년인구 감소일로가 진행되면서 양산시와 김해시는 청년의 총인구는 증가함. 〈표 Ⅱ-5〉에 따르면, 양산시와 김해시 청년인구 증가의 동력은 19~24세 청년 집단임

- 양산시와 김해시는 19~24세 청년이 각각 78.7%, 52.3%, 25~29세 청년이 각각 15.3%, 11.2% 증가했으나, 30~34세 청년은 각각 10.2%, 27.0% 감소함

○ 성별을 기준으로 양산시와 김해시의 청년인구 동태를 살펴보면, 청년여성 인구의 증가는 청년남성 인구의 증가 수준에 미치지 못함

- 양산시의 경우 지난 20년간 청년여성 인구는 4.7% 증가했으나, 청년남성 인구는 이보다 약 6배 많은 26.7%가 증가함. 연령3계층별 인구증감을 보면 여성의 경우 19~24세 청년 35.7%, 25~29세 청년 6.1%가 증가했으나, 30~34세 청년 16.2%가 감소함. 남성의 경우 19~24세 청년 58.1%, 25~29세 청년 38.2%가 증가했고, 30~34세 청년은 3.6% 감소함
- 김해시는 청년여성 인구가 지난 20년간 4.2% 감소했으나, 청년남성 인구는 이보다 약 5배 많은 18.6% 증가함. 연령3계층별 인구증감을 보면 여성은 19~24세 청년 41.0%가 증가했으나, 25~29세 청년 4.9%, 30~34세 청년 32.8%가 감소함. 반면 남성은 19~24세 청년 63.2%, 25~29세 청년 29.8%가 증가했으나, 30~34세 청년 20.9%가 감소함

○ 2021년 기준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진주시와 가장 낮았던 합천군의 청년인구 변화를 대표적으로 살펴본 결과, 진주시의 경우 청년여성이 청년남성보다 인구감소 규모가 더 컸으나, 합천군은 남녀 모두 엄청난 규모의 청년인구가 지역을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진주시 청년여성 인구는 34.4%, 청년남성 인구는 25.1% 감소함. 여성은 30~34세 청년 40.1%, 19~24세 청년 32.6%, 25~29세 청년 30.6%가 감소했고, 남성은 30~34세 청년 31.4%, 19~24세 청년 26.0%, 25~29세 청년 17.7%가 감소함
- 합천군 청년여성 인구는 67.4%, 청년남성 인구는 67.7% 감소함. 여성은 30~34세 청년 70.0%, 19~24세 청년 67.9%, 25~29세 청년 64.0%가 감소했고, 남성은 30~34세 청년 70.0%, 19~24세 청년 67.8%, 25~29세 청년 65.5%가 감소함

〈표 Ⅱ-5〉 시·군별 청년 연령3계층별 인구변화 추이(2001년과 2021년 비교)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청년 총인구				여성	청년 여성인구				남성	청년 남성인구			
			19~24세	25~29세	30~34세	총인구		19~24세	25~29세	30~34세	총인구		19~24세	25~29세	30~34세
창원시															
2001	1,089,036	313,023	106,820	95,737	110,466	539,152	156,046	52,140	48,204	55,703	549,885	156,977	54,681	47,534	54,763
2021	1,029,443	197,809	73,246	64,923	59,640	508,012	88,779	32,669	28,602	27,508	521,431	109,030	40,577	36,321	32,132
증감률	-5.5	-36.8	-31.4	-32.2	-46.0	-5.8	-43.1	-37.3	-40.7	-50.6	-5.2	-30.5	-25.8	-23.6	-41.3
진주시															
2001	340,864	95,903	37,630	28,818	29,455	171,957	46,891	18,062	14,028	14,801	168,908	49,012	19,568	14,790	14,654
2021	346,381	67,478	26,650	21,913	18,916	175,135	30,771	12,173	9,738	8,861	171,246	36,707	14,477	12,175	10,055
증감률	1.6	-29.6	-29.2	-24.0	-35.8	1.8	-34.4	-32.6	-30.6	-40.1	1.4	-25.1	-26.0	-17.7	-31.4
통영시															
2001	136,206	37,405	15,749	10,715	10,942	67,536	17,182	7,198	4,820	5,164	68,670	20,224	8,551	5,895	5,779
2021	126,112	17,141	7,154	4,887	5,100	62,814	7,821	3,141	2,230	2,450	63,298	9,320	4,013	2,657	2,650
증감률	-7.4	-54.2	-54.6	-54.4	-53.4	-7.0	-54.5	-56.4	-53.7	-52.6	-7.8	-53.9	-53.1	-54.9	-54.1
사천시															
2001	119,316	34,112	12,627	10,886	10,600	59,628	15,847	5,968	4,998	4,881	59,688	18,265	6,659	5,888	5,719
2021	109,887	16,448	6,362	5,163	4,923	54,470	6,842	2,699	1,998	2,146	55,418	9,606	3,664	3,165	2,777
증감률	-7.9	-51.8	-49.6	-52.6	-53.6	-8.7	-56.8	-54.8	-60.0	-56.0	-7.2	-47.4	-45.0	-46.2	-51.4
김해시															
2001	348,693	97,047	27,325	29,282	40,441	173,212	50,001	13,418	15,690	20,894	175,481	47,046	13,908	13,592	19,547
2021	537,685	103,696	41,621	32,564	29,511	265,863	47,879	18,919	14,916	14,045	271,822	55,817	22,702	17,649	15,466
증감률	54.2	6.9	52.3	11.2	-27.0	53.5	-4.2	41.0	-4.9	-32.8	54.9	18.6	63.2	29.8	-20.9

출처: 통계청.「주민등록인구현황-주민등록연앙인구」, KOSIS.

〈표 Ⅱ-5〉 시·군별 청년 연령3계층별 인구변화 추이(2001년과 2021년 비교)(계속)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청년 총인구				여성 총인구	청년 여성인구				남성 총인구	청년 남성인구			
			19~24세	25~29세	30~34세			19~24세	25~29세	30~34세			19~24세	25~29세	30~34세
밀양시															
2001	123,787	30,718	13,146	9,006	8,567	62,664	14,127	6,102	3,934	4,092	61,123	16,591	7,044	5,072	4,475
2021	103,475	13,511	5,501	4,261	3,750	52,680	5,863	2,392	1,738	1,734	50,795	7,648	3,109	2,524	2,016
증감률	-16.4	-56.0	-58.2	-52.7	-56.2	-15.9	-58.5	-60.8	-55.8	-57.6	-16.9	-53.9	-55.9	-50.2	-54.9
거제시															
2001	176,981	50,792	15,549	16,817	18,426	86,300	24,031	7,310	7,984	8,737	90,681	26,761	8,240	8,833	9,689
2021	242,385	39,211	15,574	10,683	12,954	115,428	17,678	6,700	4,744	6,234	126,957	21,533	8,874	5,939	6,720
증감률	37.0	-22.8	0.2	-36.5	-29.7	33.8	-26.4	-8.3	-40.6	-28.6	40.0	-19.5	7.7	-32.8	-30.6
양산시															
2001	197,123	55,821	15,530	17,102	23,190	97,776	28,976	7,731	9,149	12,096	99,348	26,845	7,799	7,953	11,094
2021	352,203	64,348	22,823	20,691	20,834	175,770	30,333	10,491	9,704	10,138	176,433	34,015	12,332	10,988	10,696
증감률	78.7	15.3	47.0	21.0	-10.2	79.8	4.7	35.7	6.1	-16.2	77.6	26.7	58.1	38.2	-3.6
의령군															
2001	33,992	7,540	3,126	2,355	2,060	17,733	3,249	1,494	936	820	16,259	4,291	1,633	1,419	1,240
2021	26,456	2,875	1,167	946	763	13,459	1,256	515	393	349	12,997	1,619	652	554	414
증감률	-22.2	-61.9	-62.7	-59.8	-63.0	-24.1	-61.3	-65.5	-58.1	-57.5	-20.1	-62.3	-60.1	-61.0	-66.6
함안군															
2001	65,107	16,428	6,191	5,081	5,156	32,582	7,356	2,898	2,159	2,300	32,526	9,072	3,294	2,922	2,857
2021	63,026	8,089	3,408	2,449	2,232	30,993	3,481	1,458	978	1,045	32,034	4,608	1,950	1,471	1,187
증감률	-3.2	-50.8	-45.0	-51.8	-56.7	-4.9	-52.7	-49.7	-54.7	-54.6	-1.5	-49.2	-40.8	-49.7	-58.4

출처: 통계청.「주민등록인구현황-주민등록연앙인구」, KOSIS.

〈표 Ⅱ-5〉 시·군별 청년 연령3계층별 인구변화 추이(2001년과 2021년 비교)(계속)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청년 총인구				여성	청년 여성인구				남성	청년 남성인구			
			19~24세	25~29세	30~34세	총인구		19~24세	25~29세	30~34세	총인구		19~24세	25~29세	30~34세
창녕군															
2001	72,033	16,681	7,076	4,920	4,686	36,606	7,385	3,231	2,038	2,117	35,427	9,296	3,845	2,882	2,570
2021	60,343	7,292	2,836	2,282	2,174	30,303	3,114	1,235	952	928	30,040	4,178	1,602	1,330	1,247
증감률	-16.2	-56.3	-59.9	-53.6	-53.6	-17.2	-57.8	-61.8	-53.3	-56.2	-15.2	-55.1	-58.3	-53.9	-51.5
고성군															
2001	62,760	15,266	6,657	4,538	4,071	31,707	6,662	3,040	1,853	1,770	31,054	8,604	3,617	2,685	2,302
2021	50,645	5,638	2,469	1,716	1,454	25,253	2,365	1,029	703	634	25,392	3,274	1,440	1,013	821
증감률	-19.3	-63.1	-62.9	-62.2	-64.3	-20.4	-64.5	-66.2	-62.1	-64.2	-18.2	-62.0	-60.2	-62.3	-64.3
남해군															
2001	58,839	12,351	5,760	3,435	3,157	30,561	5,399	2,584	1,415	1,401	28,278	6,952	3,176	2,020	1,757
2021	42,401	4,601	2,211	1,336	1,054	21,925	1,874	861	521	493	20,476	2,728	1,351	816	562
증감률	-27.9	-62.7	-61.6	-61.1	-66.6	-28.3	-65.3	-66.7	-63.2	-64.8	-27.6	-60.8	-57.5	-59.6	-68.0
하동군															
2001	59,927	14,663	6,237	4,425	4,001	30,551	6,501	2,873	1,867	1,762	29,376	8,162	3,365	2,558	2,240
2021	43,883	4,799	2,134	1,440	1,225	21,950	1,970	869	587	514	21,933	2,829	1,265	853	711
증감률	-26.8	-67.3	-65.8	-67.5	-69.4	-28.2	-69.7	-69.7	-68.6	-70.8	-25.3	-65.3	-62.4	-66.7	-68.3
산청군															
2001	40,430	9,535	4,194	2,898	2,444	20,615	4,053	1,890	1,124	1,040	19,815	5,482	2,304	1,774	1,404
2021	34,378	3,503	1,529	1,059	915	17,455	1,530	676	441	414	16,923	1,973	853	619	502
증감률	-15.0	-63.3	-63.5	-63.5	-62.6	-15.3	-62.3	-64.2	-60.8	-60.2	-14.6	-64.0	-63.0	-65.1	-64.3

출처: 통계청.「주민등록인구현황-주민등록연앙인구」, KOSIS.

〈표 Ⅱ-5〉 시·군별 청년 연령3계층별 인구변화 추이(2001년과 2021년 비교)(계속)

(단위: 명, %)

구분	총인구	청년 총인구				여성	청년 여성인구				남성	청년 남성인구			
			19~24세	25~29세	30~34세	총인구		19~24세	25~29세	30~34세	총인구		19~24세	25~29세	30~34세
함양군															
2001	45,780	10,103	4,550	2,820	2,733	23,655	4,413	2,042	1,135	1,237	22,126	5,690	2,509	1,685	1,497
2021	38,444	4,371	1,955	1,339	1,078	19,858	1,931	857	572	502	18,586	2,441	1,098	767	577
증감률	-16.0	-56.7	-57.0	-52.5	-60.6	-16.0	-56.3	-58.0	-49.6	-59.4	-16.0	-57.1	-56.2	-54.5	-61.5
거창군															
2001	69,159	16,076	7,101	4,513	4,463	35,315	7,308	3,182	1,980	2,147	33,844	8,768	3,919	2,533	2,317
2021	61,002	8,619	4,042	2,447	2,130	31,119	3,651	1,659	1,031	961	29,883	4,969	2,383	1,417	1,169
증감률	-11.8	-46.4	-43.1	-45.8	-52.3	-11.9	-50.0	-47.9	-48.0	-55.2	-11.7	-43.3	-39.2	-44.1	-49.5
합천군															
2001	60,427	13,025	5,802	3,739	3,484	30,965	5,530	2,565	1,468	1,497	29,462	7,495	3,237	2,271	1,987
2021	43,105	4,223	1,865	1,313	1,045	22,258	1,802	824	529	450	20,847	2,421	1,042	784	596
증감률	-28.7	-67.6	-67.9	-64.9	-70.0	-28.1	-67.4	-67.9	-64.0	-70.0	-29.2	-67.7	-67.8	-65.5	-70.0

출처: 통계청.「주민등록인구현황-주민등록연앙인구」, KOSIS.

2.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1)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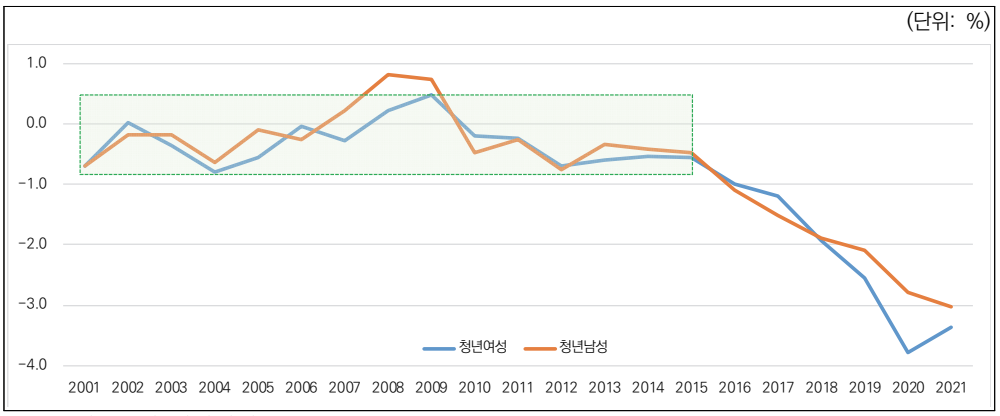
□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 청년여성 인구의 순이동 패턴은 2016년을 기점으로 변화함.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청년여성 인구의 평균 순이동률은 -0.3%로 -0.8%~0.5% 범위 안에서 오르내렸으나, 2016년부터 [그림 Ⅱ-4]와 같이 박스권을 이탈하여 급격한 감소세가 진행됨

○ 〈표 Ⅱ-6〉에 따르면, 청년여성 인구의 순이동률이 -1.0%가 되는 데 16년이 걸렸으나, 순이동률은 3년만인 2019년에 -2.5%, 다시 1년만인 2020년에 -3.8%로 하락한바, 청년여성의 인구유출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남녀 청년인구의 순이동 패턴은 유사하나 2016년 이후 청년여성은 청년남성보다 급격한 기울기를 그리며 유출되고 있음

○ 2021년 청년여성 인구만 약간 유입된 것은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청년여성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타지역에서 귀향한 경우로 인하여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주: 20세~34세 청년여성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시·도/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KOSIS.

[그림 Ⅱ-4] 청년 여성인구 시·도간 순이동률 추이(2001~2021)

〈표 Ⅱ-6〉 청년 여성인구 시·도간 인구이동 추이(2001~2021)

(단위: 명, %)

구분	청년여성					청년남성				
	시·도간 전입(A)	시·도간 전출(B)	순이동(A-B)	인구(C)	순이동률 ((A-B)/C×100)	시·도간 전입(A)	시·도간 전출(B)	순이동(A-B)	인구(C)	순이동률 ((A-B)/C×100)
2001	27,261	29,929	-2,668	384,889	-0.7	28,320	31,146	-2,826	407,979	-0.7
2002	31,253	31,152	101	381,909	0.0	32,313	33,038	-725	404,323	-0.2
2003	33,568	34,928	-1,360	375,596	-0.4	33,786	34,480	-694	399,251	-0.2
2004	28,973	31,856	-2,883	364,955	-0.8	31,023	33,490	-2,467	389,937	-0.6
2005	29,807	31,784	-1,977	353,126	-0.6	33,233	33,600	-367	379,758	-0.1
2006	30,380	30,537	-157	342,288	-0.0	33,121	34,053	-932	370,267	-0.3
2007	29,570	30,493	-923	332,270	-0.3	34,167	33,368	799	361,515	0.2
2008	27,694	26,974	720	322,887	0.2	34,013	31,119	2,894	355,561	0.8
2009	27,057	25,534	1,523	315,410	0.5	32,954	30,365	2,589	351,418	0.7
2010	25,325	25,906	-581	309,079	-0.2	30,686	32,306	-1,620	347,103	-0.5
2011	24,838	25,575	-737	304,380	-0.2	30,841	31,743	-902	344,039	-0.3
2012	22,925	25,048	-2,123	301,017	-0.7	27,906	30,522	-2,616	342,300	-0.8
2013	22,740	24,490	-1,750	297,499	-0.6	28,270	29,411	-1,141	341,034	-0.3
2014	23,307	24,896	-1,589	293,422	-0.5	29,640	31,083	-1,443	339,595	-0.4
2015	23,159	24,744	-1,585	287,517	-0.6	29,687	31,296	-1,609	336,254	-0.5
2016	21,664	24,458	-2,794	280,933	-1.0	27,491	31,122	-3,631	330,958	-1.1
2017	21,347	24,601	-3,254	273,848	-1.2	26,455	31,331	-4,876	323,583	-1.5
2018	19,808	24,965	-5,157	266,532	-1.9	24,367	30,327	-5,960	315,867	-1.9
2019	19,750	26,356	-6,606	259,417	-2.5	24,874	31,324	-6,450	309,467	-2.1
2020	20,272	29,771	-9,499	251,562	-3.8	25,052	33,487	-8,435	303,616	-2.8
2021	20,484	28,647	-8,163	243,060	-3.4	25,667	34,640	-8,973	296,372	-3.0

주: 20세~34세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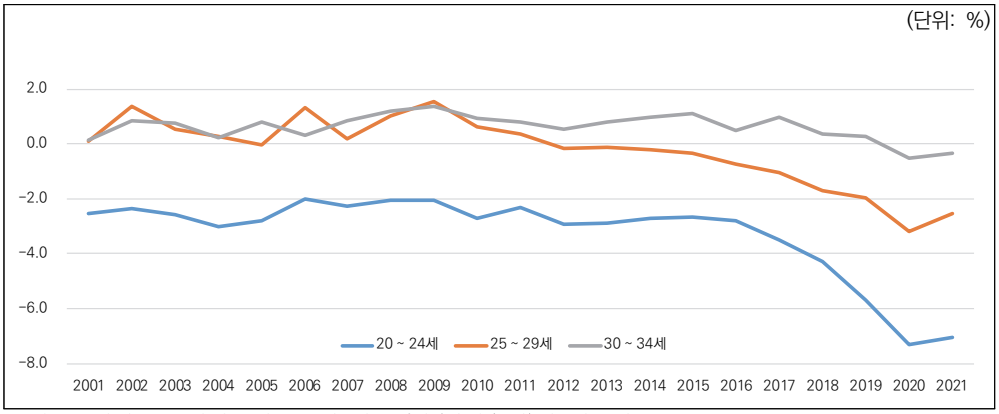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시·도/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KOSIS.

□ 청년여성 연령3계층별 인구이동 현황

○ 청년여성 인구의 순이동 패턴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얻기 위해 청년여성 연령3계층별 순이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4세의 청년여성 인구 순유출 수준은 25~29세와 30~34세 청년여성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24세 청년여성의 인구 순유출은 2001년부터 지속된 현상으로 2016년까지 16년간 평균 순유출률 -2.5% 수준을 유지하다가 급격하게 감소함
- 25~29세 청년여성은 인구 유출입을 반복했으나 2011년까지는 인구 순유입 상태를 유지하다가 2012년을 기점으로 인구 순유출로 전환됨. 25~29세 청년여성의 인구감소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2009년~2010년, 2017년~2020년 두 차례 급격한 감소를 경험함
- 30~34세 청년여성 역시 인구 유출입을 반복했으나 2019년까지는 인구 순유입 상태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인구 순유출 상태로 전환됨

○ 2021년 작은 규모이지만 청년여성 인구의 순유입이 있었는데, 25~29세 청년여성층에서 가장 큰 유입이 발생함. 이는 청년여성 중에서도 특히 25~29세는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초기경력자로서 안정성이 낮은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코로나19발생으로 일자리에서 겪는 어려움에 의해 타지역에서 귀향하게 되어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시·도/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KOSIS.

[그림 Ⅱ-5] 청년여성 연령3계층별 순이동률 추이(2001-2021)

〈표 Ⅱ-7〉 청년여성 연령3계층별 시·도간 인구이동 추이(2001~2021)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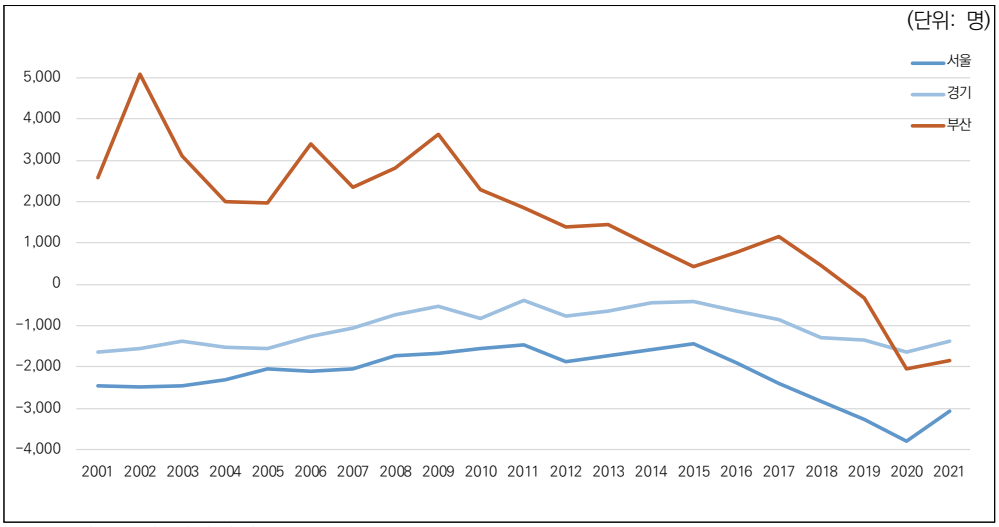
구분	20~24세					25~29세					30~34세				
	시·도간 전입 (A)	시·도간 전출 (B)	순이동 (A-B)	청년여성 인구(C)	순이동률 ((A-B)/C×100)	시·도간 전입 (A)	시·도간 전출 (B)	순이동 (A-B)	청년여성 인구(C)	순이동률 ((A-B)/C×100)	시·도간 전입 (A)	시·도간 전출 (B)	순이동 (A-B)	청년여성 인구(C)	순이동률 ((A-B)/C×100)
2001	7,164	10,151	-2,987	117,658	-2.5	11,329	11,196	133	124,778	0.1	8,768	8,582	186	142,453	0.1
2002	8,652	11,438	-2,786	118,642	-2.3	12,733	11,082	1,651	119,926	1.4	9,868	8,632	1,236	143,341	0.9
2003	9,399	12,431	-3,032	118,704	-2.6	12,854	12,241	613	114,887	0.5	11,315	10,256	1,059	142,005	0.7
2004	8,567	12,053	-3,486	115,570	-3.0	11,125	10,823	302	110,213	0.3	9,281	8,980	301	139,172	0.2
2005	8,484	11,527	-3,043	109,173	-2.8	11,447	11,489	-42	108,973	0.0	9,876	8,768	1,108	134,981	0.8
2006	8,491	10,527	-2,036	102,563	-2.0	12,802	11,336	1,466	110,217	1.3	9,087	8,674	413	129,509	0.3
2007	7,688	9,878	-2,190	95,964	-2.3	12,479	12,280	199	111,875	0.2	9,403	8,335	1,068	124,431	0.9
2008	6,644	8,491	-1,847	90,683	-2.0	11,923	10,779	1,144	112,572	1.0	9,127	7,704	1,423	119,632	1.2
2009	6,101	7,895	-1,794	88,245	-2.0	11,851	10,114	1,737	111,010	1.6	9,105	7,525	1,580	116,155	1.4
2010	5,747	8,101	-2,354	86,997	-2.7	10,472	9,792	680	105,857	0.6	9,106	8,013	1,093	116,225	0.9
2011	5,683	7,689	-2,006	87,342	-2.3	9,873	9,533	340	99,231	0.3	9,282	8,353	929	117,807	0.8
2012	5,472	8,094	-2,622	89,455	-2.9	8,654	8,818	-164	92,235	-0.2	8,799	8,136	663	119,327	0.6
2013	5,335	7,977	-2,642	91,482	-2.9	8,176	8,262	-86	86,298	-0.1	9,229	8,251	978	119,719	0.8
2014	5,855	8,397	-2,542	93,464	-2.7	8,096	8,281	-185	82,811	-0.2	9,356	8,218	1,138	117,148	1.0
2015	6,254	8,796	-2,542	95,638	-2.7	7,977	8,259	-282	80,811	-0.3	8,928	7,689	1,239	111,068	1.1
2016	6,401	9,118	-2,717	96,895	-2.8	7,627	8,210	-583	80,429	-0.7	7,636	7,130	506	103,610	0.5
2017	6,136	9,494	-3,358	96,421	-3.5	7,623	8,472	-849	81,541	-1.0	7,588	6,635	953	95,886	1.0
2018	5,971	10,049	-4,078	94,856	-4.3	7,514	8,902	-1,388	82,376	-1.7	6,323	6,014	309	89,301	0.3
2019	6,279	11,516	-5,237	92,028	-5.7	7,616	9,223	-1,607	82,637	-1.9	5,855	5,617	238	84,753	0.3
2020	6,968	13,415	-6,447	88,112	-7.3	7,597	10,226	-2,629	82,096	-3.2	5,707	6,130	-423	81,355	-0.5
2021	7,223	13,094	-5,871	83,288	-7.0	7,667	9,705	-2,038	80,372	-2.5	5,594	5,848	-254	79,401	-0.3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시·도/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KOSIS.

□ 청년여성 인구의 주요 유출지

○ 청년여성 인구가 경남을 떠나 향하는 주요 목적지는 서울, 경기의 수도권 지역과 부산 지역 등으로 나타남. 서울과 경기는 전통적인 유출 목적지이나, 부산은 2019년을 기점으로 유출 목적지로 전환됨

- 이 외에도 경남 청년여성 인구는 경남 인근 지역인 영남권 지역인 대구, 경북, 울산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표 Ⅱ-8〉 참조)
- 2021년 기준, 청년여성 인구의 순이동 추이를 보면 경남-서울이 -3,057명, 경남-경기 -1,380명, 경남-부산 -1,852명, 경남-대구 -370명, 경남-경북 -29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주: 20세~34세 청년여성
출처: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시·도/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KOSIS.

[그림 Ⅱ-6] 지역별 경남 청년여성 순이동 추이(2001~2021)

〈표 Ⅱ-8〉 지역별 경남 청년여성 순이동 추이(2001~2021)

(단위: 명)

구분	수도권		영남권				그 외 지역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대구	경북	
2001	-2,459	-1,629	2,593	-697	-204	-17	-255
2002	-2,480	-1,554	5,069	-234	-301	47	-446
2003	-2,441	-1,383	3,099	-246	-26	176	-539
2004	-2,306	-1,519	1,991	-356	-154	-119	-420
2005	-2,052	-1,557	1,964	-17	114	-177	-252
2006	-2,119	-1,271	3,382	208	248	-359	-246
2007	-2,038	-1,049	2,336	-8	156	29	-349
2008	-1,735	-743	2,801	148	338	74	-163
2009	-1,674	-524	3,625	152	59	54	-169
2010	-1,560	-814	2,287	15	-57	-8	-444
2011	-1,469	-385	1,849	-142	-69	-202	-319
2012	-1,879	-775	1,393	-204	51	-157	-552
2013	-1,712	-652	1,451	-289	7	-57	-498
2014	-1,594	-447	913	-182	102	-116	-265
2015	-1,422	-417	413	6	-98	48	-115
2016	-1,901	-642	766	67	-171	-51	-862
2017	-2,405	-841	1,152	156	-316	-59	-941
2018	-2,822	-1,284	448	25	-347	-66	-1,111
2019	-3,282	-1,350	-328	-42	-338	-179	-1,087
2020	-3,779	-1,637	-2,035	-43	-683	-92	-1,230
2021	-3,057	-1,380	-1,852	6	-370	-292	-1,218

주: 순이동=경남 전입인구-경남 전출인구. 순이동 값이 음수이면 전출인구가 더 많음을 양수이면 전입인구가 더 많음을 의미함

출처: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시·도/성/연령(5세)별 이동자수」, KOSIS.

2)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이유

□ 청년여성 순이동 이유

○ 청년여성 인구의 순이동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청년여성은 주로 직업, 교육의 이유로 경남을 떠나고, 가족을 이유로 경남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청년여성 인구 2,832명은 직업을 이유로, 1,309명은 교육을 이유로 경남을 떠났고, 2,930명은 가족을 이유로 경남으로 돌아옴
- 2021년은 인구 순이동의 규모가 커졌을 뿐, 청년여성 인구의 순이동 이유는 이와 같았음. 즉 청년여성 인구 8,449명은 직업을 이유로, 3,916명은 교육을 이유로 경남을 떠났고, 3,166명은 가족을 이유로 경남으로 돌아옴

〈표 Ⅱ-9〉 청년여성 순이동 이유(2010 vs. 2020)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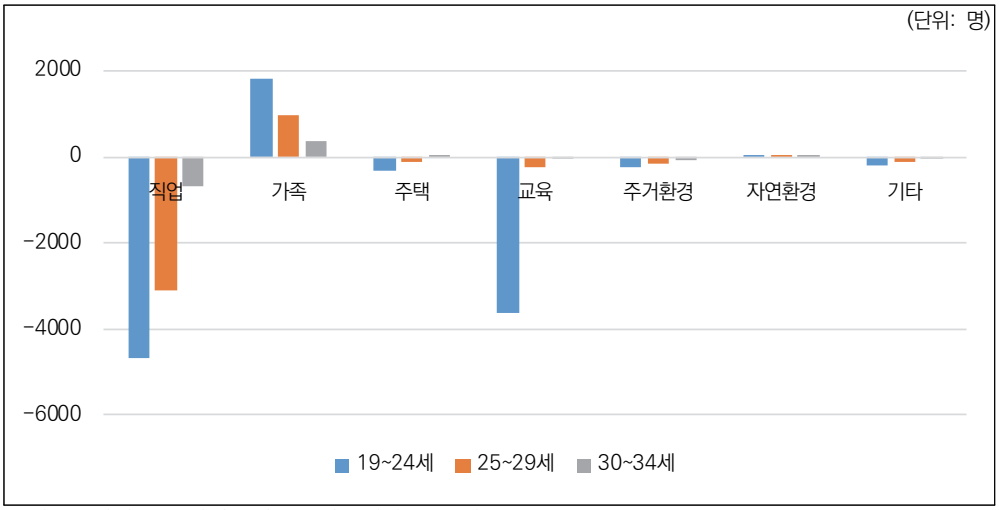
구분	2010			2020		
	전입(A)	전출(B)	순이동(A-B)	전입(A)	전출(B)	순이동(A-B)
직업	7,636	10,468	-2,832	13,063	21,512	-8,449
가족	21,850	18,920	2,930	20,009	16,843	3,166
주택	9,980	10,940	-960	9,694	10,124	-430
교육	1,304	2,613	-1,309	2,332	6,248	-3,916
주거환경	334	396	-62	1,861	2,332	-471
자연환경	253	248	5	330	243	87
기타	11,771	11,415	356	2,637	2,984	-347
합계	53,128	55,000	-1,872	49,926	60,286	-10,360

주: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주거환경- 교통, 문화·편의시설 등 / 자연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출처: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원자료 분석, MDIS.

□ 연령별 청년여성 순이동 이유

○ [그림 Ⅱ-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령별 청년여성 인구이동 이유는 생애주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냄. 3개 연령층 모두 직장이 가장 큰 순이동 이유였으나, 19~24세는 고등교육으로 진입하는 시기이므로 교육의 비중이 매우 컸음



출처: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원자료 분석, MDIS.

[그림 Ⅱ-7] 연령별 청년여성 순이동 이유(2020)

- 19~24세 청년여성 인구 4,673명이 직업을 이유로, 3,626명이 교육을 이

유로 경남을 떠났고, 1,822명이 가족을 이유로 돌아옴

- 25~29세 청년여성 인구 3,106명은 직업을 이유로, 247명은 교육을 이유로 경남을 떠났고, 970명은 가족을 이유로 돌아옴
- 30~34세 청년여성 인구 670명은 직업을 이유로, 43명은 교육을 이유로 경남을 떠났고, 374명은 가족을 이유로 돌아옴

○ 다만, 전반적으로 가족 때문에 경남으로 돌아오는 청년여성 인구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한편, 청년여성 인구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주택을 이유로 경남으로 유입되는 경향을 보임. 아울러 주거환경을 이유로 유출되는 인구가 줄고 자연환경을 이유로 유입되는 인구가 늘고 있음

〈표 Ⅱ-10〉 연령별 청년여성 순이동 이유(2020)

(단위: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입(A)	전출(B)	순이동 (A-B)	전입(A)	전출(B)	순이동 (A-B)	전입(A)	전출(B)	순이동 (A-B)
직업	4,291	8,964	-4,673	5,713	8,819	-3,106	3,059	3,729	-670
가족	5,713	3,891	1,822	7,977	7,007	970	6,319	5,945	374
주택	2,091	2,432	-341	3,602	3,709	-107	4,001	3,983	18
교육	1,775	5,401	-3,626	275	522	-247	282	325	-43
주거환경	554	793	-239	747	918	-171	560	621	-61
자연환경	90	79	11	134	93	41	106	71	35
기타	675	888	-213	1,056	1,164	-108	906	932	-26
합계	15,189	22,448	-7,259	19,504	22,232	-2,728	15,233	15,606	-373

주: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주거환경- 교통, 문화·편의시설 등 / 자연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출처: 통계청.「국내인구이동통계」원자료 분석, MDIS.

3. 소결

□ 경남 청년 인구 현황

○ 최근 20년간,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이 27.3%에서 17.3%로 10.0%p 하락하여 지속적으로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경남 인구증가의 동력은 청년층이라고 볼 수 없음

- 청년인구를 5세 단위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최근 20년간 청년 연령3계층별 인구감소 규모의 크기는 30~34세 집단(41.1%), 25~29세 집단(29.4%), 19~24세 집단(26.1%) 순으로 발생함

○ 특히 청년인구 이동 패턴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청년은 일반적으로 20대 정도에 타 지역에서 인적자본을 쌓은 후, 30대에 숙련된 인적자원으로 귀향하는 경향을 보이며, 경남은 이 패턴이 약화되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한번 이동한 청년인구가 돌아오지 않는 패턴으로 전환됨

○ 연령 코호트별(cohort) 인구 규모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청년인구 이동 패턴의 감소일로 변화는 2006년에 15~19세였던 1987년~1991년생 코호트부터 시작되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 청년여성 인구의 순이동 패턴은 2016년을 기점으로 변화함.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청년여성 인구의 평균 순이동률은 -0.3%로 -0.8%~-0.5% 범위 안에서 움직였으나, 2016년부터 박스권을 이탈하여 청년남성보다 더 급격한 감소세가 진행됨

- 2021년 청년여성 인구만 일부 유입된 현상을 보였으며, 이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청년여성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타지역에서 귀향하여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청년여성 인구의 순이동 패턴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얻기 위해 청년여성 연령3계층별 순이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4세 청년여성의 인구 순유출 수준이 25~29세와 30~34세 청년여성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여성 인구가 경남을 떠나 향하는 주요 목적지는 서울, 경기, 부산 등임. 서울과 경기는 전통적인 유출 목적지이나, 부산은 2019년을 기점으로 유출 목적지로 전환됨. 이 외에도 경남 청년여성 인구는 경남 인근 지역

인 영남권(대구, 경북, 울산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여성은 주로 직업, 교육의 이유로 경남을 떠나고, 가족을 이유로 경남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별 청년여성 인구이동 이유를 생애주기에 따라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를 나타냄. 3개 연령층 모두 직장이 가장 큰 순이동 이유였으나, 고등교육으로 진입하는 시기인 19~24세의 경우 교육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Ⅲ

청년·인구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GNWFF

Ⅲ. 청년·인구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 본 장에서는 중앙정부와 경남에서 시행 중인 청년정책, 인구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 인구이동과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 정책연구기관에서 추진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1. 청년 및 인구정책

1) 중앙정부 청년 및 인구정책

(1) 중앙정부 청년정책

□ 「청년기본법」 등 제정

○ 청년의 주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3월, 「청년실업해소 특별법」이 제정된 후, 2009년 10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법명을 변경하면서 청년의 고용에 관련된 법적,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음

- 하지만 청년과 관련된 문제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와 연계되어 있어, 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요구가 커지면서 중앙정부에서는 청년에 대해 다방면에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 시작함

○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추진해 오던 정책을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2020년 2월, 「청년기본법」을 제정하고, 2020년 8월 시행령을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동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 동법의 기본이념으로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두고 있음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수립 및 시행

○ 「청년기본법」 제2장 제8조에 의거하여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이 수립되어 진행 중임

- 본 계획의 비전은 '원하는 삶을 사는 청년,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에 두고, 청년이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삶의 공간, 안정적 토대를 다양한 청년에게 권리로 보장하는 것에 두고 있음
- 본 계획에서는 주요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 및 270개 세부과제가 마련되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다방면에 걸친 청년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표 Ⅲ-1〉과 같음

〈표 Ⅲ-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의 5대 정책방향 및 20개 중점과제

5대 정책방향		20개 중점과제
일자리	청년의 일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 강화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청년의 일터 안전망 강화 ▪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 문화 개선
주거	청년의 주거부담이 줄어듭니다	▪ 청년 주택 공급 확대 ▪ 청년의 전월세 비용 경감 ▪ 고시원·반지하 거주 취약청년 집중 지원 ▪ 청년 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교육	청년이 스스로의 삶을 그려갑니다	▪ 고른 교육기회 보장 ▪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복지·문화	청년의 생활이 나아집니다	▪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기원 ▪ 청년건강 증진 ▪ 청년 취약계층 지원 확대 ▪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참여·권리	청년의 삶을 청년이 직접 결정합니다	▪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주도성 확대 ▪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 청년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 기본계획의 270개의 세부과제를 부처별 정책 현황에 따라 살펴보면, 〈표 Ⅲ-2〉와 같음. 일자리 분야의 세부 과제는 94개, 주거 분야는 24개, 교육 분야는 83개, 복지·문화 분야는 37개, 참여·권리 분야는 32개인 것으

로 나타남

〈표 Ⅲ-2〉 정부부처별 청년정책 현황

소관부처	5대 정책 방향					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고용노동부	27	-	5	-	3	35
공정거래위원회	-	-	-	-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	17	-	-	19
교육부	2	2	30	1	3	38
국가보훈처	2	-	-	-	1	3
국무조정실	-	-	-	-	6	6
국무조정실·법제처	-	-	-	-	1	1
국민권익위원회	1	-	-	-	1	2
국민권익위원회·국무조정실	-	-	-	-	1	1
국방부	1	-	1	1	-	3
국토교통부	5	21	3	1	1	31
금융위원회	1	-	-	1	1	3
기획재정부	1	-	-	-	-	1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1	-	-	-	-	1
농림축산식품부	12	1	4	-	1	18
농촌진흥청	2	-	2	-	-	4
문화재청	-	-	-	-	1	1
문화체육관광부	3	-	3	19	1	26
방송통신위원회	-	-	1	-	-	1
방위사업청	1	-	-	-	-	1
병무청	2	-	-	-	-	2
보건복지부	-	-	-	9	-	9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	**-**	**-**	**1**	**-**	**1**
부처합동	1	-	-	-	-	1
산림청	-	-	1	-	-	1
산업통상자원부	4	-	2	-	-	6
식품의약품안전처	-	-	3	-	-	3
여성가족부	**4**	**-**	**1**	**4**	**2**	**11**
외교부	-	-	-	-	1	1
인사혁신처	2	-	-	-	-	2
조달청	1	-	-	-	-	1
중소벤처기업부	13	-	3	-	1	17
통일부	1	-	-	-	1	2
특허청	-	-	2	-	-	2
해양수산부	3	-	3	-	-	6
행정안전부	1	-	-	-	4	5
환경부	1	-	2	-	1	4
계	94	24	83	37	32	270

주: 소관부처 순서는 가나다 순임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 청년정책 중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일자리 4개, 교육 1개, 복지·문화 4개, 참여·권리 4개 정도로 나타나 총 11개였으며,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복지·문화 분야 1개 정책이며, 주거 관련 정책은 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 중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과제를 제외하고 청년여성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세부 과제는 일자리, 복지·문화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Ⅲ-3〉과 같음

〈표 Ⅲ-3〉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중 청년여성 관련 세부과제

5대 정책방향	세부과제
일자리	▪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 ▪ 청년여성 역량 강화 ▪ 청년 직장 성폭력 근절 ▪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및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주거	-
교육	-
복지·문화	▪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자살예방) - 20·30대 여성 맞춤형 검진도구 개발 및 자살예방 정책지원단 구성·운영
참여·권리	-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21).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 이와 함께 「청년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 ·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청년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고자 연도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시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정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구체화된 성과를 내도록 추진 중임

□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추진 체계

❍ 중앙정부에서는 청년정책조정 기능을 지니고 청년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정책 조정실을 두어 청년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해당 부서는 청년정책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면서 타 부처와 청년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2년 기

준, 〈표 Ⅲ-4〉와 같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음

〈표 Ⅲ-4〉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부서업무

구분	부서업무
청년정책기획관	▪ 청년정책조정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 청년기본법 등에 따른 청년 관련 제도 관리 및 개선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점검 및 평가·보완 ▪ 청년정책책임관협의회 운영 ▪ 청년정책 유공포상에 관한 사항 ▪ 청년과의 소통 활성화 및 홍보 ▪ 청년정책홍보전략회의 운영 ▪ 청년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 관련 민간과의 협력 및 국제 교류·협력 ▪ 그 밖에 청년정책조정실의 소관 업무 중 다른 정책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청년정책협력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 청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행정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및 현안대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청년 분야의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중장기 정책의 기획·관리에 관한 사항 ▪ 청년인재 발굴·교육 및 DB(Data Base)관리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 청년정책 전담연구기관 조성 및 운영 ▪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총괄 ▪ 청년 실태조사 및 통계 관리에 관한 사항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www.opm.go.kr)

(2) 중앙정부 인구정책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5년 6월,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음

- 동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 · 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음

- 동 법의 경우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두고 있음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15)〉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20조에 따라 중앙정부는 저출생과 고령화 현상의 심화, 인구 규모의 감소 및 인구구조의 변화 등 인구변동에 당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한 후 〈제1~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임

- 본 계획의 비전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 사회'에 두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 인구변화 대응 사회 혁신이라 3가지 목표로 세웠음

- 계획의 추진 전략으로는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세웠으며, 〈표 Ⅲ-5〉와 같음

〈표 Ⅲ-5〉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의 추진 전략 및 과제

추진 전략	과제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 **생애 전반 성·재생산권 보장**
2.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 예방적 보건·의료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통합적 돌봄 ▪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존엄한 삶의 마무리 지원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사회참여

추진 전략	과제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 **지역상생 기반 구축** ▪ 고령친화사회로의 도약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15).

❍ 본 계획에서 청년 및 여성 관련 추진 전략은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임

❍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에서는 청년정책 분야 중 주로 일자리, 복지, 주거, 복지, 권리에 대한 과제들이 추진 중이며 일자리 및 노동에 관련된 성평등, 일·생활 균형, 그리고 임신, 자녀출생, 돌봄에 관련된 정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Ⅲ-6〉과 같음

- 세부적으로는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생애 전반성 · 재생산권 보장'의 과제가 추진 중임

〈표 Ⅲ-6〉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의 청년 및 여성 관련 세부 과제

추진 전략	과제	세부 과제		비고
1.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모두가 누리는 워라밸	일-양육 병행 가능한 노동 환경 실현	▪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 ▪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확산 및 육아휴직 사용 문화 정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 ▪ 남성의 돌봄권 보장 ▪ 임신 · 출산 근로자에 대한 보호 확대	일자리, 권리
		개인의 생애와 조화를 이루는 노동 환경 확립	▪ 다양한 삶의 요구에 대응한 일 • 생활 균형 실현 ▪ 장시간근로 해소 및 휴식권 보장	일자리, 권리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으로 워라밸 실현	▪ 일하는 방식 및 문화 혁신 ▪ 일 · 생활 균형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일자리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성평등한 일터 조성	▪ 공정한 채용 환경 조성 ▪ 성평등 경영 공표제 도입 ▪ 성별격차 해소 기반 강화	일자리
		고용상 성차별 · 성희롱	▪ 고용상 성차별 · 성희롱 피해 구제 강화	일자리

추진 전략	과제	세부 과제		비고
		피해 구제 및 예방 강화	▪ 성차별·성희롱 예방정책 전달체계 강화	
		여성 집중 돌봄노동 분야 일자리 질 개선	▪ 돌봄노동의 가치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돌봄노동 분야 종사자 권리 보호 ▪ 돌봄노동 분야 종사자 처우 개선	일자리, 권리
	아동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 ▪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 ▪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확충	복지
		아동의 균등한 초등돌봄 환경 조성	▪ 초등교육 혁신을 통한 충분한 교육 제공 ▪ 수요자 중심 온종일돌봄 지속 확충	복지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아동돌봄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 ▪ 아동중심 통계 조성	복지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아동가구 소득보장 및 생활지원 강화	▪ 영아기 집중투자* ▪ 아동수당 제도개편 검토* ▪ 가구별 아동지원 강화* ▪ 신혼부부·아동양육가구 주거지원 확대 ▪ 다자녀가구 주거지원 확대	주거
		아동의 균형적 발달과 성장 보장	▪ 신속한 출생신고 지원* ▪ 아동 건강 및 의료 지원* ▪ 아동의 놀이권 보장*	복지, 권리
		아동·청소년의 보호안전망 강화	▪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 ▪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복지
	생애 전반 성 · 재생산권 보장	성 · 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	▪ 성·재생산권 보장 기반 마련 ▪ 평등한 성 인식 및 권리 강화 ▪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	복지, 권리
		생애전반 생식건강 관리 및 질환 예방	▪ 모자보건 중심에서 포괄적 법제·사업 정비 ▪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 지원 ▪ 월경 건강 보장	복지, 권리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 · 출산 보장	▪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 ▪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난임 지원 강화 ▪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복지

주: *로 표기한 일부과제들은 아동·청소년을 직접 지원하는 과제임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15).

○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에서는 청년정책 분야 중 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참여, 권리에 대한 과제들이 추진 중이며, 청년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교육훈련, 일자리 관련된 과제 뿐만 아니라, 청년의 주거, 생활개선을 위한 복지,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한 청년 권리 관련 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표 Ⅲ-7〉과 같음

-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의 과제가 추진중이며, 특히 청년과 여성에 초점을 둔 과제, 즉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에 관련된 과제가 시행중이며, 〈표 Ⅲ-7〉과 같음
- 인재육성과 교육훈련 강화에 초점을 둔 과제로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격차 완화’,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 혁신’, ‘전문인재로서의 성장경로 구축’,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 ‘평생교육·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 ‘누구나 평생교육 ·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가 추진중임
- 청년의 삶의 기반 강화를 중점으로 한 과제는 ‘청년의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을 위한 일자리’는 교육, 일자리에 연계되며,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 기반은’ 주거, ‘안정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경우 복지·문화, 참여·권리에 관련되며, 해당 과제들이 추진 중임
- 여성의 역량강화에 관련된 과제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정책 강화’, ‘경력단절 여성의 취 · 창업’, ‘미래 여성핵심인력 양성 기반 구축’의 경우 모두 일자리와 교육 연계된 정책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Ⅲ-7〉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중 청년 관련 세부 과제

추진 전략	과제	세부 과제		비고
3.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격차 완화	▪ 기본적 교육비에 대한 공적영역 지원과 교육복지 안전망 강화 ▪ 고교 입학과 관련된 학교체계 및 대입전형 개선	교육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	▪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기반 조성 ▪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 · 활동기반 조성 ▪ 미래형 교육에 부합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혁신	교육

추진 전략	과제	세부 과제		비고
		전문인재로서의 성장경로 구축	▪ 진로교육 강화 및 고졸 취업 활성화 지원 ▪ 사회수요를 반영한 대학 교육과정	일자리, 교육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체계적인 생애경력개발 지원	▪ 체계적인 학습 · 훈련 이수체계·경력경로 설정 ▪ 온라인 학습 플랫폼 구축 및 플랫폼 간 연계강화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협력체계 강화	교육
		평생교육·직업훈련의 다양화 및 확대	▪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학의 평생교육기능 강화 ▪ 민간의 직업훈련·평생교육 기관 활성화 ▪ 직업훈련 프로그램 · 콘텐츠 확충 및 제공방식 다양화 ▪ 성인문해교육 운영 및 디지털 역량수준 향상 · 격차 해소	일자리, 교육
		누구나 평생교육·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평생교육 · 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학습비 지원 ▪ 원하는 시기에 교육 ·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조성	교육
	청년기 삶의 기반 강화 :이행기 지원	청년의 안정된 삶의 여건 조성을 위한 일자리	▪ 청년의 진로탐색 지원과 핵심인력 양성 ▪ 청년 고용지원 및 적합 일자리 발굴 ▪ 청년 창업 지원 ▪ 청년 직장문화 개선 및 산업안전 강화	일자리, 교육
		청년가구의 주거 안정 기반	▪ 청년의 주거빈곤 사각지대 해소 ▪ 청년가구 대상 공급확대 및 임차지원	주거, 복지
		안정적으로 삶을 설계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 ▪ 청년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건강보장 ▪ 청년의 정책결정 참여와 사회참여 확대	복지, 참여, 권리
	여성의 경력유지 및 성장기반 강화	여성의 경력유지 지원 정책 강화	▪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의 취 · 창업	▪ 경력단절 여성 대상 전문분야 및 맞춤형 재취업 지원 강화 ▪ 경력단절여성 고용 사업주 지원 강화 ▪ 경력단절 여성의 창업지원 강화	일자리, 교육,
		미래 여성핵심인력 양성 기반 구축	▪ 과학기술 및 창업 등 유망분야 여성 진출지원 확대	일자리, 교육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15).

○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에서는 청년정책 분야 중 주로 일자리, 복지, 문화, 참여, 권리 등에 대한 과제들이 추진 중이며, 청년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과제뿐만 아니라, 안전, 지역에 관련된 정책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표 Ⅲ-8〉과 같음

-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상생 기반 구축’에서 청년 및 여성을 지원하는 정책 과제를 수행 중임

〈표 Ⅲ-8〉 ‘4.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의 청년 및 여성 관련 세부 과제

추진 전략	과제	세부 과제		비고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다양한 가족의 제도적 수용 기반 마련	▪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개념 확장 및 다양한 가족 차별금지 법제화 ▪ 생활·돌봄공동체 관련 법제 마련 ▪ 법률혼·부계 중심 법령을 자녀권익 보호 법제로 개선	권리
		다양한 가족의 아동양육 지원 강화	▪ 통합 가족서비스 체계 강화 ▪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 지원 ▪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사회참여 확대	복지, 참여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	문화
	연령통합적 사회 준비	연령통합 및 생애연령 기준 재정립 논의	▪ 인구구조를 반영한 연령통합의 내용과 활용방안 설정 ▪ 연령구분 기준과 개념의 재설정 방안 논의	참여, 권리
		세대 간 교류와 소통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 모색	▪ 세대 간 소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기술 전수, 자산 공유 등 세대 간 상호협력 지원	참여
		연령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연령통합지표의 개발 및 적용 ▪ 연령 및 세대에 관한 인식 · 실태조사와 미디어 모니터링 진행 ▪ 사회적 논의를 위한 추진체계 구성	참여, 권리
	전 국민 사회안전망 강화	다양한 노동을 포용하는 사회안전망 강화	▪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국민연금 가입 확대 ▪ 저소득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 ▪ 상병수당 도입	복지
		개인단위 소득보장을	▪ 사회적 기여의 인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 개선	복지

추진 전략	과제	세부 과제		비고
		위한 제도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및 확대를 통한 고용안전망 강화 ▪ 소득 기준 사회보장 체계를 위한 기반 구축	
		중소기업 · 비정규직 및 다양한 노동에 대한 보호	▪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향상 및 비정규직 차별 해소 ▪ 특고 및 플랫폼노동종사자 보호	일자리, 복지
	지역상생 기반 구축	세대공존 지역사회 조성	▪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복지
		생활권 중심의 상생형 지역계획 수립	▪ 지역밀착형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구축 ▪ 인근 생활권 피폐화 방지 ▪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분석 인프라 조성	복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선별적 지원 강화	▪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선별적 지원 강화	참여, 권리

출처 : 관계부처 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15).

□ 인구 정책 추진 체계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 23조에 의거하여, 중앙정부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범부처 차원을 계획을 심의하여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자 컨트롤타워로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있음

○ 본 위원회는 인구정책의 추진 기반 마련 및 내실화를 위하여 미래기획, 세대공감, 지역상생, 일·생활균형, 성평등노동권, 가족다양성, 아동돌봄이라는 세부적인 분과를 두어 운영 중에 있음

2) 경남 청년 및 인구정책

(1) 경남 청년정책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등 제정

○ 경남은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제정(2016년 6월) 및 시행(2016년 12월)을 시작으로 2019년 9월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로 전면 개정되었음

- 본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의거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상남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조례의 기본이념으로는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에 두고 있음

○ 이와 함께 청년정책 위원회를 신설(2017년 11월)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도록 협의체를 구성하였음

○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외에도 경상남도는 청년의 일자리, 주거, 시설 등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있음

- 「경상남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조례」, 「경상남도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청년 생활안정 지원 조례」, 「경상남도 청년 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 「경상남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등이 있음

□ 〈경상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19-2023)〉 수립 및 시행

○ 〈경상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경상남도 청년 기본조례」 제6조에 근거해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청년의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 및 생활 안정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 종합계획임

○ 본 계획에서의 비전은 '경남청년 꿈을 기회로, 기회를 성장으로'이며, 추진목표는 '일터', '삶터', '놀이터' 라는 부문에 초점을 두어 경남 청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는 토대를 마련함

- 본 계획에서 '일터'와 관련된 분야는 29개이며, 창업 14개, 일자리 8개, 능력개발 7개임. '삶터'에 관련된 정책은 17개이며, 세부적으로 생활안정 11개, 결혼여성 4개, 권리보호 2개임. '놀이터'에 관련한 사업은 17개로, 세부적으로는 문화 7개, 참여 6개, 혁신 4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획에 근거하여 부서별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은 〈표 Ⅲ-9〉와 같음

〈표 Ⅲ-9〉 〈경상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19-2023)〉의 사업 현황

소관 부서	일터(일자리, 교육)			삶터(주거, 복지, 권리)			놀이터(문화, 참여)			계
	창업	일자리	능력 개발	생활 안정	결혼 여성	권리 보호	문화	참여	혁신	
건축주택과					1					1
경제기업정책과	9									9
교육정책과			1	3						4
노동정책과						2				2
농업기술원	2									2
농업정책과		1								1
도립미술관							1			1
문화예술과							6			6
사회적경제과		1								1
사회혁신추진단				5				6	3	14
산업혁신과	1									1
여성가족정책관					2					2
여성가족정책관 (저출생고령사회 정책관)					1					1
예산담당관									1	1
일자리정책과	1	6	5	3						15
전략산업과			1							1
친환경농업과	1									1
계	29			17			17			63
합계	14	8	7	11	4	2	7	6	4	63

주1: 소관 부서는 2019년 당시 부서명임
주2: 일터에 관련된 정책은 주로 일자리, 교육, 삶터 정책은 주거, 복지, 권리에 관련된 정책이며, 놀이터 정책은 문화, 참여에 연계된 것이라 볼 수 있음
출처 : 경상남도. (2019). 경상남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19-2023).

□ 경상남도 청년정책 추진체계

○ 경상남도는 청년정책을 전담할 조직 체계를 편성하여 경남의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음. 청년정책추진단은 2019년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으로 승격 개편한 뒤 여성가족청년국의 소관이었던 청년정책추진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재배치하여 도지사가 직접 청년정책 사항을 추진 관리할 수 있도록 조정한 부서임

- 2022년 기준, 청년정책추진단 내 청정정책담당, 청년교류담당, 청년지원담당이라는 〈표 Ⅲ-10〉과 같이 전담조직을 두고 있어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 중임

〈표 Ⅲ-10〉 경상남도 청년정책추진단 부서업무

구분	부서업무
청년정책담당	▪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총괄 조정 ▪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 · 평가 ▪ 청년정책 연구, 실태조사, 기초조사 통계 및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플랫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실국 청년정책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시 · 군 청년정책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청년정책 홍보 계획 수립 및 시행 ▪ 청년 위원회 할당제 추진 ▪ 청년 통합 정보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교류담당	▪ 경남 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청년 인재 발굴에 관한 사항 ▪ 청년 의제 공론장 운영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청년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 청년 멤버십 캠프 운영 ▪ 청년정책 아카데미 운영 ▪ 청년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 청년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업무 추진
청년지원담당	▪ 청년센터 운영 및 지도 · 감독 ▪ 청년 공간 조성 · 확대에 관한 사항 ▪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 청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청년 금융 및 부채경감 지원에 관한 사항 ▪ 청년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기관 간 청년정책 협력 추진

출처: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2) 경남 인구정책

□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 경상남도는 저출생 원인에 따른 생애주기별 인구시책 마련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

- 본 조례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데 두고 있음

○ 본 조례에서의 인구정책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고자 마련하는 것을 의미함

□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

○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 6조에 따라,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함. 본 계획은 저출생 원인으로 인한 생애주기별 인구시책을 마련하고 청년 인구 유출 대응에 도정 역량을 결집하여 경남도의 지속가능한 미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자 2020년 12월 수립됨

○ 본 계획에서는 '모두가 살고 싶은 경남,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에 비전을 두고,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경남', '기회와 희망 주는 젊은 경남', '미래 변화에 준비된 경남'이라는 목표를 세움

- 〈표 Ⅲ-11〉과 같이 본 계획에서는 경남의 인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남형 희망 인구 Plus(+) 2 정책, 6대 전략, 160개 사업을 시행 중이며, 청년에 초점을 둔 '청년이 빛나는 경남', 여성에 초점을 둔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경남'이라는 전략을 두고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표 Ⅲ-11〉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 추진 전략 및 과제

추진 전략	과제
함께 돌보고 키우는 경남	▪ **함께 기르는 돌봄 체계** ▪ **안심하고 낳고 부담 없이 기르는 환경** ▪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 ▪ **차별 없는 아동 보호와 포용적 가족문화**
청년이 빛나는 경남	▪ **청년이 머물고 찾아오는 환경** ▪ **청년이 원하고 만드는 가치 있는 일자리** ▪ **청년 맞춤 주거·생활 지원** ▪ **경남형 청년문화특별도 육성**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경남	▪ **도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 **여성의 참여 확대**
경남에서 길러내는 경남人	▪ **지역이 함께 키워내는 혁신 인재 양성** ▪ **농·산·어촌 청년 리더 육성** ▪ 신중년 인생 3모작 지원 ▪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진흥**

추진 전략	과제
행복한 경남 실버	▪ 노인 일자리와 사회공헌 활동 지원 ▪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돌봄 케어 ▪ 생활 서비스 지원을 통한 소통·교류 ▪ 사회 참여 및 정서 안정 지원
인구 변화 선제 대응	▪ 인구 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 ▪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으로 행복한 가족

출처 : 경상남도. (2020).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

❍ ‘함께 돌보고 키우는 경남’에서는 청년정책 분야 중 주로 복지에 해당하는 과제들이며, 청년의 결혼, 임신, 자녀출생, 돌봄으로 인하여 필요한 정책,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요구되는 정책을 지원하는 부분임. ‘함께 기르는 돌봄 체계 구축’, ‘안심하고 낳고 부담없이 기르는 환경’,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 ‘차별없는 아동 보호와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에 대한 다양한 세부 과제가 추진 중이며, 〈표 Ⅲ-12〉와 같음

〈표 Ⅲ-12〉 ‘함께 돌보고 키우는 경남’의 청년 및 여성 관련 세부과제

추진 전략	과제	세부 과제		비고
함께 돌보고 키우는 경남	함께 기르는 돌봄 체계 구축	▪ 경남형 돌봄모델 개발 ▪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리모델링) ▪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 ▪ 지역아동센터 운영	▪ 우리 마을 아이돌봄 사업 ▪ 시간제 보육 지원 ▪ 경남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 민·관 협업 아동 놀이공간 혁신사업	복지
	안심하고 낳고 부담 없이 기르는 환경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임산부 풍진검진사업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산부인과 운영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아동수당 지급*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 서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교복구입비 지원* ▪ 대학생 장학금 지원 ▪ 도립대학 다자녀 학비 및 장학금 지원 ▪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복지
	영유아 보육의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직장 어린이집 확충	▪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 영아반 운영 활성화 지원	복지

추진 전략	과제	세부 과제	비고
	공공성 강화	▪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품질 지원 ▪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 어린이집 품질관리 지원 ▪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어린이집 안전보험료 지원	
	차별없는 아동 보호와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자립 지원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결혼이민자 영유아기 자녀 양육서비스 ▪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자활센터 운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복지

주: *로 표기한 일부과제들은 아동·청소년을 직접 지원하는 과제임
출처 : 경상남도. (2020).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

○ 청년에 연계된 과제를 〈표 Ⅲ-13〉과 같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년이 머물고 찾아오는 환경'의 세부 과제는 청년의 참여, 권리에 관련된 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청년이 원하고 만드는 가치 있는 일자리'는 일자리, 교육, '청년 맞춤 주거·생활 지원'은 주거, 복지에 관련된 사업, '경남형 청년문화특별도 육성'은 문화에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표 Ⅲ-13〉 '청년이 빛나는 경남'의 청년 및 여성 관련 세부과제

추진 전략	과제	세부 과제	비고
청년이 빛나는 경남	청년이 머물고 찾아오는 환경	▪ 경상남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 청년 공모사업 지원 ▪ 청년 친화형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 청년정책 플랫폼 운영 ▪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 도 청년센터(청년온나) 운영 지원 ▪ 시·군 청년터 조성 사업	참여, 권리
	청년이 원하고 만드는 가치 있는 일자리	▪ 지역 주도 청년일자리사업 ▪ 경남형 트랙사업 활성화 지원 ▪ 경남형 뉴딜일자리사업 ▪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 경남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 ▪ 고졸예정자 취업특화과정 운영 ▪ 청년일자리 플랫폼 운영 ▪ 경남 청년채용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사업 ▪ 경남 청년일자리 고용환경 ▪ 경남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 경남 상생공제 사업 ▪ 청년EG사업 ▪ 대학취업지원위원회 운영 ▪ 경남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확대 ▪ 경남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 ▪ 경남 스타트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사업 ▪ 경남 청년창업아카데미 운영사업 ▪ 경남 청년 산업디자이너 육성프로젝트	일자리, 교육

추진 전략	과제	세부 과제		비고
		모니터링 사업 ▪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사업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진행 ▪ 도시재생 청년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청년 맞춤 주거·생활 지원	▪ 민간 참여형 청년주택 ▪ 맞춤형 청년주택 지원사업 ▪ 더불어 나눔 주택 사업 ▪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 면접정장 무료 대여	주거, 복지
	경남형 청년문화 특별도 육성	▪ 청년 문화활동가 양성 프로젝트 ▪ 청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 경남 청년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 청년 '경남형 한달살이'	문화

출처 : 경상남도. (2020).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

○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경남'은 여성에 초점을 둔 과제들이며, 〈표 Ⅲ-14〉와 같음. 세부적으로는 청년정책 분야 중 '도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은 여성의 참여, 권리, 교육에 관련된 사업,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은 일자리, 교육,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은 복지, 교육, '여성의 참여 확대'는 참여, 교육에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표 Ⅲ-14〉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경남' 중 여성 관련 세부 과제

추진 전략	과제	세부 과제		비고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한 경남	도민이 체감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	▪ 여성가족재단 설립 ▪ 여성 친화도시 확대 추진 ▪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	▪ 공무원 및 도민 양성평등교육 ▪ 양성평등 청년 지역 네트워크	참여·권리, 교육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 새일센터 지정 운영 ▪ 새일 인턴 취업 장려금 지원	▪ 여성 창업지원 서비스 ▪ 여성공동체창업 페이스메이커 사업	일자리 교육
	여성이 안전한 환경 조성	▪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감시단 운영 ▪ 폭력재발우려가정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 젠더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 계층별 맞춤형 폭력예방 교육	복지, 교육
	여성의 참여 확대	▪ 여성지도자 양성 과정		참여, 교육

출처 : 경상남도. (2020).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

○ ‘경남에서 길러내는 경남 人’은 청년 정책 중 교육에 초점을 둔 과제들임. 〈표 Ⅲ-15〉와 같이 ‘지역이 함께 키워내는 혁신 인재 양성’은 교육, ‘농·산·어촌 리더 육성’은 일자리, 교육,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진흥’은 교육에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표 Ⅲ-15〉 ‘경남에서 길러내는 경남 人’중 여성 관련 세부 과제

추진 전략	과제	세부 과제	비고
경남에서 길러내는 경남 人	지역이 함께 키워내는 혁신 인재 양성	▪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 ▪ 에듀테크 기반 미래학교 모델 개발 ▪ 학습카페 및 홈베이스 구축사업 ▪ 경남형 학교공간 혁신 모델 구축 ▪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 남명학사 운영	교육
	농·산·어촌 리더 육성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직불제 ▪ 차세대농업인 성공모델 육성 ▪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 청년 귀어 정착 ▪ 청년 귀산촌 활성화 사업	일자리, 교육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진흥	▪ 생애주기별 맞춤형 평생교육체계 구축 용역 ▪ 지역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진흥 사업 ▪ 재단법인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교육

출처 : 경상남도. (2020).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

○ ‘인구 변화 선제 대응’은 청년 정책 중 일자리, 복지, 문화, 참여, 권리에 초점을 둔 과제들임. 〈표 Ⅲ-16〉과 같이 ‘인구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은 참여, 권리,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으로 행복한 가족’은 일자리, 복지, 문화, 참여에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표 Ⅲ-16〉 ‘인구 변화 선제 대응’중 여성 관련 세부 과제

추진 전략	과제	세부 과제	비고
인구 변화 선제 대응	인구 변화 대응 시스템 구축	▪ 동남권 인구정책 공동연구 ▪ 지역 맞춤형 인구시책 공모사업 추진 ▪ 저출생고령사회 위원회 운영 ▪ 인구정책영향평가 추진	참여, 권리
	일·생활 균형, 인식개선으로 행복한 가족	▪ 출산친화 및 다자녀 지원 ▪ 임산부 우대 적금 지원 4 ▪ 가족단위관람객 공공시설 입장료 할인 ▪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 인구교육 활성화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일자리, 복지, 문화, 참여

출처 : 경상남도. (2020).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

○ 더불어, 2021년 경남은 청년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일자리, 인재양성, 지역매력도 향상, 직접 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청년정책을 4대 전략, 10대 핵심과제, 91개의 추진과제를 추진 중임

2. 청년·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

□ 청년 인구 변화 관련 선행연구

○ 청년 관련 정책연구는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복지·문화 등 연계되어 다양하게 진행되어왔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중 종합정책연구기관 및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구제목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표 Ⅲ-17〉과 같음

- 청년 대상 연구는 일자리 연구가 61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련된 연구 32개, 복지·문화에 관련된 연구가 27개 순으로 많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교육이나 참여·권리에 관련된 연구는 적은 편수인 것으로 나타남

〈표 Ⅲ-17〉 전국 종합정책연구기관 및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의 청년연구 동향(2011-2021)

연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인구	기타 정책 및 종합계획 등	계
2011	3	-	-	-	-	1	-	4
2012	2	-	-	-	-	1	-	3
2013	4	-	1	-	-	-	-	5
2014	1	-	-	1	-	-	-	2
2015	6	2	-	-	-	-	2	9
2016	4	1	-	1	-	-	1	7
2017	9	7	1	1	1	-	7	19
2018	5	5	1	4	-	2	5	19
2019	13	4	1	7	-	2	4	29
2020	8	8	-	6	-	1	8	26
2021	6	5	-	7	2	3	5	28
계	61	14	4	27	3	10	32	151

○ 다양한 주제 중 청년의 인구 변화와 관련된 연구만을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함. 청년과 인구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두고, 청년의 인구 변화에 연계된 지방소멸, 인구의 이동, 감소, 유입, 유출 등 관련된 선행연구만을 분석함

○ 〈표 Ⅲ-18〉과 같이 인구 문제와 관련된 연구 중 청년을 대상으로 다룬 연구는 10개이며, 인구 이슈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진행하기보다는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

- 세부적으로는 5개의 연구는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가 많은 편이며, 그 외 지역의 대학, 법·제도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와 연계하여 진행됨

〈표 Ⅲ-18〉 청년 및 인구 선행연구 동향(2011-2021)

연도	구분	연구명	연구내용
2011	부산 연구원	부산지역 대졸자의 지역이동 분석 및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 부산지역 청년고용 현황 ▪ 부산지역 청년고용 부진 원인 ▪ 부산지역 대졸자의 지역이동 분석 ▪ 부산지역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2012	대구경북 연구원	대구경북지역 청년 역외유출원인과 해소방안 연구	▪ 대구경북 청년 일자리 현황 ▪ 대구경북지역 청년 유출 원인 ▪ 청년 유출 해소 방향
2018	대구경북 연구원	지방소멸대응 청년유입 특별법 연구	▪ 청년유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건 분석 ▪ 청년유입 특별법 입법 방향 ▪ 지방소멸대응 청년유입 특별조치법안
		지방소멸대응 경북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 청년 지역유입의 가치 ▪ 대학 특성 및 역량 ▪ 사례 분석 ▪ 청년의식조사 ▪ 대학별 청년정책제안
2019	경남 연구원	경남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이동에 따른 지역대응 방안	▪ 경남인구추계 및 청년현황 ▪ 경남 청년의 이동과 정착요인 ▪ 경남의 청년정책 현황 ▪ 경남의 청년정착을 위한 신규정책
	대전세종 연구원	대전·세종지역 청년인구감소의 지역 내 불균형	▪ 대전 청년인구감소실태와 특성 ▪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인구감소 실태와 특성 ▪ 청년인구 감소의 지역 불균형 원인 탐색
2020	부산 연구원	부산지역 청년층 지역이동과 취업성과 분석	▪ 부산지역 청년층 지역이동 및 취업성과 분석 ▪ 지역별 청년층 취업성과 분석 ▪ 정책적 시사점 및 대응방안

연도	구분	연구명	연구내용
2021	광주전남 연구원	지역 청년층 취업이동 분석 및 정책적 대응	▪ 광주 청년층 고용 및 취업이동 실태 분석 ▪ 광주 청년지원 정책 ▪ 광주 청년층 취업이동의 정책적 대응
	경남 연구원	경남 청년인구 유출 확대의 원인과 일자리 문제 분석	▪ 경남 청년인구 유출 현황 및 전망 ▪ 청년취업 트렌드 변화와 경남 일자리 현황 ▪ 결론 및 시사점
	부산 연구원	코로나 19 이후 부산청년 지역이동과 젠더차별	▪ 코로나 19 이후 노동시장 ▪ 코로나 19이후 여성경제활동 추이 ▪ 코로나 19 이후 전국 청년경제활동 인구 ▪ 부산광역시 인구 고령화, 인구이동, 산업구조, 성별 실업률 ▪ 코로나 19가 청년실업 및 부산지역 청년에 미친 상황 ▪ 저학력, 비정규직 청년 취업 어려움 ▪ 소결

□ 청년여성 관련 선행연구

○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중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청년여성 관련 연구는 주로 2013년부터 진행되었으며, 2021년까지 진행된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표 Ⅲ-19〉와 같음

-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역시 가장 많이 진행된 연구 분야는 일자리 연구가 19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거 3개, 복지·문화 3개, 기타 정책 및 종합계획 등이 1개로 순으로 나타남. 반면, 교육 관련 연구는 적은 편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권리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Ⅲ-19〉 전국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의 청년여성 연구 동향(2016-2021)

구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기타 정책 및 종합계획 등	계
2013	3	-	-	-	-	-	3
2015	1	-	-	-	-	-	1
2016	3	-	-	-	-	-	3
2017	3	-	1			2	6

구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기타 정책 및 종합계획 등	계
2018	1	1	-	-	-	-	2
2019	2	-	-	2	-	-	4
2020	3	1	-	-	-	-	4
2021	3	1	-	1	-	-	5
계	19	3	1	3	-	2	29

❍ 청년여성 관련 연구에서 2021년에 진행된 최신 연구 동향만 살펴보면, 〈표 Ⅲ-20〉과 같음. 일자리 및 경제활동 실태, 창직활동에 대한 연구 등 일자리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과 주거 등에 관련된 연구,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복지·문화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표 Ⅲ-20〉 청년여성 2021 연구 동향

구분	연구명	연구내용
일자리	강원도 청년여성 일자리 실태 및 욕구조사	▪ 강원도 여성일자리 종합계획 수립(2022~2025)을 위한 실태조사 - 첫 일자리 경험 - 현재 일자리-취업자 - 구직경험 및 취·창업 의향 - 취업준비활동(인턴, 직업교육훈련) - 일자리 근로 환경 관련 인식 - 강원도 청년여성의 정책 수요
	경북 청년여성의 창직 활동을 위한 방안 연구	▪ 경북 청년여성의 일자리 현황 ▪ 청년여성의 창직 활동 ▪ 경북 청년여성의 창직 활동 방안을 위한 실태조사 ▪ 경북 청년여성의 창직활동을 위한 방안
	울산지역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 청년여성과 경제활동의 관계 ▪ 울산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 울산 청년여성의 고용현황과 청년여성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
주거	경북 농산어촌 청년여성 정주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경북 청년여성 인구 현황 및 농산어촌 정주여건 분석 ▪ 농산어촌 청년여성 지원 관련 정책 분석 ▪ 청년여성 정주실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조사·분석

구분	연구명	연구내용
		▪ 경북 농산어촌 청년여성 정주여건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개발
복자문화	코로나 시대 제주 청년여성의 정신건강 실태와 대응 전략	▪ 코로나와 정신건강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정신건강 정책자료 고찰 ▪ 정신건강 지표 변화에 관한 통계자료 고찰 ▪ 제주 청년여성 대상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한 정신건강 실태 및 정책 욕구 도출 ▪ 제주 청년여성을 위한 정신건강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3. 소결

□ 청년 및 인구정책 검토

○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계획에서는 일자리에 관련된 과제가 가장 많음

- 중앙정부나 경남 지역 모두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행은 여러부서에서 진행함과 동시에 청년 정책을 집중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청년 대상 정책은 분절적으로 진행되기보다 다양한 이슈에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부처 및 부서 간 협력이 강조되어야 함

○ 청년이자 여성인 청년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은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중앙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과 경남의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2022-2026)〉 등을 바탕으로 진행 중임. 해당 정책에서는 결혼, 임신, 자녀출생, 돌봄 및 가족구성원, 즉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여성에 대한 정책은 생애단계적 관점으로 정책 및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청년이자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와 인구정책 그리고 여성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 등과의 지속적 협업이 필요함

- 더불어,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에서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정책 및 사업의 결정과정에서 청년이 참여하고, 직접적으로 청년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함

□ 청년·인구이동 관련 선행연구

○ 청년 관련 정책연구는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복지·문화 등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 종합정책연구기관 및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한 연구 중 청년 대상 연구는 일자리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타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에 관련된 연구, 복지·문화에 관련된 연구가 순으로 많은 편임. 반면, 교육이나 참여·권리에 관련된 연구는 적은 편수인 것으로 나타남
-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대해서는 2021년에 진행된 최신 연구 동향만 살펴보면, 역시 일자리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거, 복지·문화, 기타 정책 및 종합계획 등 순으로 나타남. 반면, 교육 관련 연구는 적은 편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권리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인구이동과 관련된 연구 중 청년을 대상으로 다룬 연구를 지난 10년 간 살펴보면, 인구 이슈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진행하기보다는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 세부적으로의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 연구가 많은 편이며, 그 외 지역의 대학, 법·제도적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와 연계하여 진행됨

○ 이처럼 청년 인구 및 청년여성 연구 분야에서는 일자리에 집중된 연구들이 많은 부분 수행되어 분야 및 주제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에게 일자리 관련된 연구주제는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청년여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함

○ 경남에서도 최근 청년 종합계획연구 및 인구유출 대응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청년여성으로 갖게 되는 생애단계 이슈를 고려한 연

구, 경남의 시·군의 청년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경남 지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청년의 이슈는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자체 간 협동 연구를 추진하여 연구의 폭을 넓히는 방안도 필요함. 지역 간 협업할 수 있는 방식을 활용한다면, 청년이자 여성으로 겪는 다양한 이슈들과 문제에 대해 복합적으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Ⅳ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GNWFF

Ⅳ.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 이 장에서는 경남 청년여성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이하 'FGI')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경남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및 복지·문화, 사회적 관계망, 정책에 대한 요구 등에 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1. 설문조사 분석

1) 조사개요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경상남도 거주 만 19세-34세 청년여성 946명(19-24세, 25-29세, 30-34세로 연령대를 구분하여 층화 표본 조사 시행)

○ 조사방법 및 진행방식

- 조사기간 : 2021.10.19.~10.30.(약 2주간 진행)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전문 조사업체 활용)
- 조사신뢰도: 95% 신뢰구간에서 ±3.1%
- 온라인으로 수집된 자료는 전산 프로그램(EXCEL, SPSS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Frequency-analysis), 교차분석(Crosstabulation analysis),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등의 방법을 활용함

○ 조사내용

-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방안의 조사내용은 응답자 인적사항(4개 문항)을 포함하여, 청년정책의 5대 영역(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과 여성 생애주기별 접근 정책(결혼, 임신, 자녀출생, 돌봄, 가족) 등을 고려하여 문항을 구성함

- 세부적으로는 청년여성 인식 및 의향(16개 문항), 일자리(21개 문항), 주거(10개 문항), 교육 및 복지·문화(13개 문항), 사회적 관계망(7개 문항), 정책에 대한 요구(5개 문항) 등 7개 영역 76개 문항으로 구성함

〈표 Ⅳ-1〉 조사내용

구분	설문항목	문항수
P. 응답자 인적사항(4)	◦ 연령/ 거주지역(시군, 동·서부)/ 최종학력/ 최종학교 소재지	4
A. 청년여성 인식 및 의향(16)	◦ 청년여성으로서 삶의 만족도	5
	◦ 정주 및 이주 의사	6
	◦ 혼인상태 및 결혼출생 영향 요인	5
B. 일자리(21)	◦ 취·창업 현황	5
	◦ 취업자 고용 만족도	8
	◦ 경남지역 일자리 평가	8
C. 주거(10)	◦ 거주기간	1
	◦ 주거환경 만족도	4
	◦ 주거지역 편리성	3
	◦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1
	◦ 청년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1
D. 교육 및 복지·문화(13)	◦ 교육 현황	3
	◦ 교육환경 평가	2
	◦ 교육/복지·문화 만족도	3
	◦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	5
E. 사회적 관계망(7)	◦ 사회적 관계망 인식	5
	◦ 사회적 관계망 만족도	2
F. 정책에 대한 요구(5)	◦ 청년여성 정책참여 인식	2
	◦ 청년여성 정책 요구	3

❑ 응답자 인적사항

❍ 응답자 인적사항은 연령, 거주지역, 최종학력, 최종학교 소재지 등에 대해 살펴봄(〈표 Ⅳ-2〉 참조)

- 먼저, 전체 응답자 946명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19-24세 205명

(21.7%), 25-29세 355명(37.5%), 30-34세 386명(40.8%)의 분포를 보임

〈표 Ⅳ-2〉 응답자 인적사항

(단위: 명, %)

구분			전체	
			빈도	비율
전체			946	100.0
연령		19-24세	205	21.7
		25-29세	355	37.5
		30-34세	386	40.8
거주지역[주]	시·군 지역	시 지역	892	94.3
		군 지역	54	5.7
	동/서부 지역	동부 경남	779	82.3
		서부 경남	167	17.7
최종학력		고졸 이하	230	24.3
		대졸(전문대졸)	659	69.6
		대학원 재학 이상	57	6.0
최종학교 소재지		경남지역	555	58.7
		경남 외 지역	391	41.3

주) 경남 18개 시·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지역은 크게 시 지역/ 군 지역, 동부경남과 서부경남으로 구분하여 살펴봄
- 동부경남 :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9개 시·군
- 서부경남 : 진주시, 사천시,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9개 시·군

○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시 지역 892명(94.3%), 군 지역 54명(5.7%)이고, 동부 경남 779명(82.3%), 서부 경남 167명(17.7%)로 나타남

- 2021년 기준 경남에 거주하는 19-34세 여성인구 분포를 살펴보면,[1] 시 지역 91.3%, 군 지역 8.7%의 분포를 보이고, 동부 경남 80.0%, 서부 경남 20.0%의 분포를 보임
- 즉 현재 경남의 청년여성 인구 분포 자체가 시 지역과 동부 경남에 편중되어 있으며, 설문조사 응답자도 이러한 인구 분포를 반영한 결과임

○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고졸 이하 230명(24.3%), 대졸(전문대졸) 659명(69.6%), 대학원 재학 이상 57명(6.0%)의 분포를 보임

- 최종학교 소재지가 경남인 경우는 555명(58.7%), 경남 외 지역인 경우는 391명(41.3%)으로 나타남

1)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KOSIS

○ 이 장에서는 인적사항 외에도 경남지역 정주 의사(있음/없음)과 취·창업 상태(취·창업중/실업/비경제활동 상태)를 포함하여 집단 간 평균 차이에 따른 유의도 검정을 실시함

2) 설문조사 결과

(1) 청년여성 인식 및 의향

□ 삶의 만족도

○ 경남지역 청년여성들은 현재 삶의 만족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5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나의 장래에 대해 긍정적이다'라는 문항의 평균이 3.17점으로 가장 높고, '현재 삶의 질 수준이 높다'가 2.5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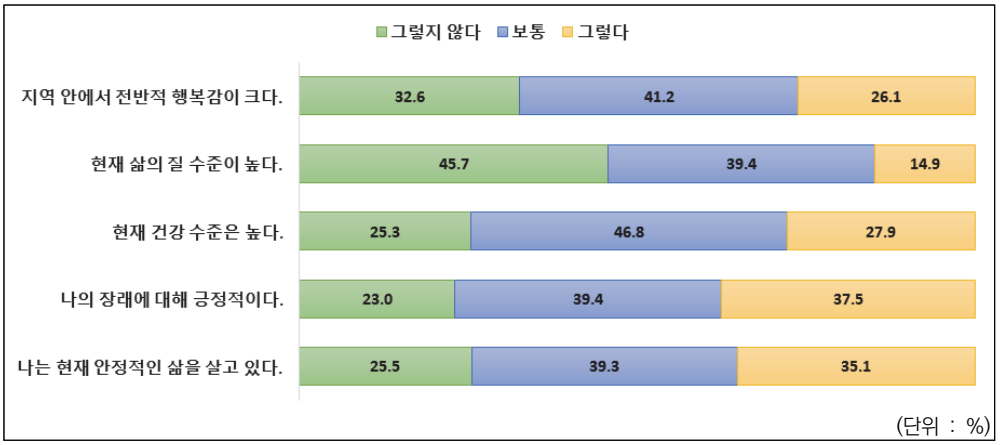
- 문항별 빈도분석 결과, '지역 안에서 전반적 행복감이 크다'는 전체의 26.1%가 긍정적으로 응답했고, '현재 삶의 질 수준이 높다'는 전체의 14.9%, '현재 건강 수준은 높다'는 전체의 27.9%, '나의 장래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전체의 37.5%, '나는 현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전체의 35.1%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표 Ⅳ-3〉 청년여성으로서 삶의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지역 안에서 전반적 행복감이 크다.	N	75	234	390	221	26	946	2.88
	%	7.9	24.7	41.2	23.4	2.7	100.0	(0.946)
현재 삶의 질 수준이 높다.	N	132	300	373	119	22	946	2.58
	%	14.0	31.7	39.4	12.6	2.3	100.0	(0.957)
현재 건강 수준은 높다.	N	70	169	443	217	47	946	3.00
	%	7.4	17.9	46.8	22.9	5.0	100.0	(0.951)
나의 장래에 대해 긍정적이다.	N	42	176	373	288	67	946	3.17
	%	4.4	18.6	39.4	30.4	7.1	100.0	(0.961)
나는 현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N	60	182	372	281	51	946	3.09
	%	6.3	19.2	39.3	29.7	5.4	100.0	(0.976)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5점 만점)를 산출함



[그림 Ⅳ-1] 청년여성으로서 삶의 만족도

○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지역 안에서 전반적 행복감이 크다'는 문항은 연령, 최종학력, 정주 의사,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 취·창업중이거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남

- '현재 삶의 질 수준이 높다'는 문항은 연령, 정주 의사,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 취·창업중이거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남
- '현재 건강 수준은 높다'는 문항은 연령, 최종학력,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남
- '나의 장래에 대해 긍정적이다'는 문항은 연령, 최종학력,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남
- '나는 현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문항은 최종학력, 최종학교 소재지, 정주 의사,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대학원 재학 이상 집단, 최종학교 소재지가 경남 외 지역인 집단,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 취·창업중이거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남

〈표 Ⅳ-4〉 청년여성으로서 삶의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지역 안에서 전반적 행복감이 크다.	현재 삶의 질 수준이 높다.	현재 건강 수준은 높다.	나의 장래에 대해 긍정적이다.	나는 현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전체		946	2.88	2.58	3.00	3.17	3.09
연령	19-24세[a]	205	3.09	2.73	3.33	3.37	3.22
	25-29세[b]	355	2.86	2.53	2.93	3.09	3.04
	30-34세[c]	386	2.80	2.54	2.89	3.14	3.05
	F(사후검정)		6.581** a>b,c	3.494* a>b	15.907*** a>b,c	5.645** a>b,c	2.485
시·군 지역	시 지역	892	2.88	2.59	3.01	3.18	3.09
	군 지역	54	2.85	2.43	2.80	3.07	3.04
	T		0.246	1.188	1.640	0.765	0.377
동/서부 지역	동부 경남	779	2.89	2.60	3.02	3.19	3.09
	서부 경남	167	2.83	2.49	2.92	3.08	3.07
	T		0.848	1.356	1.198	1.385	0.201
최종 학력	고졸 이하[a]	230	2.98	2.65	3.17	3.24	3.14
	대졸(전문대졸)[b]	659	2.83	2.53	2.92	3.10	3.04
	대학원 재학 이상[c]	57	3.07	2.79	3.25	3.72	3.42
	F(사후검정)		3.381* -	2.885	7.577** c>b	12.083*** c>a,b	4.533* c>b
최종학교 소재지	경남 지역	555	2.88	2.59	3.01	3.14	3.03
	경남 외 지역	391	2.89	2.55	3.00	3.22	3.17
	T		-0.201	0.639	0.127	-1.334	-2.273*
정주 의사	있음	672	2.98	2.65	3.02	3.17	3.14
	없음	274	2.65	2.39	2.96	3.17	2.95
	T		4.825***	3.761***	0.798	-0.006	2.761**
취·창업 상태	취·창업중[a]	508	2.91	2.66	2.98	3.19	3.18
	실업(구직중)[b]	162	2.63	2.27	2.85	3.00	2.64
	비경제활동 상태[c]	276	2.99	2.59	3.13	3.23	3.17
	F(사후검정)		7.706*** a,c>b	10.578*** a,c>b	4.881** c>b	3.268* c>b	21.677*** a,c>b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 정주 및 이주 의사

○ 경남지역 청년여성 대상 경남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71.0%가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고, 29.0%는 정주 의사가 없다고 응답함

- 경남지역 정주 의사에 대해 19-24세 중 55.1%, 25-29세 중 70.1%, 30-34세 중 80.3%가 있다고 응답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정주 의사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달리 해석하면 19-24세 중 44.9%, 25-29세 중 29.9%, 30-34세 중 19.7%가 경남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임. 특히 19-24세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경남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가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Ⅳ-5〉 경남지역 정주 의사

(단위: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유의도 검정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주 의사 있음	113	55.1	249	70.1	310	80.3	672	71.0	x^2=41.510***
정주 의사 없음	92	44.9	106	29.9	76	19.7	274	29.0	
합계	205	100.0	355	100.0	386	100.0	946	100.0	

주) * p<0.05, ** p<0.01, *** p<0.001

○ 경남지역에 정주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274명을 대상으로 이주하고 싶은 지역을 질문한 결과, 부산(42.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35.0%), 경기(7.3%), 대전(2.9%)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들은 개별 지역으로 따지면 서울(35.0%)보다 인근 대도시인 부산(42.3%)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광역 단위로 구분하면 부산과 울산을 포함한 부울경 지역에 대한 선호(44.9%)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44.2%)에 대한 선호가 비슷하게 나타남
- 하지만 이주하고 싶은 지역에 대한 선호는 연령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서울에 대한 선호가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산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6〉 (정주 의사 없는 경우) 이주를 고려하는 지역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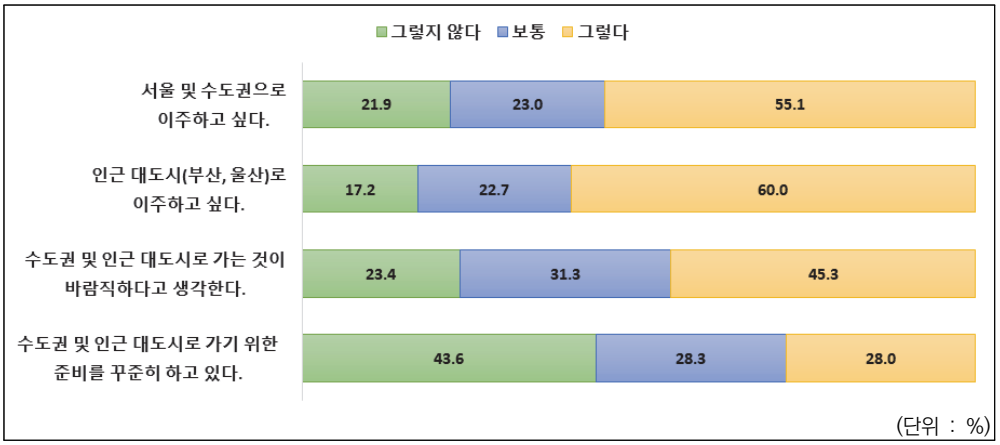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부산	33	35.9	42	39.6	41	53.9	116	42.3
서울	41	44.6	35	33.0	20	26.3	96	35.0
경기	7	7.6	8	7.5	5	6.6	20	7.3
대전	5	5.4	3	2.8	-	-	8	2.9
울산	1	1.1	5	4.7	1	1.3	7	2.6
대구	1	1.1	2	1.9	3	3.9	6	2.2
인천	-	-	4	3.8	1	1.3	5	1.8
세종	1	1.1	1	0.9	2	2.6	4	1.5
해외	2	2.2	2	1.9	-	-	4	1.5
광주	1	1.1	1	0.9	-	-	2	0.7
강원	-	-	1	0.9	1	1.3	2	0.7
전남	-	-	1	0.9	1	1.3	2	0.7
충북	-	-	0	0.0	1	1.3	1	0.4
충남	-	-	1	0.9	-	-	1	0.4
합계	88	100.0	99	100.0	71	100.0	274	100.0

〈표 Ⅳ-7〉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 이주 의사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나는 기회가 된다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싶다.	N	66	141	218	329	192	946	3.47 (1.172)
	%	7.0	14.9	23.0	34.8	20.3	100.0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인근 대도시(부산, 울산)로 이주하고 싶다.	N	53	110	215	359	209	946	3.59 (1.119)
	%	5.6	11.6	22.7	37.9	22.1	100.0	
내 미래를 위해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N	83	138	296	270	159	946	3.30 (1.169)
	%	8.8	14.6	31.3	28.5	16.8	100.0	
나는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다.	N	179	234	268	187	78	946	2.74 (1.210)
	%	18.9	24.7	28.3	19.8	8.2	100.0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2]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 이주 계획

❍ 경남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서울 및 수도권, 또는 인근 대도시로 이주할 계획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의 55.1%는 기회가 된다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했고, 전체의 60.0%는 부산 및 울산 등 인근 대도시로 이주하고 싶다고 응답함

- 또한 전체의 45.3%는 미래를 위해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지만,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 이직(이사)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28.0%만 그렇다고 응답함

❍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결과, '나는 기회가 된다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문항은 연령, 최종학력, 최종학교 소재지, 정주 의사,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최종학교 소재지가 경남 외 지역인 집단, 정주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집단, 실업(구직중)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남

-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인근 대도시(부산, 울산)로 이주하고 싶다'는 문항은 연령, 최종학력, 최종학교 소재지, 정주 의사,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최종학교 소재지가 경남 외 지역인 집단, 정주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남

- '내 미래를 위해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은 연령, 최종학교 소재지, 정주 의사,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최종학교 소재지가 경남 외 지역인 집단, 정주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집단, 실업(구직중)인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남

- '나는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문항은 연령, 최종학교 소재지, 정주의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최종학교 소재지가 경남 외 지역인 집단, 정주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남

〈표 Ⅳ-8〉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 이주 계획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기회가 된다면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인근 대도시(부산, 울산)로 이주하고 싶다.	내 미래를 위해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다.
전체		946	3.47	3.59	3.30	2.74
연령	19-24세[a]	205	3.86	3.97	3.72	2.86
	25-29세[b]	355	3.43	3.54	3.25	2.83
	30-34세[c]	386	3.29	3.45	3.13	2.59
	F(사후검정)		16.674*** a〉b,c	15.536*** a〉b,c	18.284*** a〉b,c	5.199** a〉c
시·군 지역	시 지역	892	3.46	3.59	3.29	2.72
	군 지역	54	3.54	3.65	3.46	2.94
	T		-0.464	-0.372	-1.054	-1.299
동/서부 지역	동부 경남	779	3.46	3.59	3.29	2.73
	서부 경남	167	3.47	3.62	3.35	2.78
	T		-0.024	-0.378	-0.647	-0.490
최종 학력	고졸 이하[a]	230	3.66	3.76	3.45	3.76
	대졸(전문대졸)[b]	659	3.39	3.54	3.25	3.54
	대학원 재학 이상[c]	57	3.58	3.49	3.33	3.49
	F(사후검정)		4.987** -	3.491* -	2.580	0.149
최종학교 소재지	경남지역	555	3.38	3.53	3.21	2.64
	경남 외 지역	391	3.59	3.69	3.43	2.87
	T		-2.665**	-2.163*	-2.985**	-2.899**
정주 의사	있음	672	3.18	3.40	2.97	2.39
	없음	274	4.17	4.07	4.12	3.59
	T		-14.186***	-9.492***	-17.131***	-15.533***
취창업 상태	취·창업중[a]	508	3.34	3.51	3.18	2.68
	실업(구직중)[b]	162	3.62	3.73	3.44	2.91
	비경제활동 상태[c]	276	3.61	3.67	3.43	2.74
	F(사후검정)		6.686** b,c〉a	3.199* -	5.565** b〉a	2.274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 혼인상태 및 결혼·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응답자 전체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미(비)혼 713명(75.4%), 기혼(유배우자) 223명(23.6%), 이혼/별거/사별 10명(1.1%)의 분포를 보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기혼 및 이혼/별거/사별의 비율이 높아짐

〈표 Ⅳ-9〉 혼인상태

(단위: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미(비)혼	200	97.6	300	84.5	213	55.2	713	75.4
기혼(유배우자)	4	2.0	51	14.4	168	43.5	223	23.6
이혼/별거/사별(무배우자)	1	0.5	4	1.1	5	1.3	10	1.1
합계	205	100.0	355	100.0	386	100.0	946	100.0

○ 현재 미(비)혼 상태인 응답자 713명을 대상으로 결혼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388명(54.4%)는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325명(45.6%)는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388명을 대상으로 결혼 후 경남 거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257명은 있다고 응답하고, 131명은 없다고 응답함

〈표 Ⅳ-10〉 (미·비혼 대상) 결혼 의향

(단위: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결혼 의향 없음		91	45.5	130	43.3	104	48.8	325	45.6
결혼 의향 있음		109	54.5	170	56.7	109	51.2	388	54.4
	결혼 후 경남 거주 의향 있음	47	43.1	120	70.6	90	82.6	257	66.2
	결혼 후 경남 거주 의향 없음	62	56.9	50	29.4	19	17.4	131	33.8

○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32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일과 육아 병행 부담'이라는 응답이 28.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결혼비용 및 주거비용 부족'(21.5%), '고용상태 불안정'(16.9%), '생활비 부담'(9.5%), '결혼 시기 문제'(4.9%)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응답으로는 ‘관심 없어서’, ‘나에게 집중하고 싶어서’, ‘혼자가 좋아서’, ‘자유롭고 싶어서’라는 의견과 함께 ‘결혼제도에 반대해서’, ‘가부장제 문화에 일조하고 싶지 않아서’, ‘결혼할 필요를 못 느껴서’ 등과 같이 결혼 자체에 부정적인 응답도 많음

〈표 Ⅳ-11〉 결혼 의향 없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과 육아 병행 부담	27	29.7	35	26.9	31	29.8	93	28.6
결혼비용 및 주거비용 부족	17	18.7	28	21.5	25	24.0	70	21.5
고용상태 불안정	15	16.5	23	17.7	17	16.3	55	16.9
생활비 부담	12	13.2	12	9.2	7	6.7	31	9.5
결혼 시기 문제	4	4.4	7	5.4	5	4.8	16	4.9
기타	16	17.6	25	19.2	19	18.3	60	18.5
합계	91	100.0	130	100.0	104	100.0	325	100.0

❍ 결혼 후 경남 거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131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일자리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38.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문화적 환경 때문’(24.4%), ‘주거환경 때문’(13.0%), ‘보육·양육 환경 때문’(9.9%) 순으로 나타남

〈표 Ⅳ-12〉 결혼 후 경남 거주 의향 없는 이유

(단위: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자리 때문	21	33.9	21	42.0	8	42.1	50	38.2
문화적 환경 때문	20	32.3	9	18.0	3	15.8	32	24.4
주거환경 때문	5	8.1	7	14.0	5	26.3	17	13.0
보육·양육 환경 때문	6	9.7	6	12.0	1	5.3	13	9.9
교육환경 때문	7	11.3	1	2.0	2	10.5	10	7.6
보건·의료 환경 때문	2	3.2	-	-	-	-	2	1.5
교통 환경 때문	1	1.6	-	-	-	-	1	0.8
기타	-	-	6	12.0	-	-	6	4.6
합계	62	100.0	50	100.0	19	100.0	131	100.0

- 결혼 후 경남 거주 의향이 없는 이유 중 기타 의견으로는 '향후 배우자의 직장 문제'라는 응답이 5명, '너무 오래 살아서'라는 응답이 1명 있었음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결혼 및 자녀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경제적 문제'라는 응답이 34.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력단절 및 고용에 대한 불안'(27.1%), '자녀출생, 육아, 돌봄의 부담'(25.7%) 순으로 나타남

〈표 Ⅳ-13〉 결혼 및 자녀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단위: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제적 문제(결혼, 생활비용 등)	71	34.6	135	38.0	124	32.1	330	34.9
경력단절 및 고용에 대한 불안	65	31.7	104	29.3	87	22.5	256	27.1
자녀출생, 육아, 돌봄의 부담	42	20.5	74	20.8	127	32.9	243	25.7
내 집 마련의 부담	12	5.9	30	8.5	37	9.6	79	8.4
사회적 성공에 대한 부담	6	2.9	3	0.8	3	0.8	12	1.3
기타	9	4.4	9	2.5	8	2.1	26	2.7
합계	205	100.0	355	100.0	386	100.0	946	100.0

- 연령대에 따라 30-34세 집단의 경우 '경제적 문제'(32.1%)보다 '자녀출생, 육아, 돌봄의 부담'(32.9%)이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성평등 및 성차별' 등이 있었음

(2) 일자리

□ 취·창업 현황

○ 전체 응답자의 취·창업 상태를 살펴보면, 946명 중 508명(53.7%)은 취·창업중, 162명(17.1%)은 실업(구직중), 276명(29.2%)은 비경제활동 상태라고 응답함

- 취·창업자 508명 중 취업자는 489명, 창업한 경우는 19명이 포함됨

- 현재 비경제활동 상태라고 응답한 276명 중에는 교육기관 재학 115명, 육아 및 가사 73명, 쉬는 중 88명이 포함됨
- 취·창업 상태는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현재 일하고 있다는 응답은 19-24세 중 16.6%, 25-29세 중 62.0%, 30-34세 중 65.8%로 차이를 보임. 19-24세 집단의 경우 절반 정도인 47.8%가 교육기관 재학중이라고 응답함

〈표 Ⅳ-14〉 취·창업 상태

(단위: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취·창업중		34	16.6	220	62.0	254	65.8	508	53.7
	취업중	32	15.6	213	60.0	244	63.2	489	51.7
	창업중	2	1.0	7	2.0	10	2.6	19	2.0
실업(구직중)		38	18.5	79	22.3	45	11.7	162	17.1
비경제활동 상태		133	64.9	56	15.8	87	22.5	276	29.2
	교육기관 재학	98	47.8	11	3.1	6	1.6	115	12.2
	육아 및 가사	4	2.0	16	4.5	53	13.7	73	7.7
	쉬는 중	31	15.1	29	8.2	28	7.3	88	9.3
합계		205	100.0	355	100.0	386	100.0	946	100.0

❍ 현재 취업중이라고 응답한 489명을 대상으로 현재 다니는 직장 유형을 질문한 결과,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라는 응답이 70.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공공기관(18.0%), 비영리기관 및 단체(8.2%) 순으로 나타남

〈표 Ⅳ-15〉 (취업자 대상) 직장 유형

(단위: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19	59.4	151	70.9	176	72.1	346	70.8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포함)	7	21.9	40	18.8	41	16.8	88	18.0
비영리기관 및 단체	3	9.4	16	7.5	21	8.6	40	8.2
특정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음	1	3.1	1	0.5	2	0.8	4	0.8
기타	2	6.3	5	2.3	4	1.6	11	2.2
합계	32	100.0	213	100.0	244	100.0	489	100.0

○ 취업자의 현재 종사 업종은 제조업(사무종사직)이 2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의료·보건업(18.6%), 교육서비스업(13.9%) 순으로 나타남

- 취업자가 종사하는 업종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19-24세 취업자는 의료·보건업(31.3%), 교육서비스업(15.6%), 유통서비스업(12.5%) 순으로, 25-29세 취업자는 의료·보건업(23.5%), 제조업 사무종사직(19.7%), 교육서비스업(13.1%) 순으로, 30-34세는 제조업 사무종사직(26.6%), 교육서비스업(14.3%), 의료·보건업(12.7%)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제조업(사무종사직) 비율은 높아지고, 의료·보건업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남

〈표 Ⅳ-16〉 (취업자 대상) 업종

(단위: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제조업(사무종사직)	1	3.1	42	19.7	65	26.6	108	22.1
의료·보건업	10	31.3	50	23.5	31	12.7	91	18.6
교육서비스업	5	15.6	28	13.1	35	14.3	68	13.9
사회복지서비스업	2	6.3	19	8.9	17	7.0	38	7.8
기타 개인서비스업	2	6.3	13	6.1	19	7.8	34	7.0
유통서비스업	4	12.5	12	5.6	15	6.1	31	6.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부문 민간위탁	1	3.1	12	5.6	14	5.7	27	5.5
제조업(생산직)	-	-	6	2.8	11	4.5	17	3.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	3.1	5	2.3	9	3.7	15	3.1
금융 및 보험업	-	-	8	3.8	6	2.5	14	2.9
숙박 및 음식점업	4	12.5	5	2.3	4	1.6	13	2.7
부동산 및 사업시설관리	-	-	3	1.4	5	2.0	8	1.6
기타	2	6.3	10	4.7	13	5.3	25	5.1
합계	32	100.0	213	100.0	244	100.0	489	100.0

○ 취업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76.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간제(13.3%), 무기계약직(3.5%), 독립적 계약노동(2.9%) 순으로 나타남. 독립적 계약노동에는 특수고용 근로,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등이 포함됨

- 정규직 비율은 19-24세 53.1%, 25-29세 79.8%, 30-34세 77.5%로 연

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특히 19-24세는 기간제 비율이 28.1%로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남

〈표 Ⅳ-17〉 (취업자 대상) 고용형태

(단위: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규직	17	53.1	170	79.8	189	77.5	376	76.9
기간제	9	28.1	28	13.1	28	11.5	65	13.3
무기계약직	-	-	9	4.2	8	3.3	17	3.5
독립적 계약노동	2	6.3	3	1.4	9	3.7	14	2.9
파트타이머(단시간 노동자)	4	12.5	-	-	5	2.0	9	1.8
파견용역직	-	-	3	1.4	5	2.0	8	1.6
합계	32	100.0	213	100.0	244	100.0	489	100.0

○ 취업자의 월평균 소득(세후 기준)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55.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만원-200만원 미만(32.3%), 300만원-500만원 미만(8.4%) 순으로 나타남

- 19-24세 집단에서는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가장 많고, 25-29세와 30-34세는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령 집단에 따라 임금수준도 다른 것으로 나타남

〈표 Ⅳ-18〉 (취업자 대상) 월평균 소득(세후 기준)

(단위: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00만원 미만	6	18.8	3	1.4	6	2.5	15	3.1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14	43.8	74	34.7	70	28.7	158	32.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12	37.5	113	53.1	147	60.2	272	55.6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	-	21	9.9	20	8.2	41	8.4
500만원 이상	-	-	2	0.9	-	-	2	0.4
소득 없음	-	-	-	-	1	0.4	1	0.2
합계	32	100.0	213	100.0	244	100.0	489	100.0

❑ 취업자 고용 만족도

○ 현재 취업중인 489명을 대상으로 고용 만족도를 8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평균 3.2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평균 업무시간 만족도(3.26점), 고용 안정성 보장 만족도(3.21점) 순으로 나타남. 만족도가 낮은 문항은 급여(소득) 수준(2.52점), 향후 자기계발 및 발전 도움 정도(2.90점)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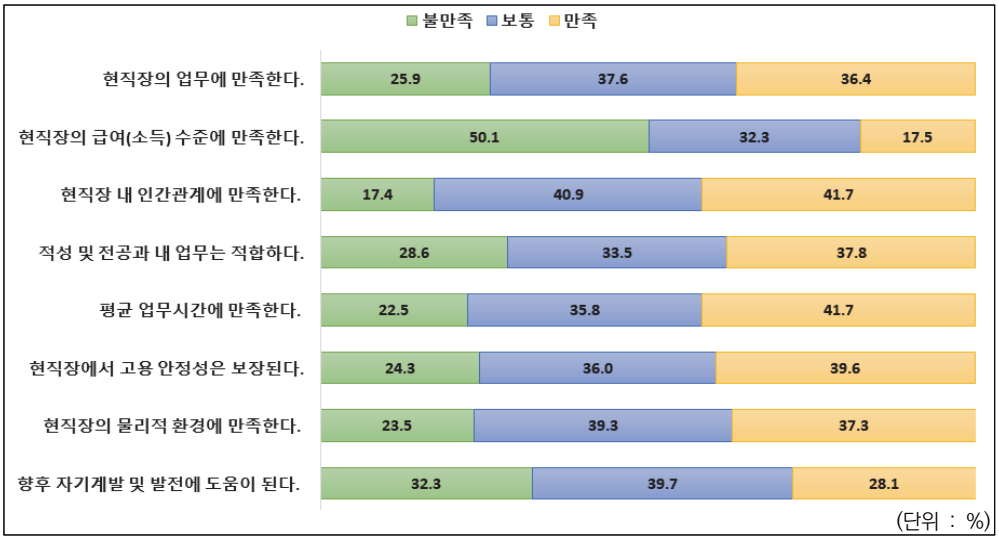
- 빈도분석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은 직장 내 인간관계와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41.7%로 가장 많고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급여(소득) 수준(50.1%)으로 나타남

〈표 Ⅳ-19〉 취업자 고용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평균 (표준편차)
현직장의 업무에 만족한다.	N	32	95	184	143	35	489	3.11 (1.012)
	%	6.5	19.4	37.6	29.2	7.2	100.0	
현직장의 급여(소득) 수준에 만족한다.	N	84	161	158	77	9	489	2.52 (1.010)
	%	17.2	32.9	32.3	15.7	1.8	100.0	
현직장 내 인간관계에 만족한다.	N	25	60	200	155	49	489	3.29 (0.981)
	%	5.1	12.3	40.9	31.7	10.0	100.0	
적성 및 전공과 내 업무는 적합하다.	N	55	85	164	131	54	489	3.09 (1.152)
	%	11.2	17.4	33.5	26.8	11.0	100.0	
평균 업무시간에 만족한다.	N	27	83	175	144	60	489	3.26 (1.054)
	%	5.5	17.0	35.8	29.4	12.3	100.0	
현직장에서의 고용 안정성은 보장된다.	N	44	75	176	120	74	489	3.21 (1.149)
	%	9.0	15.3	36.0	24.5	15.1	100.0	
현직장에서의 물리적 환경 (안전성, 위생 등)에 만족한다.	N	30	85	192	126	56	489	3.19 (1.049)
	%	6.1	17.4	39.3	25.8	11.5	100.0	
현직장은 향후 자기계발 및 발전에 도움이 된다.	N	62	96	194	103	34	489	2.90 (1.088)
	%	12.7	19.6	39.7	21.1	7.0	100.0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3] 취업자 고용 만족도

〈표 Ⅳ-20〉 취업자 고용 만족도(1)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현직장의 업무에 만족한다.	현직장의 급여(소득)수준에 만족한다.	현직장 내 인간관계에 만족한다.	적성 및 전공과 내 업무는 적합하다.
전체		489	3.11	2.52	3.29	3.09
연령	19-24세[a]	32	3.31	2.94	3.31	3.25
	25-29세[b]	213	3.04	2.46	3.34	3.02
	30-34세[c]	244	3.14	2.52	3.25	3.13
	F(사후검정)		1.252 -	3.134* a>b,c	0.464 -	0.870 -
시·군 지역	시 지역	469	469	3.11	2.52	3.29
	군 지역	20	20	3.05	2.45	3.25
	T		0.272	0.323	0.197	2.753**
동/서부 지역	동부 경남	419	3.09	2.51	3.27	3.11
	서부 경남	70	3.24	2.57	3.41	2.94
	T		-1.183	-0.447	-1.124	1.154
최종 학력	고졸 이하[a]	56	3.20	2.70	3.27	2.95
	대졸(전문대졸)[b]	401	3.08	2.49	3.30	3.08
	대학원 재학 이상[c]	32	3.31	2.66	3.28	3.41
	F(사후검정)		0.995	1.370	0.023	1.648
최종학교 소재지	경남지역	278	3.08	2.47	3.32	3.16
	경남 외 지역	211	3.15	2.58	3.25	3.00
	T		-0.694	-1.173	0.810	1.586
정주 의사	있음	376	3.14	2.53	3.31	3.13
	없음	113	3.00	2.50	3.23	2.97
	T		1.324	0.204	0.770	1.226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표 Ⅳ-21〉 취업자 고용 만족도(2)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평균 업무시간에 만족한다.	현직장에서의 고용 안정성은 보장된다.	현직장에서의 물리적 환경에 만족한다.	현직장은 향후 자기계발 및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전체		489	3.26	3.21	3.19	2.90
연령	19-24세[a]	32	3.19	3.19	3.47	3.41
	25-29세[b]	213	3.17	3.18	3.20	2.87
	30-34세[c]	244	3.34	3.25	3.15	2.86
	F(사후검정)		1.573	0.179	1.336	3.762* a)b,c
시·군 지역	시 지역	469	3.27	3.21	3.18	2.90
	군 지역	20	3.10	3.40	3.45	2.85
	T		0.692	-0.736	-1.131	0.209
동/서부 지역	동부 경남	419	3.25	3.20	3.18	2.87
	서부 경남	70	3.34	3.33	3.24	3.06
	T		-0.713	-0.895	-0.399	-1.308
최종 학력	고졸 이하[a]	56	3.11	3.34	3.16	3.07
	대졸(전문대졸)[b]	401	3.26	3.20	3.17	2.86
	대학원 재학 이상[c]	32	3.50	3.22	3.44	3.06
	F(사후검정)		1.422	0.376	0.955	1.286
최종학교 소재지	경남지역	278	3.24	3.26	3.19	2.91
	경남 외 지역	211	3.28	3.16	3.18	2.89
	T		-0.450	0.920	0.100	0.239
정주 의사	있음	376	3.29	3.27	3.22	2.89
	없음	113	3.15	3.03	3.09	2.93
	T		1.258	1.991*	1.175	-0.327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 고용 만족도 각 문항에 대해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결과, 먼저 '현직장의 업무에 만족한다'는 문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 '현직장의 급여(소득) 수준에 만족한다'는 문항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의 평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게 나타남
- '적성 및 전공과 내 업무는 적합하다'는 문항은 시·군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시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군 지역 거주자보다 높게 나타남
- '현직장에서의 고용 안정성은 보장된다'는 문항은 정주 의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

- '현직장은 향후 자기계발 및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의 평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 외 다른 문항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음

□ 경남지역 일자리 평가

○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경남지역 일자리에 대한 평가를 8개 문항으로 나눠서 질문한 결과, 대부분 평균 3점 이하로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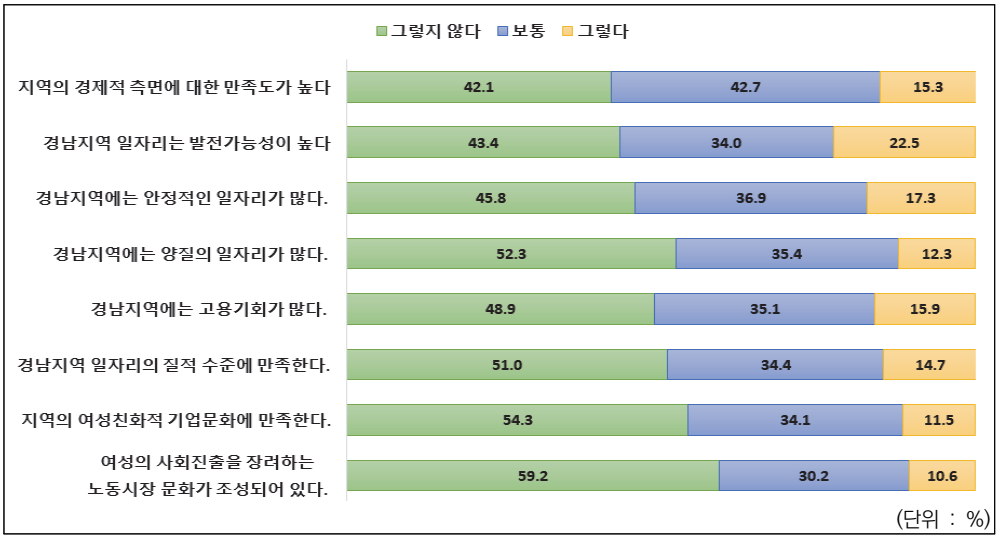
- 8개 문항 중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경남지역 일자리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2.70점)이고,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노동시장 문화가 조성되어 있다'(2.30점)로 나타남

〈표 Ⅳ-22〉 경남지역 일자리 평가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N	99	299	404	133	11	946	2.64
	%	10.5	31.6	42.7	14.1	1.2	100.0	(0.890)
경남지역 일자리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	N	106	305	322	192	21	946	2.70
	%	11.2	32.2	34.0	20.3	2.2	100.0	(0.987)
경남지역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다.	N	140	293	349	140	24	946	2.59
	%	14.8	31.0	36.9	14.8	2.5	100.0	(0.993)
경남지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	N	166	329	335	98	18	946	2.44
	%	17.5	34.8	35.4	10.4	1.9	100.0	(0.959)
경남지역에는 고용기회가 많다.	N	148	315	332	126	25	946	2.54
	%	15.6	33.3	35.1	13.3	2.6	100.0	(0.994)
경남지역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만족한다.	N	170	312	325	123	16	946	2.47
	%	18.0	33.0	34.4	13.0	1.7	100.0	(0.986)
지역의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에 만족한다.	N	180	334	323	94	15	946	2.40
	%	19.0	35.3	34.1	9.9	1.6	100.0	(0.956)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노동시장 문화가 조성되어 있다.	N	212	348	286	91	9	946	2.30
	%	22.4	36.8	30.2	9.6	1.0	100.0	(0.953)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4] 경남지역 일자리 평가

❍ 앞서 살펴본 고용 만족도와 관련한 문항은 대부분 3점 이상 높은 평균을 보인 데 비해 경남지역 일자리에 대한 평가는 평균 점수가 낮은 것은, 고용 만족도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경남지역 일자리 평가는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즉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응답자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응답자보다 고용이나 일자리 전반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빈도분석 결과, 부정적 의견이 많은 문항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노동시장 문화가 조성되어 있다'(59.2%), '지역의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에 만족한다'(54.3%), '경남지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52.3%), '경남지역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만족한다'(51.0%) 순으로 나타남

❍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문항은 연령, 동/서부 지역, 최종학력, 정주 의사,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동부 경남 거주자,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 일자리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문항은 동/서부 지역, 정주 의사,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동부 경남 거주자,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 취·창업중인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다'는 문항은 시·군 지역, 동/서부 지역, 최종학력, 정주 의사,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시 지역과 동부 경남 거주자,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 취·창업중과 비경제활동 상태인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23〉 경남지역 일자리 인식도 평가(1)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경남지역 일자리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	경남지역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다.	경남지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
전체		946	2.64	2.70	2.59	2.44
연령	19-24세[a]	205	2.80	2.70	2.72	2.50
	25-29세[b]	355	2.61	2.64	2.51	2.37
	30-34세[c]	386	2.58	2.75	2.61	2.47
	F(사후검정)		4.238* a〉b,c	1.184	2.975	1.499
시·군 지역	시 지역	892	2.65	2.72	2.61	2.46
	군 지역	54	2.48	2.46	2.24	2.19
	T		1.336	1.826	2.693**	2.307*
동/서부 지역	동부 경남	779	2.68	2.76	2.63	2.49
	서부 경남	167	2.46	2.43	2.43	2.24
	T		2.947**	3.921***	2.326*	3.033**
최종 학력	고졸 이하[a]	230	2.77	2.78	2.75	2.60
	대졸(전문대졸)[b]	659	2.59	2.66	2.54	2.39
	대학원 재학 이상[c]	57	2.67	2.81	2.61	2.40
	F(사후검정)		3.509* -	1.603	3.871* -	4.339* -
최종학교 소재지	경남지역	555	2.64	2.73	2.63	2.49
	경남 외 지역	391	2.64	2.65	2.54	2.37
	T		-0.026	1.207	1.239	1.943
정주 의사	있음	672	2.73	2.81	2.68	2.55
	없음	274	2.42	2.43	2.37	2.18
	T		4.803***	5.382***	4.482***	5.658***
취·창업 상태	취·창업중[a]	508	2.65	2.79	2.65	2.48
	실업(구직중)[b]	162	2.48	2.52	2.32	2.22
	비경제활동 상태[c]	276	2.71	2.65	2.65	2.51
	F(사후검정)		3.694* c〉b	5.151** a〉b	7.431** a,c〉b	5.303** a,c〉b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표 Ⅳ-24〉 경남지역 일자리 인식도 평가(2)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경남지역에는 고용기회가 많다.	경남지역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만족한다.	지역의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에 만족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을 장려하는 노동시장 문화가 조성되어 있다.
전체		946	2.54	2.47	2.40	2.30
연령	19-24세[a]	205	2.67	2.65	2.59	2.47
	25-29세[b]	355	2.46	2.43	2.34	2.22
	30-34세[c]	386	2.55	2.42	2.35	2.28
	F(사후검정)		3.122* a>b	4.114* a>b,c	5.379** a>b,c	4.768** a>b,c
시·군 지역	시 지역	892	2.56	2.48	2.40	2.30
	군 지역	54	2.28	2.44	2.39	2.28
	T		2.002*	0.232	0.068	0.170
동/서부 지역	동부 경남	779	2.60	2.49	2.41	2.32
	서부 경남	167	2.26	2.40	2.34	2.20
	T		4.292***	1.061	0.925	1.429
최종 학력	고졸 이하[a]	230	2.72	2.65	2.56	2.44
	대졸(전문대졸)[b]	659	2.48	2.42	2.34	2.24
	대학원 재학 이상[c]	57	2.51	2.46	2.42	2.35
	F(사후검정)		4.894** -	4.774** -	4.666* -	3.835* -
최종학교 소재지	경남지역	555	2.58	2.52	2.44	2.32
	경남 외 지역	391	2.48	2.42	2.33	2.26
	T		1.610	1.514	1.756	0.968
정주 의사	있음	672	2.60	2.57	2.49	2.37
	없음	274	2.38	2.25	2.17	2.12
	T		3.117**	4.485***	4.690***	3.889***
취·창업 상태	취·창업중[a]	508	2.59	2.57	2.45	2.37
	실업(구직중)[b]	162	2.27	2.09	2.15	2.09
	비경제활동 상태[c]	276	2.60	2.53	2.45	2.28
	F(사후검정)		7.581** a,c>b	15.311*** a,c>b	6.388** a,c>b	5.465** a>b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 '경남지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는 문항은 시군 지역, 동/서부 지역, 최종학력, 정주 의사,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시 지역과 동부 경남 거주자,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 취·창업중과 비경제활동 상태인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에는 고용기회가 많다'는 문항은 연령, 시군 지역, 동/서부 지역,

최종학력, 정주 의사,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시 지역과 동부 경남 거주자,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 취·창업중과 비경제활동 상태인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만족한다'는 문항은 연령, 최종학력, 정주 의사,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 취·창업중과 비경제활동 상태인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의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에 만족한다'는 문항은 연령, 최종학력, 정주 의사,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 취·창업중과 비경제활동 상태인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노동시장 문화가 조성되어 있다'는 문항은 연령, 최종학력, 정주 의사,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 취·창업중인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주거

□ 경남 거주기간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경남지역 거주기간을 질문한 결과 전체의 87.0%가 5년 이상이라고 응답함

〈표 Ⅳ-25〉 경남지역 거주기간

(단위: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년 미만	5	2.4	4	1.1	11	2.8	20	2.1
1년 이상-3년 미만	8	3.9	14	3.9	28	7.3	50	5.3
3년 이상-5년 미만	6	2.9	20	5.6	27	7.0	53	5.6
5년 이상	186	90.7	317	89.3	320	82.9	823	87.0
합계	205	100.0	355	100.0	386	100.0	946	100.0

- 거주기간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19-24세의 90.7%, 25-29세의

89.3%, 30-34세의 82.9%는 5년 이상 경남지역에 거주했다고 응답함. 연령대가 높을수록 경남 거주기간이 짧아 다른 지역에서 경남으로 이주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환경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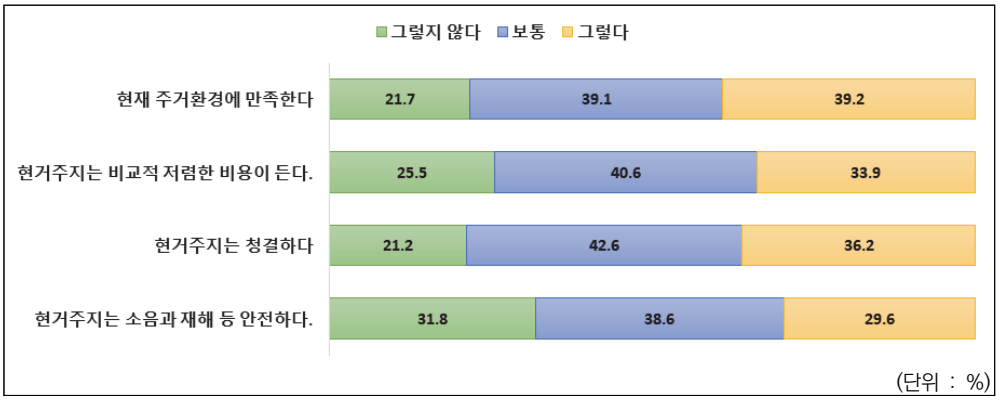
○ 경남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거환경을 질문한 결과,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한다'는 문항이 평균 3.22점으로 가장 높고, '소음과 재해 등 안전하다'는 문항이 평균 2.9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Ⅳ-26〉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한다.	N	35	170	370	295	76	946	3.22
	%	3.7	18.0	39.1	31.2	8.0	100.0	(0.956)
현 거주지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이 든다.	N	62	179	384	261	60	946	3.08
	%	6.6	18.9	40.6	27.6	6.3	100.0	(0.988)
현 거주지는 청결하다.	N	37	164	403	274	68	946	3.18
	%	3.9	17.3	42.6	29.0	7.2	100.0	(0.935)
현 거주지는 소음과 재해 등 안전하다.	N	77	224	365	232	48	946	2.95
	%	8.1	23.7	38.6	24.5	5.1	100.0	(1.004)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5] 주거환경 만족도

- 빈도분석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 대해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

은 것으로 나타남.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은 것은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한다'(39.2%)이고, 부정적 응답이 가장 높은 것은 '소음과 재해 등 안전하다'(31.8%)로 나타남

〈표 Ⅳ-27〉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한다.	현거주지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이 든다.	현거주지는 청결하다.	현거주지는 소음과 재해 등 안전하다.
전체		946	3.22	3.08	3.18	2.95
연령	19-24세[a]	205	3.46	3.24	3.38	3.17
	25-29세[b]	355	3.23	3.15	3.16	2.96
	30-34세[c]	386	3.08	2.94	3.10	2.82
	F(사후검정)		10.572*** a〉b,c	7.734*** a,b〉c	6.346** a〉b,c	8.030*** a〉b,c
시·군 지역	시 지역	892	3.23	3.07	3.19	2.96
	군 지역	54	3.00	3.30	3.02	2.70
	T		1.734	-1.447	1.322	1.836
동/서부 지역	동부 경남	779	3.24	3.05	3.19	2.94
	서부 경남	167	3.11	3.23	3.13	2.98
	T		1.655	-2.183*	0.762	-0.410
최종 학력	고졸 이하[a]	230	3.40	3.27	3.26	3.02
	대졸(전문대졸)[b]	659	3.16	3.01	3.14	2.90
	대학원 재학 이상[c]	57	3.12	3.14	3.40	3.16
	F(사후검정)		5.826** -	5.959** -	3.262* -	2.537
최종학교 소재지	경남지역	555	3.25	3.06	3.18	2.95
	경남 외 지역	391	3.17	3.12	3.18	2.94
	T		1.351	-0.853	-0.064	0.153
정주 의사	있음	672	3.31	3.08	3.23	2.97
	없음	274	2.99	3.08	3.07	2.89
	T		4.697***	-0.030	2.445*	1.179
취창업 상태	취·창업중[a]	508	3.19	3.01	3.17	2.92
	실업(구직중)[b]	162	3.15	3.13	3.17	2.96
	비경제활동 상태[c]	276	3.31	3.19	3.21	2.99
	F(사후검정)		1.832	3.161* -	0.227	0.528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결과,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한다'는 문항은 연령,

최종학력, 정주 의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거주지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이 든다'는 문항은 연령, 동/서부 지역, 최종학력,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와 25-29세 집단, 서부 경남 거주자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거주지는 청결하다'는 문항은 연령, 최종학력, 정주 의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거주지는 소음과 재해 등 안전하다'는 문항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의 평균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지역 편리성

○ 경남 청년여성들에게 현재 주거하는 곳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대형유통시설 및 상업시설 이용 편리성,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공공기관 이용 편리성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모두 평균 3점 이상으로 긍정적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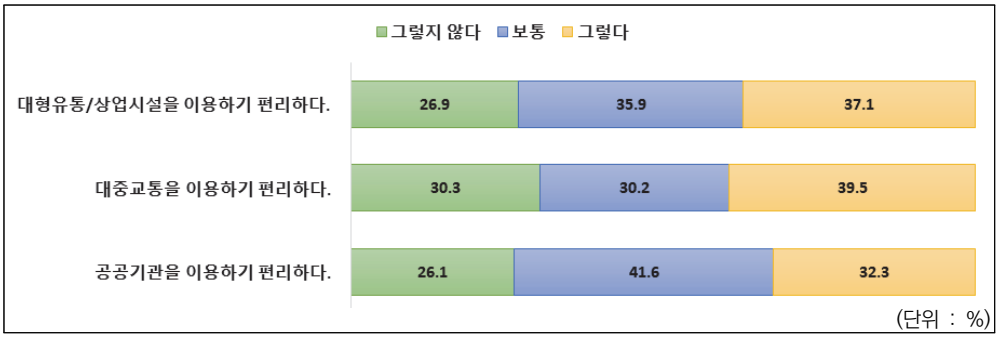
- 빈도분석 결과, 대형유통시설 및 상업시설 이용 편리성은 긍정의 응답이 37.1%로 가장 많고,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은 긍정의 응답이 39.5%로 가장 많고, 공공기관 이용 편리성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41.6%로 가장 많음

〈표 Ⅳ-28〉 주거지역 편리성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현거주지는 대형유통시설 및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N	54	201	340	281	70	946	3.12 (1.010)
	%	5.7	21.2	35.9	29.7	7.4	100.0	
현거주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N	81	205	286	266	108	946	3.12 (1.133)
	%	8.6	21.7	30.2	28.1	11.4	100.0	
현거주지는 공공기관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N	69	178	394	243	62	946	3.05 (0.999)
	%	7.3	18.8	41.6	25.7	6.6	100.0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6] 주거지역 편리성

〈표 Ⅳ-29〉 주거지역 편리성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현재 주거지역은 대형유통시설 및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현재 주거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현재 주거지역은 공공기관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전체		946	3.12	3.12	3.05
연령	19-24세[a]	205	3.18	3.16	3.09
	25-29세[b]	355	3.08	3.12	3.07
	30-34세[c]	386	3.13	3.11	3.02
	F(사후검정)		0.654	0.125	0.450
시·군 지역	시 지역	892	3.17	3.18	3.08
	군 지역	54	2.33	2.19	2.57
	T		5.987***	6.385***	3.660***
동/서부 지역	동부 경남	779	3.16	3.17	3.09
	서부 경남	167	2.92	2.90	2.90
	T		2.861**	2.742**	2.225*
최종 학력	고졸 이하[a]	230	3.16	3.23	3.13
	대졸(전문대졸)[b]	659	3.10	3.07	3.02
	대학원 재학 이상[c]	57	3.23	3.26	3.12
	F(사후검정)		0.667	2.160	1.277
최종학교 소재지	경남지역	555	3.19	3.22	3.10
	경남 외 지역	391	3.02	2.98	2.99
	T		2.443*	3.312**	1.660
정주 의사	있음	672	3.22	3.22	3.14
	없음	274	2.87	2.88	2.85
	T		4.841***	4.167***	4.109***
취창업 상태	취·창업중[a]	508	3.14	3.14	3.08
	실업(구직중)[b]	162	3.00	2.94	2.89
	비경제활동 상태[c]	276	3.14	3.19	3.10
	F(사후검정)		1.343	2.549	2.700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결과, ‘현거주지는 대형유통시설 및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문항은 시군 지역, 동/서부 지역, 최종학교 소재지, 정주 의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시 지역과 동부 경남 거주자, 최종학교 소재지가 경남지역인 집단,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남

- ‘현거주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문항은 시군 지역, 동/서부 지역, 최종학교 소재지, 정주 의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시 지역과 동부 경남 거주자, 최종학교 소재지가 경남지역인 집단,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남
- ‘현거주지는 공공기관을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문항은 시군 지역, 동/서부 지역, 정주 의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시 지역과 동부 경남 거주자,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남

□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조사한 결과,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45.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자가용/오토바이/자전거(36.5%), 도보(14.4%), 택시(3.6%) 기타 순으로 나타남

-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연령대별로 차이가 컸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중교통 또는 도보 이용률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가용/오토바이/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30〉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단위: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도보	48	23.4	46	13.0	42	10.9	136	14.4
대중교통	130	63.4	165	46.5	133	34.5	428	45.2
택시	5	2.4	14	3.9	15	3.9	34	3.6
자가용/오토바이/자전거	21	10.2	128	36.1	196	50.8	345	36.5
기타	1	0.5	2	0.6	-	-	3	0.3
합계	205	100.0	355	100.0	386	100.0	946	100.0

□ 청년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 청년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매입/보증/전세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1.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안전한 주거환경'(23.7%), '월세/관리비 지원'(15.8%) 순으로 나타남

- '매입/보증/전세금 지원'과 '월세/관리비 지원'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7.4%를 차지해 청년여성들은 주거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31〉 청년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단위: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매입/보증/전세금 지원	53	25.9	113	31.8	133	34.5	299	31.6
안전한 주거환경	51	24.9	81	22.8	92	23.8	224	23.7
월세/관리비 지원	47	22.9	59	16.6	43	11.1	149	15.8
공공임대/소형평수 공급	25	12.2	61	17.2	58	15.0	144	15.2
문화시설 확충	15	7.3	20	5.6	30	7.8	65	6.9
대중교통	12	5.9	11	3.1	18	4.7	41	4.3
주차문제	2	1.0	8	2.3	7	1.8	17	1.8
기타	-	-	2	0.6	5	1.3	7	0.7
합계	205	100.0	355	100.0	386	100.0	946	100.0

(4) 교육 및 복지·문화

□ 교육 현황

○ 전체 응답자의 최종학력 분포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7%, 대학(전문대) 재학 중 13.6%, 전문대 졸업 19.2%, 대학 졸업 50.4%, 대학원 재학 중 2.1%, 대학원 졸업 3.9%의 비율을 보임

- 연령대별로 19-24세 중에서는 대학(전문대) 재학 중이 52.7%로 가장 많고, 25-29세는 대학 졸업이 62.5%로 가장 많고, 30-34세 또한 대학 졸업이 56.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본 연구에서는 최종학력 분포를 고졸 이하, 대졸(전문대졸), 대학원 재학

이상의 세 집단으로 묶어서 분류함. 전체 중 고졸 이하는 24.3%, 대졸(전문대졸) 69.6%, 대학원 재학 이상 6.0%를 차지함

〈표 Ⅳ-32〉 최종학력

(단위: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고졸 이하	142	69.3	44	12.4	44	11.4	230	24.3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	16.6	29	8.2	38	9.8	101	10.7
대학(전문대) 재학 중	108	52.7	15	4.2	6	1.6	129	13.6
대졸(전문대졸)	55	26.8	296	83.3	308	79.8	659	69.6
전문대 졸업	18	8.8	74	20.8	90	23.3	182	19.2
대학 졸업	37	18.0	222	62.5	218	56.5	477	50.4
대학원 재학 이상	8	3.9	15	4.2	34	8.8	57	6.0
대학원 재학 중	7	3.4	5	1.4	8	2.1	20	2.1
대학원 졸업	1	0.5	10	2.8	26	6.7	37	3.9
합계	205	100.0	355	100.0	386	100.0	946	100.0

○ 최종학력을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이라고 응답한 696명을 대상으로 전공계열을 질문한 결과(무응답 1명), 인문·사회 계열이라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33〉 (졸업자 대상) 전공계열

(단위: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문·사회 계열	20	35.7	142	46.4	181	54.4	343	49.4
자연 계열	11	19.6	42	13.7	40	12.0	93	13.4
의학 계열	7	12.5	45	14.7	25	7.5	77	11.1
공학 계열	6	10.7	34	11.1	34	10.2	74	10.6
예체능 계열	6	10.7	23	7.5	25	7.5	54	7.8
교육(사범) 계열	6	10.7	20	6.5	28	8.4	54	7.8
합계	56	100.0	306	100.0	333	100.0	695	100.0

- 다음으로 자연 계열(13.4%), 의학 계열(11.1%), 공학 계열(10.6%), 예체능 계열(7.8%), 교육(사범) 계열(7.8%)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대가 높을수록 인문·사회 계열의 비율이 높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연 계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대상 최종학교 소재지를 질문한 결과, 경남지역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8.7%이고 경남 외 지역이라는 응답이 41.3%로 나타남

- 경남 외 지역에서는 부산이라는 응답이 22.1%로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이는 다시 말하면 현재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여성은 경남 또는 부산 소재 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80.8%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함

〈표 Ⅳ-34〉 최종학교 소재지

(단위: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남 지역		136	66.3	219	61.7	200	51.8	555	58.7
경남 외 지역		69	33.7	136	38.3	186	48.2	391	41.3
	부산	37	18.0	73	20.6	99	25.6	209	22.1
	서울	6	2.9	9	2.5	21	5.4	36	3.8
	대구	1	0.5	12	3.4	20	5.2	33	3.5
	경북	7	3.4	10	2.8	10	2.6	27	2.9
	경기	1	0.5	10	2.8	7	1.8	18	1.9
	울산	3	1.5	6	1.7	5	1.3	14	1.5
	대전	2	1.0	4	1.1	4	1.0	10	1.1
	전남	2	1.0	2	0.6	5	1.3	9	1.0
	해외	4	2.0	2	0.6	2	0.5	8	0.8
	충북	1	0.5	3	0.8	3	0.8	7	0.7
	인천	1	0.5	1	0.3	4	1.0	6	0.6
	충남	2	1.0	-	-	2	0.5	4	0.4
	광주	-	-	2	0.6	1	0.3	3	0.3
	강원	1	0.5	1	0.3	1	0.3	3	0.3
	세종	1	0.5	-	-	1	0.3	2	0.2
	전북	-	-	1	0.3	1	0.3	2	0.2
합계		205	100.0	355	100.0	386	100.0	946	100.0

□ 교육환경 평가

○ 경남 청년여성들은 경남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 '수준 높은 초·중·고등학

교 교육 제공'에 대해서는 평균 2.93점, '수준 높은 대학·평생 교육 이수 가능'에 대해서는 평균 2.55점으로 보통보다 낮게 평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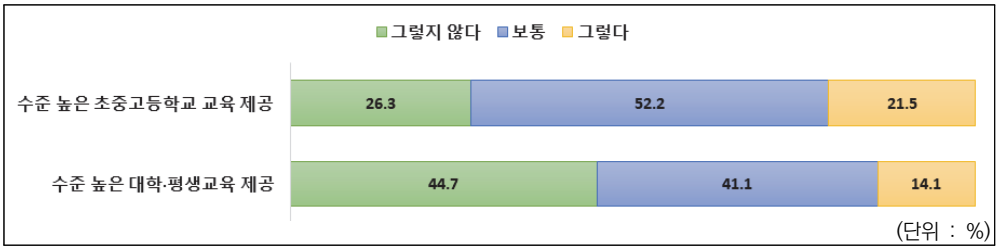
- 빈도분석 결과, '수준 높은 초·중·고등학교 교육 제공'은 보통이 52.2%로 가장 많았지만, '수준 높은 대학·평생 교육 이수 가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Ⅳ-35〉 경남지역 교육환경 평가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경남지역은 수준 높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한다.	N	54	195	494	170	33	946	2.93 (0.866)
	%	5.7	20.6	52.2	18.0	3.5	100.0	
경남지역에서는 수준 높은 대학·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다.	N	162	261	389	112	22	946	2.55 (0.984)
	%	17.1	27.6	41.1	11.8	2.3	100.0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7] 경남지역 교육환경 평가

❍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결과, '경남지역은 수준 높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한다'는 문항은 시군 지역, 정주 의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시 지역 거주자,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에서는 수준 높은 대학·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문항은 시군 지역, 최종학교 소재지,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시 지역 거주자, 최종학교 소재지가 경남지역인 집단,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36〉 경남지역 교육환경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경남지역은 수준 높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한다.	경남지역에서는 수준 높은 대학·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전체		946	2.93	2.55
연령	19-24세[a]	205	3.00	2.65
	25-29세[b]	355	2.91	2.52
	30-34세[c]	386	2.91	2.51
	F(사후검정)		1.001	1.572
시·군 지역	시 지역	892	2.95	2.57
	군 지역	54	2.63	2.15
	T		2.293*	3.078**
동/서부 지역	동부 경남	779	2.94	2.52
	서부 경남	167	2.89	2.68
	T		0.608	-1.886
최종 학력	고졸 이하[a]	230	2.97	2.63
	대졸(전문대졸)[b]	659	2.92	2.52
	대학원 재학 이상[c]	57	2.93	2.51
	F(사후검정)		0.269	1.110
최종학교 소재지	경남지역	555	2.96	2.67
	경남 외 지역	391	2.88	2.37
	T		1.473	4.735***
정주 의사	있음	672	3.01	2.61
	없음	274	2.73	2.39
	T		4.504***	3.129**
취·창업 상태	취·창업중[a]	508	2.93	2.51
	실업(구직중)[b]	162	2.91	2.54
	비경제활동 상태[c]	276	2.93	2.62
	F(사후검정)		0.033	1.011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 교육 및 복지·문화 만족도

○ 경남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복지·문화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만족도(2.58점), 의료복지 인프라 측면의 만족도(2.75점), 교육 인프라 측면의 만족도(2.60점) 모두 평균 3점 이하로 부정적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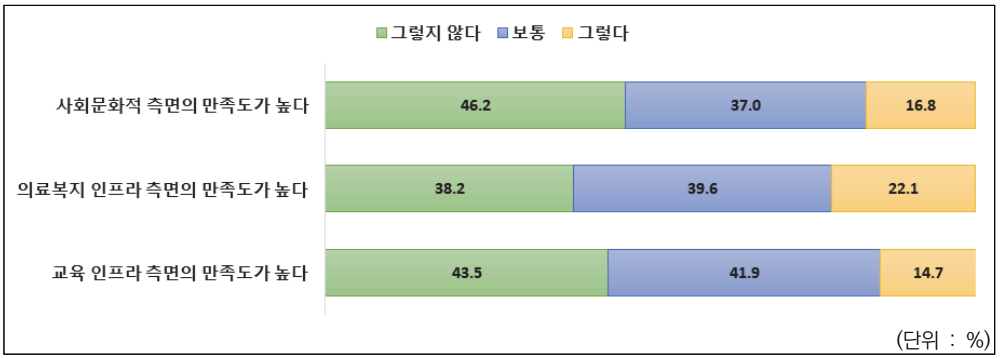
- 빈도분석 결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만족도, 의료복지 인프라 측면의 만족도, 교육 인프라 측면의 만족도 세 항목 모두 부정적 응답이 각각 46.2%, 38.2%,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Ⅳ-37〉 교육 및 복지·문화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사회·문화적 측면의 만족도가 높다	N	135	302	350	146	13	946	2.58 (0.960)
	%	14.3	31.9	37.0	15.4	1.4	100.0	
의료복지 인프라 측면의 만족도가 높다	N	110	252	375	186	23	946	2.75 (0.981)
	%	11.6	26.6	39.6	19.7	2.4	100.0	
교육 인프라 측면의 만족도가 높다	N	118	293	396	125	14	946	2.60 (0.918)
	%	12.5	31.0	41.9	13.2	1.5	100.0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8] 교육 및 복지·문화 만족도

❍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사회·문화적 측면의 만족도가 높다'는 문항은 연령, 동/서부 지역, 정주 의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동부 경남 거주자,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의료복지 인프라 측면의 만족도가 높다'는 문항은 연령, 시군 지역, 동/서부 지역, 최종학력, 정주 의사,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시 지역과 동부 경남 거주자,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 인프라 측면의 만족도가 높다'는 문항은 연령, 시군 지역, 최종학교 소재지, 정주 의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시 지역 거주자, 최종학교 소재지가 경남지역인 집단,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38〉 교육 및 복지·문화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사회·문화적 측면의 만족도가 높다	의료복지 인프라 측면의 만족도가 높다	교육 인프라 측면의 만족도가 높다
전체		946	2.58	2.75	2.60
연령	19-24세[a]	205	2.71	3.00	2.78
	25-29세[b]	355	2.58	2.72	2.54
	30-34세[c]	386	2.50	2.64	2.57
	F(사후검정)		3.069* a〉c	9.471*** a〉b,c	4.842** a〉b,c
시·군 지역	시 지역	892	2.58	2.78	2.62
	군 지역	54	2.52	2.22	2.26
	T		0.462	4.077***	2.840**
동/서부 지역	동부 경남	779	2.64	2.78	2.61
	서부 경남	167	2.29	2.58	2.56
	T		4.247***	2.408*	0.708
최종 학력	고졸 이하[a]	230	2.66	2.94	2.71
	대졸(전문대졸)[b]	659	2.55	2.67	2.56
	대학원 재학 이상[c]	57	2.58	2.82	2.63
	F(사후검정)		1.183 -	6.870** -	2.183
최종학교 소재지	경남지역	555	2.57	2.79	2.66
	경남 외 지역	391	2.59	2.68	2.52
	T		-0.298	1.806	2.422*
정주 의사	있음	672	2.65	2.80	2.68
	없음	274	2.39	2.62	2.40
	T		3.846***	2.601**	4.342***
취창업 상태	취·창업중[a]	508	2.60	2.76	2.58
	실업(구직중)[b]	162	2.46	2.58	2.54
	비경제활동 상태[c]	276	2.61	2.82	2.68
	F(사후검정)		1.399	3.080* c〉b	1.453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

○ 경남 청년여성들은 경남지역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해, '공연·영화 등 문화생활 충분히 영위'(2.58점), '운동·스포츠 시설 충분'(2.71점), '취미·여가활동 소모임 활발'(2.53점) 등 모든 문항에 대해 평균 3점 이하로 보통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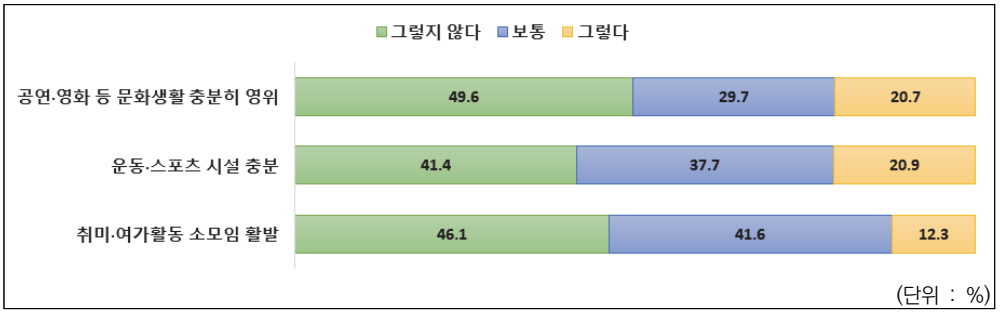
- 빈도분석 결과, ‘공연·영화 등 문화생활 충분히 영위’(49.6%), ‘운동·스포츠 시설 충분’(41.4%), ‘취미·여가활동 소모임 활발’(46.1%) 등 모든 문항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39〉 경남지역 문화 및 여가활동 평가

(단위: 명, %, 점)

구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전체	평균 (표준편차)
공연·영화 등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N	153	316	281	165	31	946	2.58 (1.055)
	%	16.2	33.4	29.7	17.4	3.3	100.0	
운동·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N	109	283	357	168	29	946	2.71 (0.988)
	%	11.5	29.9	37.7	17.8	3.1	100.0	
취미·여가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N	134	302	394	103	13	946	2.53 (0.913)
	%	14.2	31.9	41.6	10.9	1.4	100.0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9] 경남지역 문화 및 여가활동 평가

❍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결과, 경남지역 문화 및 여가활동에 관한 세 문항은 모두 시군 지역, 동/서부 지역, 정주 의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시 지역과 동부 경남 거주자,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의 평균이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문화 및 여가활동 여부는 주거지역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정주 의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Ⅳ-40〉 경남지역 문화 및 여가활동 평가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공연·영화 등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운동·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취미·여가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946	2.58	2.71	2.53
연령	19-24세[a]	205	2.67	2.79	2.57
	25-29세[b]	355	2.57	2.72	2.52
	30-34세[c]	386	2.55	2.66	2.53
	F(사후검정)		0.898	1.220	0.240
시군 지역	시 지역	892	2.61	2.73	2.56
	군 지역	54	2.13	2.33	2.13
	T		3.264**	2.531*	3.369**
동/서부 지역	동부 경남	779	2.64	2.76	2.58
	서부 경남	167	2.32	2.46	2.33
	T		3.752***	3.599***	3.206**
최종 학력	고졸 이하[a]	230	2.65	2.79	2.59
	대졸(전문대졸)[b]	659	2.56	2.67	2.51
	대학원 재학 이상[c]	57	2.58	2.88	2.54
	F(사후검정)		0.591	2.122	0.541
최종학교 소재지	경남지역	555	2.61	2.74	2.57
	경남 외 지역	391	2.55	2.66	2.48
	T		0.797	1.158	1.573
정주 의사	있음	672	2.68	2.79	2.61
	없음	274	2.34	2.52	2.34
	T		4.641***	3.824***	4.351***
취창업 상태	취·창업중[a]	508	2.61	2.71	2.55
	실업(구직중)[b]	162	2.41	2.59	2.41
	비경제활동 상태[c]	276	2.63	2.77	2.57
	F(사후검정)		2.746	1.628	1.725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 경남 청년여성들은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 가장 필요한 여가시설은 공연/전시장(40.2%)이라고 응답했고, 다음으로 문화센터(16.7%), 공원(11.3%), 스포츠센터(10.0) 순으로 응답함

- 기타 의견으로는 대형 도서관, 서점 및 복합상권, 백화점, 쇼핑센터, 캠핑장, 여성 전용시설 등이 있었음

〈표 Ⅳ-41〉 현거주지에 가장 필요한 여가시설

(단위: 명, %)

구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공연/전시장	85	41.5	147	41.4	148	38.3	380	40.2
문화센터	26	12.7	51	14.4	81	21.0	158	16.7
공원	22	10.7	39	11.0	46	11.9	107	11.3
스포츠센터	21	10.2	40	11.3	34	8.8	95	10.0
영화관	19	9.3	24	6.8	29	7.5	72	7.6
등산/산책로	13	6.3	22	6.2	26	6.7	61	6.4
도서관	11	5.4	11	3.1	17	4.4	39	4.1
경기장(축구/야구 등)	5	2.4	16	4.5	4	1.0	25	2.6
기타	3	1.5	5	1.4	1	0.3	9	1.0
합계	205	100.0	355	100.0	386	100.0	946	100.0

❍ 여가문화 활동을 즐기려는 청년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3순위까지 응답하게 한 결과, 1순위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다양한 문화예술/취미생활 프로그램 개설'(44.9%)이고, 1, 2, 3순위를 모두 합해서 응답이 가장 많은 것도 '다양한 문화예술/취미생활 프로그램 개설'(29.2%)로 나타남

〈표 Ⅳ-42〉 여가문화 활동을 즐기려는 청년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3순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다양한 문화예술/ 취미생활 프로그램 개설	425	44.9	222	24.5	132	16.1	779	29.2
청년여성의 여가활동비용 지원 및 보조	229	24.2	257	28.4	180	22.0	666	24.9
생활권 중심의 청년활동공간 조성	183	19.3	234	25.9	186	22.7	603	22.6
취미/여가생활 정보공유 사이트 및 어플 개발	44	4.7	105	11.6	191	23.3	340	12.7
지역 소모임/동호회 육성 및 지원	64	6.8	86	9.5	131	16.0	281	10.5
기타	1	0.1	1	0.1	-	-	2	0.1
합계	946	100.0	905	100.0	820	100.0	2,671	100.0

- 1, 2, 3순위를 모두 합해서 다음으로 응답이 많은 것은 '청년여성의 여가 활동 비용 지원 및 보조'(24.9%), '생활권 중심의 청년활동공간 조성'(22.6%) 등 순으로 나타남

(5) 사회적 관계망

□ 사회적 관계망 인식

○ 경남 청년여성들은 가족, 친구, 단체와 같은 사회적 관계망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족,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망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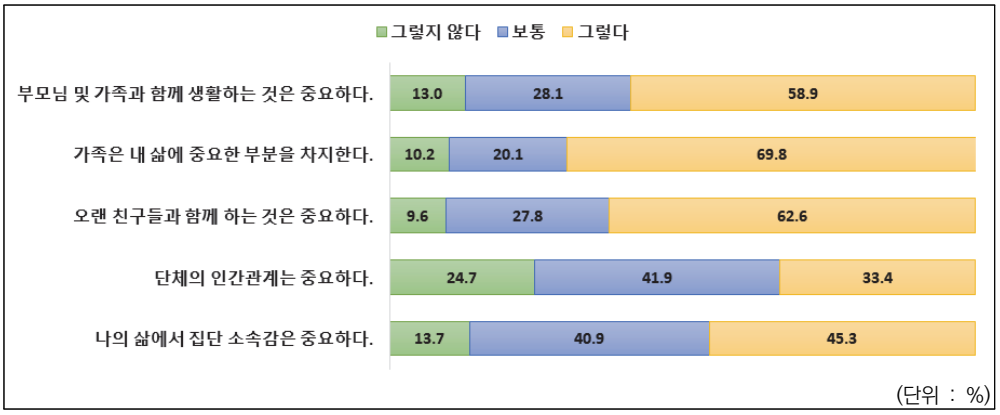
- 각 문항당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가족은 내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가 3.89점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오랜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하다'(3.73점), '부모님 및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중요하다'(3.61점) 순으로 나타남

〈표 Ⅳ-43〉 사회적 관계망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부모님 및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중요하다.	N	31	92	266	382	175	946	3.61 (1.000)
	%	3.3	9.7	28.1	40.4	18.5	100.0	
가족은 내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N	17	79	190	366	294	946	3.89 (0.998)
	%	1.8	8.4	20.1	38.7	31.1	100.0	
오랜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하다.	N	17	74	263	385	207	946	3.73 (0.949)
	%	1.8	7.8	27.8	40.7	21.9	100.0	
단체(동아리, 동호회, 종교, 등)의 인간관계는 중요하다.	N	40	194	396	245	71	946	3.12 (0.959)
	%	4.2	20.5	41.9	25.9	7.5	100.0	
나의 삶에서 집단 소속감은 중요하다.	N	20	110	387	337	92	946	3.39 (0.891)
	%	2.1	11.6	40.9	35.6	9.7	100.0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10] 사회적 관계망 인식

- 빈도분석 결과 대부분의 문항이 긍정의 응답이 가장 많은 가운데, '가족은 내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그렇다는 응답이 전체의 69.8%로 가장 많고, '오랜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하다'(62.6%), '부모님 및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중요하다'(58.9%)의 순으로 나타남

❍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결과, '부모님 및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문항은 연령, 정주 의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정주 의사가 있는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

- '가족은 내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문항은 연령, 최종학력, 정주 의사,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정주 의사가 있는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
- '오랜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문항은 연령, 시군 지역, 최종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시 지역 거주자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
- '단체(동아리, 동호회, 종교, 등)의 인간관계는 중요하다'는 문항은 연령, 최종학력,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
- '나의 삶에서 집단 소속감은 중요하다'는 문항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

〈표 Ⅳ-44〉 사회적 관계망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부모님 및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족은 내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오랜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하다.	단체의 인간관계는 중요하다.	나의 삶에서 집단 소속감은 중요하다.
전체		946	3.61	3.89	3.73	3.12	3.39
연령	19-24세[a]	205	3.78	4.14	4.05	3.40	3.67
	25-29세[b]	355	3.54	3.80	3.71	3.06	3.35
	30-34세[c]	386	3.59	3.84	3.58	3.02	3.28
	F(사후검정)		3.775* a>b	8.676*** a>b,c	16.870*** a>b,c	11.218*** a>b,c	13.920*** a>b,c
시·군 지역	시 지역	892	3.62	3.90	3.75	3.12	3.40
	군 지역	54	3.52	3.76	3.41	3.07	3.26
	T		0.700	0.984	2.585*	0.358	1.130
동/서부 지역	동부 경남	779	3.62	3.89	3.75	3.13	3.40
	서부 경남	167	3.56	3.89	3.62	3.05	3.37
	T		0.770	0.040	1.708	1.062	0.430
최종 학력	고졸 이하[a]	230	3.74	4.01	3.87	3.29	3.48
	대졸(전문대졸)[b]	659	3.57	3.84	3.68	3.05	3.35
	대학원 재학 이상[c]	57	3.60	4.02	3.79	3.30	3.54
	F(사후검정)		2.701	3.065* -	3.659* -	6.530** -	2.685
최종학교 소재지	경남지역	555	3.63	3.89	3.76	3.12	3.40
	경남 외 지역	391	3.59	3.88	3.69	3.13	3.38
	T		0.587	0.172	1.226	-0.158	0.248
정주 의사	있음	672	3.70	3.97	3.76	3.09	3.37
	없음	274	3.40	3.70	3.65	3.19	3.45
	T		4.224***	3.488**	1.549	-1.441	-1.171
취·창업 상태	취·창업중[a]	508	3.57	3.83	3.70	3.07	3.39
	실업(구직중)[b]	162	3.54	3.84	3.75	3.02	3.40
	비경제활동 상태[c]	276	3.72	4.03	3.78	3.26	3.40
	F(사후검정)		2.454	3.863* -	0.726	4.422* c>b	0.014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 사회적 관계망 만족도

○ 경남 청년여성들은 사회적 관계망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응답함. '사회적 관계망 수준에 만

족한다'는 문항의 평균은 2.77점, '인간관계·친숙함·호감 측면의 만족도가 높다'는 문항의 평균은 3.02점으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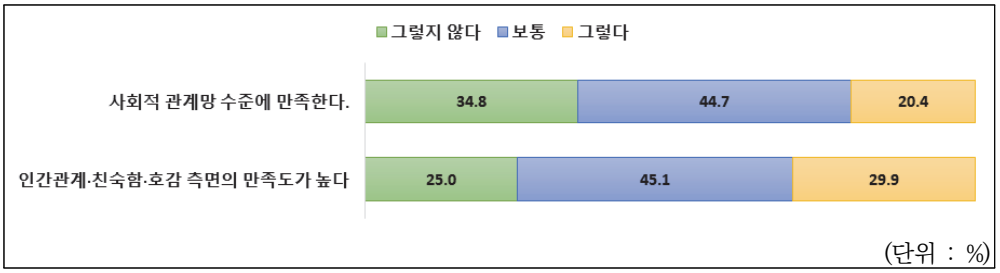
- 빈도분석 결과, 두 문항 모두 보통이라는 응답이 각각 44.7%, 45.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45〉 사회적 관계망 만족도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관계망 수준에 만족한다.	N	95	235	423	175	18	946	2.77 (0.928)
	%	10.0	24.8	44.7	18.5	1.9	100.0	
인간관계·친숙함·호감 측면의 만족도가 높다	N	65	171	427	244	39	946	3.02 (0.937)
	%	6.9	18.1	45.1	25.8	4.1	100.0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11] 사회적 관계망 만족도

❍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사회적 관계망 수준에 만족한다'는 문항은 연령, 동/서부 지역, 최종학력, 최종학교 소재지,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동부 경남 거주자, 최종학교 소재지가 경남지역인 집단, 정주 의사가 있는 집단, 취·창업중이거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

- '인간관계·친숙함·호감 측면의 만족도가 높다'는 문항의 경우, 연령, 최종학력, 정주 의사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정주 의사가 있는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

〈표 Ⅳ-46〉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사회적 관계망 수준에 만족한다.	인간관계·친숙함·호감 측면의 만족도가 높다
전체		946	2.77	3.02
연령	19-24세[a]	205	2.98	3.23
	25-29세[b]	355	2.71	3.01
	30-34세[c]	386	2.72	2.92
	F(사후검정)		6.271** a〉b,c	7.476** a〉b,c
시군 지역	시 지역	892	2.78	3.03
	군 지역	54	2.59	2.87
	T		1.479	1.024
동/서부 지역	동부 경남	779	2.81	3.05
	서부 경남	167	2.60	2.90
	T		2.520*	1.795
최종 학력	고졸 이하[a]	230	2.94	3.13
	대졸(전문대졸)[b]	659	2.70	2.97
	대학원 재학 이상[c]	57	2.91	3.19
	F(사후검정)		6.497** -	3.533* -
최종학교 소재지	경남지역	555	2.83	3.07
	경남 외 지역	391	2.69	2.96
	T		2.354*	1.811
정주 의사	있음	672	2.84	3.08
	없음	274	2.62	2.89
	T		3.258**	2.675**
취창업 상태	취·창업중[a]	508	2.81	3.04
	실업(구직중)[b]	162	2.55	2.91
	비경제활동 상태[c]	276	2.84	3.05
	F(사후검정)		5.880** a,c〉b	1.314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6) 정책에 대한 요구

☐ 청년여성 정책참여에 대한 인식

❍ 경남 청년여성들은 지역에서의 자아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참여 보장 정도에 대해 각각 평균 2.59점, 2.76점으로 보통 이하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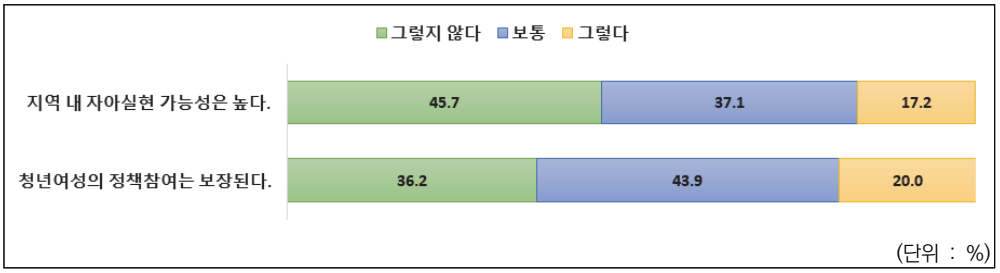
- 빈도분석 결과, ‘지역 내 자아실현 가능성은 높다’는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고, ‘청년여성의 정책참여는 보장된다’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3.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47〉 청년여성 정책참여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평균 (표준편차)
지역 내 자아실현 가능성은 높다.	N	135	297	351	148	15	946	2.59 (0.968)
	%	14.3	31.4	37.1	15.6	1.6	100.0	
청년여성의 정책참여는 보장된다.	N	98	244	415	161	28	946	2.76 (0.952)
	%	10.4	25.8	43.9	17.0	3.0	100.0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그림 Ⅳ-12] 청년여성 정책참여에 대한 인식

❍ 집단 간 평균 차이 분석 결과, ‘지역 내 자아실현 가능성은 높다’는 문항은 연령, 최종학력, 정주 의사, 취·창업 상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정주 의사가 있는 집단, 취·창업중이거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

- ‘청년여성의 정책참여는 보장된다’는 문항의 경우, 연령, 최종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19-24세 집단, 고졸 이하 집단의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남

〈표 Ⅳ-48〉 청년여성 정책참여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5점 만점)	
			지역 내 자아실현 가능성은 높다.	청년여성의 정책참여는 보장된다.
전체		946	2.59	2.76
연령	19-24세[a]	205	2.73	3.04
	25-29세[b]	355	2.52	2.69
	30-34세[c]	386	2.58	2.68
	F(사후검정)		3.217* a>b	11.557*** a>b,c
시·군 지역	시 지역	892	2.60	2.76
	군 지역	54	2.48	2.78
	T		0.839	-0.107
동/서부 지역	동부 경남	779	2.59	2.79
	서부 경남	167	2.56	2.65
	T		0.381	1.761
최종 학력	고졸 이하[a]	230	2.75	2.98
	대졸(전문대졸)[b]	659	2.52	2.69
	대학원 재학 이상[c]	57	2.70	2.75
	F(사후검정)		5.283** -	8.241*** a>b
최종학교 소재지	경남지역	555	2.62	2.79
	경남 외 지역	391	2.54	2.73
	T		1.312	0.890
정주 의사	있음	672	2.68	2.79
	없음	274	2.36	2.70
	T		4.590***	1.194
취·창업 상태	취·창업중[a]	508	2.66	2.77
	실업(구직중)[b]	162	2.28	2.64
	비경제활동 상태[c]	276	2.64	2.84
	F(사후검정)		9.927*** a,c>b	2.286

주1)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환산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함
주2) * p<0.05, ** p<0.01, *** p<0.001

□ 청년여성 정책 요구

○ 청년여성을 위한 정주여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3순위까지 응답하게 한 결과, 1순위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일자리 환경'(52.4%)이고, 1, 2, 3순위를 모두 합해서 응답이 가장 많은 것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환경'(26.7%)으로 나타남

- 1, 2, 3순위를 모두 합산해서 ‘일자리 환경’ 다음으로 응답이 많은 것은 ‘주택문제’(16.1%), ‘문화(여가생활) 환경’(13.6%), ‘보육·양육 환경’(11.5%) 등 순으로 나타남

〈표 Ⅳ-49〉 청년여성 정주여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분야(3순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자리 환경	496	52.4	160	17.1	87	9.6	743	26.7
주택문제	156	16.5	199	21.3	92	10.2	447	16.1
문화(여가생활) 환경	59	6.2	150	16.0	169	18.7	378	13.6
보육·양육 환경	91	9.6	108	11.5	121	13.4	320	11.5
안전 환경	50	5.3	77	8.2	79	8.7	206	7.4
생활편의서비스 환경	18	1.9	61	6.5	114	12.6	193	6.9
보건·의료서비스 환경	23	2.4	67	7.2	89	9.9	179	6.4
교통 환경	35	3.7	58	6.2	73	8.1	166	6.0
교육환경(평생교육, 직업교육훈련)	16	1.7	50	5.3	65	7.2	131	4.7
자연환경	2	0.2	6	0.6	14	1.6	22	0.8
합계	946	100.0	936	100.0	903	100.0	2,785	100.0

❍ 청년여성을 위한 정주여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분야(1+2+3순위 합산)를 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 환경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남

- 다만 19-24세 집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문화(여가생활), 안전, 생활편의서비스, 교통’ 분야의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25-29세와 30-34세 집단은 보육·양육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또한 주택문제, 보육·양육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문화(여가생활 환경), 안전 환경, 생활편의서비스 환경, 교통 환경에 대한 개선 요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진다는 특징 나타남

〈표 Ⅳ-50〉 청년여성 정주여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분야 (연령별 비교)

(단위: %)

구분	(1+2+3)순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일자리 환경	28.0	26.5	26.1	26.7
주택문제	12.3	16.4	17.7	16.1
문화(여가생활) 환경	14.9	13.5	12.9	13.6
보육양육 환경	5.6	11.4	14.7	11.5
안전 환경	11.1	7.5	5.3	7.4
생활편의서비스 환경	8.5	7.2	5.8	6.9
보건·의료서비스 환경	6.4	6.8	6.1	6.4
교통 환경	8.0	5.4	5.4	6.0
교육환경(평생교육, 직업교육훈련)	4.3	4.3	5.3	4.7
자연환경	0.8	1.0	0.6	0.8
합계	100.0	100.0	100.0	100.0

○ 경남지역으로 청년여성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3순위까지 응답하게 한 결과, 1순위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관내 기업의 일자리 확대'(52.0%) 정책이고, 1, 2, 3순위를 모두 합산해서 응답이 가장 많은 것도 '관내 기업의 일자리 확대'(24.8%)로 나타남

- 1, 2, 3순위를 모두 합산해서 '관내 기업의 일자리 확대' 정책 다음으로 응답이 많은 것은 '주거비용 부담 완화'(22.6%), '쇼핑, 공원 등 근린생활시설 지원'(13.5%),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공공돌봄서비스 강화'(10.1%) 정책 순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으로 청년여성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1+2+3순위 합산)을 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관내 기업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동일하게 나타남

- 다만 19-24세 집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대중교통의 편리성 강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30-34세 집단은 근린생활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근린생활시설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공공돌봄서비스 강화에 대한 요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대중교통의 편리성 강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요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진다는 특징이 나타남

〈표 Ⅳ-51〉 청년여성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 (3순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관내 기업의 일자리 확대	492	52.0	115	12.4	78	8.8	685	24.8
주거비용 부담 완화	194	20.5	293	31.5	138	15.5	625	22.6
근린생활시설(쇼핑, 공원) 지원	65	6.9	140	15.0	167	18.8	372	13.5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60	6.3	92	9.9	126	14.2	278	10.1
대중교통의 편리성 강화	49	5.2	85	9.1	107	12.0	241	8.7
문화프로그램 지원	28	3.0	80	8.6	104	11.7	212	7.7
의료시설 확충	36	3.8	73	7.8	66	7.4	175	6.3
전입지원 혜택 강화	18	1.9	47	5.0	87	9.8	152	5.5
주민커뮤니티 소통 강화	1	0.1	4	0.4	14	1.6	19	0.7
기타	3	0.3	2	0.2	1	0.1	6	0.2
합계	946	100.0	931	100.0	888	100.0	2,765	100.0

〈표 Ⅳ-52〉 청년여성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 (연령별 비교)

(단위: %)

구분	(1+2+3)순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관내 기업의 일자리 확대	25.8	25.0	24.0	24.8
주거비용 부담완화	22.5	23.3	22.0	22.6
근린생활시설(쇼핑, 공원) 지원	11.5	12.7	15.2	13.5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7.7	9.5	11.8	10.1
대중교통의 편리성 강화	10.7	9.4	7.0	8.7
문화프로그램 지원	9.4	7.8	6.6	7.7
의료시설 확충	4.4	7.1	6.7	6.3
전입지원 혜택 강화	6.7	4.6	5.6	5.5
주민커뮤니티 소통 강화	1.0	0.6	0.6	0.7
기타	0.2	0.1	0.4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 마지막으로 청년여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3순위까지 응답하게 한 결과, 1순위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45.8%) 정책이고, 1, 2, 3순위를 모두 합해서 응답이 가장 많은 것도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26.4%) 정책으로 나타남

- 1, 2, 3순위를 모두 합산해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정책 다음으로 응답이 많은 것은 '주거안정 정책'(21.7%), '자녀출생 및 보육지원 정책'(19.6%),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10.0%) 순으로 나타남

〈표 Ⅳ-53〉 청년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3순위)

(단위: 명, %)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1+2+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433	45.8	169	18.0	126	14.5	728	26.4
주거안정 정책	143	15.1	272	28.9	183	21.1	598	21.7
자녀출생 및 보육지원 정책	233	24.6	182	19.4	126	14.5	541	19.6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	35	3.7	103	11.0	138	15.9	276	10.0
의료·건강서비스 지원	28	3.0	77	8.2	125	14.4	230	8.3
교통시설 확충	39	4.1	73	7.8	89	10.2	201	7.3
교육여건 개선	32	3.4	62	6.6	80	9.2	174	6.3
기타	3	0.3	2	0.2	2	0.2	7	0.3
합계	946	100.0	940	100.0	869	100.0	2,755	100.0

〈표 Ⅳ-54〉 청년여성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 (연령별 비교)

(단위: %)

구분	(1+2+3)순위			
	19-24세	25-29세	30-34세	전체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28.3	25.2	26.5	26.4
주거안정 정책	21.4	21.5	22.0	21.7
자녀출생 및 보육지원 정책	14.1	19.7	22.6	19.6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	10.8	10.6	9.1	10.0
의료·건강서비스 지원	10.4	8.5	7.1	8.3
교통시설 확충	10.1	7.5	5.6	7.3
교육여건 개선	4.8	6.7	6.8	6.3
기타	0.2	0.2	0.4	0.3
합계	100.0	100.0	100.0	100.0

○ 청년여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1+2+3순위 합산)을 연령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 가장 필요하다고 동일하게 나타남

- 다만 19-24세 집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의료·건강서비스 지원, 교통시설 확충에 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30-34세 집단은 자녀출생 및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또한 자녀출생 및 보육지원 정책, 주거안정 정책,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요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 의료·건강서비스 지원, 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요구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진다는 특징이 나타남

2. 초점집단면접(FGI) 분석

1) 초점집단면접 개요 및 참석자

○ 경남 청년여성들의 지역내 거주 및 이동에 관한 인식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재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여성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

○ 2021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6일 동안 총 7차례의 FGI를 실시하였고, 미취업자(대학생 및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취업자 등 다양한 상황에 있는 청년여성 집단이 FGI에 참여함

○ FGI는 청년 및 인구 정책의 영역을 고려하여 1) 일자리, 2) 주거(교통 환경), 3) 교육, 4) 복지·문화, 5) 사회적 관계망, 6) 정책에 대한 요구, 7) 청년여성으로서의 인식(결혼 및 출산 관련 태도, 삶의 만족도, 가치관) 및 향후 거주 의향이 포함된 반구조화된 질문 가이드를 기반으로 진행됨

○ 일 시 : 2021년 10월 15일(금) ~ 21일(목)

○ 대 상 : 현재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의 청년여성 32명[2)]

2) FGI 대상자의 경우, 시·군 단위별로 대상자를 할당해야 했으나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여성들의 시 지역과 군 지역의 거주 비율(9:1)을 고려하여 시 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여성만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

〈표 Ⅳ-55〉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방안 FGI 주요 질문 내용

주요 주제	질문 구성
FGI 취지 설명	▪ 참석자 소개 ▪ FGI 취지 및 진행방식 설명
일자리	▪ 지역 산업구조 및 여성 일자리 인식 ▪ 지역의 기업문화 ▪ 직종의 다양성 및 처우 ▪ 청년여성으로서의 구직활동
주거(교통 환경)	▪ 주거 시설 환경 및 안전 ▪ 주거비 마련 고민 ▪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및 만족도
교육	▪ 지역 내 대학 경쟁력 ▪ 기타 교육훈련(학원 등) 시설 및 프로그램 ▪ 평생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복지·문화	▪ 문화 시설 및 인프라 ▪ 문화생활 만족도 ▪ 의료 시설 및 서비스
사회적 관계망	▪ 가족 및 친구 관계 만족도 ▪ 지역 내 커뮤니티 만족도
정책에 대한 요구	▪ 일자리, 거주, 교육, 복지·문화(청년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등) 청년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 여성 친화 환경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청년여성으로서의 인식 및 향후 거주 의향	▪ 삶의 전반적 만족도 ▪ 결혼 및 출산 관련 태도 ▪ 향후 거주 의향

❍ FGI 대상자의 경우 타지역에서 경남으로 이주한 외부자의 시선과 경남에 오래 거주한 청년여성들의 경남 지역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1) 타지역에서 경남으로 이주한 청년여성, 2)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험이 없는 청년여성으로 구분하였음

❍ 타지역에서 경남으로 이주한 청년여성의 경우, 경남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영남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섭외하였으며 이외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이주한 청년여성은 기타지역으로 분류하였음

❍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험이 없는 청년여성[3]은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

3)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험이 없는 경남 청년여성의 경우, 창원시를 제외한 경남 지역에 거주 중인 청년여성의 섭외 어려움으로 인해 창원시 거주자로 한정하여 FGI를 진행함. 특히 경남 여성 대다수가 경남의 여러 시·군 중 창원시에서 일자리를 갖고 생활하기를 원해(박지영 외, 2021) 창원시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포함한 지역 내 만족도를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며, 이 중에서도 경남 내 타 시·군에서 창원시로 이주한 경우도 포함됨

〈표 Ⅳ-56〉 FGI 대상자(타지역 → 경남 이주)

연번	이전 거주지역		현재 거주지역	'21년 기준 만나이(출생년도)	비고
A1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창원시	32살(1989년도)	취업자
A2		경기도	경상남도 창원시	28살(1993년도)	취업자
A3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22살(1999년도)	미취업자
A4	영남권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34살(1987년도)	취업자
A5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33살(1988년)	취업자
A6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31살(1990년도)	미취업자
A7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31살(1990년도)	취업자
A8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31살(1990년도)	취업자
A9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창원시	21살(2000년도)	미취업자
A10	기타지역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창원시	28살(1993년도)	취업자
A11		전라남도	경상남도 창원시	25살(1996년도)	미취업자
A12		충청북도	경상남도 창원시	22살(1999년도)	미취업자

〈표 Ⅳ-57〉 FGI 대상자(타지역 거주 경험 없음)

연번	이전 거주지역	현재 거주지역	'21년 기준 만나이(출생년도)	비고
B1	경상남도 고성군	경상남도 창원시	25살(1996년도)	미취업자
B2	경상남도 함안군	경상남도 창원시	23살(1998년도)	미취업자
B3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창원시	22살(1999년도)	취업자
B4	경상남도 사천시	경상남도 창원시	22살(1999년도)	미취업자
B5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34살(1987년도)	취업자
B6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34살(1987년도)	취업자
B7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34살(1987년도)	취업자
B8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31살(1990년도)	취업자
B9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31살(1990년도)	취업자
B10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28살(1993년도)	취업자
B11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27살(1994년도)	취업자
B12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27살(1994년도)	취업자
B13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25살(1996년도)	미취업자
B14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25살(1996년도)	미취업자
B15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25살(1996년도)	미취업자
B16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24살(1997년도)	미취업자
B17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24살(1997년도)	미취업자

연번	이전 거주지역	현재 거주지역	'21년 기준 만나이(출생년도)	비고
B18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23살(1998년도)	미취업자
B19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23살(1998년도)	미취업자
B20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22살(1999년도)	미취업자

2)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방안 FGI 주요 결과

□ 일자리

○ 경남 청년여성들은 제조업 중심의 경남 산업구조로 인해 구직활동과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지역내 일자리의 다양성 부족,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기업문화, 기업의 남성 선호에 따라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낮은 처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인해 청년여성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갖고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중심으로 발달한 경남의 산업구조에서 대다수의 기업들은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고, 인문·사회 및 예체능을 전공한 청년여성은 이공계를 전공한 청년보다 지역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남성 중심의 제조업 기반 조선업 아니면 기계 관련된." (A11, 미취업자)

"제가 마산에서 초중고를 나와서 창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경남에는 일자리가 없습니다." (A10, 취업자)

"거제는 조선소밖에 없어서 여성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창업을 해야 하고. 그런 거 힘들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려는 분들도 많아요." (A9, 미취업자)

"전공을 살려서 경남에 취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전공 살려 일하고 있는 친구들은 다 타지역에 나가 있고, 경남에 있는 친구들은 다 전공과 다른 직업을 하던가 결혼 상태에요." (B9, 취업자)

"저는 빅데이터 분석 쪽으로 전공하고 있는데 학생 연구원으로 있을 때도 여자가 저 혼자. 여자들이 공대 쪽이나 이런 쪽으로 취업을 못하고 남자애들을 많이 찾는다는 걸 느꼈어요." (A12, 미취업자)

"중소기업은 공단이기 때문에 공대 출신 남성이 1순위이고, 여성분들도 들어가긴 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들어가요." (A8, 취업자)

"경남은 여성이 취업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공장이나 제조회사가 많아서 기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여성 자리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B5, 취업자)

"디자인 계열 친구들은 당연히 광역시 가야지 해요. 나중에 애 때문에 들어오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고, 결국 하고 싶었던 디자인 일을 포기하더라고요. 디자인학과가 있어도 창원에는 일자리가 없어요." (B8, 취업자)

- 경남지역의 기업문화는 보수적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역 내 청년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수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여성들은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혹은 제조업에서도 사무종사자와 같은 여성 친화적인 직업군에 대부분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제외한 직업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며 지역내 청년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의 다양성이 부족, 대학에서 전공을 통해 진로를 찾고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그나마 경남에서 할 수 있는 건 공기업, 그리고 공무원 외에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게 없어요. 제 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직업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대체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11, 미취업자)

"경남에 남아 있는 친구들은 공무원 준비하고." (B4, 미취업자)

"간호사나 유치원 선생님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만족해요. 직업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직군은 아무래도." (A8, 취업자)

"공무원이나 선생님이 아니면 힘들어요." (B10, 취업자)

"전문직이나 간호사, 공무원 말고는 여성 일자리가 정해져 있는 느낌이 강해요." (B9, 취업자)

"직업이 다양화되는 게 너무 느려요. 일자리가 너무 한정적이에요. 사무직을 하고 싶어서 상담했는데, 상담 선생님이 이 지역에서 오래 일하려면 경리, 회계 쪽이 그나마 제일 오래 할 수 있다고." (B12, 취업자)

"이 주변에 회계법인이 많아서 저도 실습을 했었거든요. 여성성이라는 틀에 갇힌 그 직업." (B14, 미취업자)

- 청년여성들의 경우, 취업자인 경우에도 낮은 연봉, 승진에 대한 제한 등으로 인해 기업에서 낮은 처우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임. 또한 지역 내 여성들이 관리자급으로의 진출하는 것 또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문제는 간부진급의 국장급이나 여성 임원이 없다는 거. 경남에서 일을 해봤자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A10, 취업자)

"임금 수준은 대부분 200이에요. 창원에 살면서 알게 된 친구들 보면 200도 못 받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임금수준 때문에 경남에서 안정적으로 살기는 힘든 것 같아요." (B4, 미취업자)

"창원에 공장이 많잖아요. 여성은 사무직, 경리나 남성 밑의 단순 업무로 갈 수밖에 없는 직업이 많아요. 관리자급은 줄고." (B10, 취업자)

"여기서 200~225 받으면 적당하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받아오기도 했고. 그런데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랑 연락하면 자기들은 한 달에 350에서 400 이렇게 받는데, 나보고 너무 적게 받는다고." (B1, 미취업자)

"여성분들은 보통 사무직의 경리나 업무를 보조 및 지원 해주는 직업군으로 가다 보니까 다른 직업들보다 임금이 낮아요." (A9, 미취업자)

"제조회사에서 잠깐 일 했었는데, 제 능력과는 상관없이 단순 업무를 맡기더라고요. 임금 역시 남성에 비해 낮고." (B5, 취업자)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려고 하니 임금이 낮게 측정된 곳이 많더라고요. 시급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고."(A7, 취업자)

"저는 대구에서 1년 있다가 창원으로 넘어왔는데, 임금이 낮아졌어요." (B8, 취업자)

- 청년여성 대다수는 경남 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인근 광역시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음

"대학은 경남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수도권까지 가서 취업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제대로 된 회사에 다니려면 경남을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B15, 미취업자)

"출판업이나 IT계열, 예술계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임금의 좋은 직장? 또 유명한 기업으로 가기 위해 무조건 수도권이나 다른 대도시로 가더라고요." (B2, 미취업자)

"저는 창원 말고 광역시에서 취업할 것 같아요." (B14, 미취업자)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랑 창원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취직하러 서울로 가버렸어요." (B18, 미취업자)

"경제적 상황에 맞춰 일자리를 옮기려고 하니 경남은 힘들어서 부산으로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일자리 폭이 넓은 곳에 가서." (A7, 취업자)

"여자친구들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지역을 옮긴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부산만 가도 일자리가 많은데..." (A6, 미취업자)

- 무엇보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기업문화가 여전히 지역 내에 자리잡고 있어 가족 친화적이지 못한 기업문화,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 등이 직

장 내에서 경험되고 있음. 이러한 기업문화는 경남 청년여성들의 구직활동과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향후 경남에서의 삶을 기대하고 계획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혼했다는 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아기를 가질 것인지 이런 게.” (A1, 취업자)
>
> “여자들은 애 낳으면 집에 간다하거나 월요일, 금요일마다 생리휴가 써서 일을 못 시키겠다는 이런 소리를 대놓고 해요. 결혼하고 애를 키울 수 있는 직장은 원하는데 가부장적인 문화가 팽배해서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A10, 취업자)
>
> “차 사고 났을 때 당시 남자 사원이 ‘너 운전할 때 그거 아냐?. 여자들은 운전을 뭐같이 못한다.’는 농담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조직이나 여성이 신입으로 들어가면 결혼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내 결혼 상대,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어디를 취업해도 쉽지 않고.” (B4, 미취업자)
>
> “부모님이 식당 하셔서 공무원들 회식하는 걸 자주 봤는데, 여직원들만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뭐를 갖다 드리고 일단 예약전화도 여자 직원이 하고, 심부름 다 여자 직원이 하시고 계산도 여자 직원” (B2, 미취업자)
>
> “울산에서 면접 볼 때는 결혼 했냐 남친 있냐는 둥 개인적인 거 안 물어봤는데, 경남에서는 다 물어봤어요. 결혼은 언제쯤 할 계획이냐, 남자친구는 있냐, 2세 계획은 언제쯤 할 거냐. 정부산하기관이라고 해도 그런게 없지 않아 있었어요.” (A5, 취업자)
>
> “경남에서는 출산하면 퇴직이다 라고 그렇게 다들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B11, 취업자)

- 절대적으로 일자리의 다양성 부족, 여성 노동자에 대한 낮은 처우,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기업문화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청년여성이 많으며, 경력단절 후 지역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결혼이나 임신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퇴사 압박을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시 재취업을 해도 비숙련직.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지 못하는 비숙련직으로 밖에 갈 수 없고. 그리고 그 사이클이 계속되는." (A10, 취업자)

"주변에 육아랑 출산으로 경력단절이 되신 분들을 실제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경력단절 된 이후 그 분들은 갈 자리가 없어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A8, 취업자)

"경력이 단절된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30대인데 학교 조교로 지원했더니 거기선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B10, 취업자)

"나이라든지 결혼유무가 확실히 고려되는 것 같아서, 육아를 통해 경력단절되신 분들은 시간제 근무라든지 낮은 임금수준의 일자리로 진입하시더라고요." (B7, 취업자)

"제 친구가 육아휴직을 썼는데, 육아휴직 후 아예 안 돌아가는 걸로 썼다더라고요. 육아휴직이 끝나면 퇴사하는." (A5, 취업자)

□ 주거(교통 환경)

○ FGI에 참여한 대다수의 청년여성들은 주거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음. 특히 청년층의 거주율이 높은 대학가 주변의 원룸촌,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남.

- 이 외에도 높은 주거비 부담, 주거 마련을 위한 대출 제한 등이 또 다른 어려움으로 확인됨
- 교육이나 취업 등으로 자취를 하는 경남 청년여성들의 경우, 주거 시설이 대체로 열악하다 보니 그에 따른 주거 안전의 불안도가 높게 나타남. 특히 이와 관련된 지역 사회 대응에 불만이 높아 여성 안전에 대한 지역 내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임

"가족들이랑 살 때는 못 느꼈는데, 자취하면서 안전이 많이 신경 쓰이더라고요. 특히 대학가는 술집과 원룸촌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는 가로등도 없어서 어두워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술 취한 남성이 말을 건다든지, 화장실 좀 쓰면 안 되냐, 물 좀 주면 안 되냐 물어봤던 경험이 있어요. 방음도 잘 안 돼서 전화 길게 하려면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쳐다보고 그러면 무섭고." (B4, 미취업자)

"저는 대학가 근처에 살고 있는데 학생들이 살기 좋지 못한 환경이에요. 낙후된 건물도 많아요. 이 건물에 이 월세를 받는다고? 할 정도로." (A3, 미취업자)

"남자 부동산 중개인들이 혼자 사냐고 물어보길래 혼자 산다니까 방범용 CCTV나 잠금장치를 저보고 설치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사줄 것도 아니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여기는 안전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B4, 미취업자)

"제가 대구를 일주일 정도 갔다 내려왔어요. 피곤해서 자려는데 누가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새벽 1-2시니까 무섭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도어락을 누르는 거예요. 문자로 경찰 불렀어요. 남자 경찰이 와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안에 있으면서 소리 안 지르고 뭐 했냐는 거예요. 신문고에 신고했잖아요. 결국 범인은 주인아저씨였어요. 전기세 그래프가 안 떠서 걱정돼서 그랬다는데 보통 전화하잖아요." (B14, 미취업자)

"여자인거 알고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는데 주거안전에 있어 경찰들이 하는 말이 왜 소리를 안 지르냐고. 그런 인식도 너무 없고." (A13, 미취업자)

"주택 살 때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주택 살 때 문 앞에서 기다리고 막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어서. 주택이 따닥따닥 붙어있다 보니까 사실 옆집 창문은 거의 오픈 상태고요. 그런 거에 대한 불안함이 항상 있었어요. 어둡기도 많이 어둡고." (B7, 취업자)

"보통 원룸을 개조하거나 주택을 개조해서 방을 만들거든요? 벽과 벽 사이에. 그러니까 옆집 담이랑 우리 집 문 앞이랑 다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앞집에서 하는 소리 들리고, 담을 넘어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 틈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학가에서 자취할 때 안전이 매우 취약하다고 느꼈었어요." (A5, 취업자)

- 또한 주거비 마련에 대한 고민으로는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에도 많은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여성들이 경남에서 주택을 마련하여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 “월세 한달에 50만원씩 지출하는 것이 얼마나 큰데. 창원시에서 월세 지원 사업을 해도 한 달에 제가 30만원 넘게 부담해야 해요. 그리고 아파트 알아보면서 대출도 알아봤었어요. 저는 신혼부부도 아니고 중소기업 청약도 아니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원룸촌을 돌아다녔어요.” (B4, 미취업자)
>
> “미혼은 대출 진입장벽이 높아요.” (A11, 미취업자)
>
> “여성 프리랜서 아니면 계약직은 대출이 어려워요.” (A10, 취업자)
>
> “저는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마산으로 내려올 때 월세나 보증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위에보다 낫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아니더라고요. 대학가 근처에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월세랑 보증금 다 비싸고.” (A3, 미취업자)
>
> “취업한 친구들이랑 모여서 얘기하면 창원시 아파트 7억 달래요. 평생 모아서 살 수 있을까 싶어요.” (B15, 미취업자)
>
> “집값이 비싸서 과연 여기서 집을 살 수 있을지, 전세도 못 구한다는데.” (B10, 취업자)
>
> “아쉬웠던 게 독립해보려고 대출을 알아봤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청년근로자 아파트는 막 테이프 붙여져 있고 공간이 좁은데.” (A4, 취업자)

❍ 교통의 경우, 청년여성 대다수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 창원내 이동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남 내 타 지역으로의 이동 또한 불편한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경남과 수도권 지역과의 연결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함

- 버스와 택시가 대중교통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짧은 거리에도

불구하고 긴 이동시간과 배차간격, 버스 전광판 미설치, 승객을 고려하지 않는 위험한 운전 등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교통수단은 버스랑 택시밖에 없는데, 이동시간이 길어요." (A3, 미취업자)

"예를 들어 중리에서 대방동으로 이동하는데 한 시간 반이 넘게 걸려요. 아무리 버스가 잘 되어 있어도 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B14, 미취업자)

"경남에 이사 와서 제일 놀랬던 것이 버스가 위쪽 길이랑 밑에 쪽 길로만 다니고. 그러니까 상가랑 주택 쪽으로는 버스가 안 내려오더라고요? 부산은 집 앞에 버스가 지날 정도로 노선이 잘 되어있는데..." (A7, 취업자)

"저는 진짜 불편하다고 느낀 것이 솔직히 어디 나가기 싫을 정도로 아저씨들이 운전을 너무 험하게 해요. 민원이 들어와서 아저씨들 운전이 유해졌다 하는데 하나도 안 그래요. 진짜 멀미 나고 브레이크 너무 밟고. 저만해도 학교 오는데 사실 거리로 따지면 그럴 거리가 아닌데 한 40분 정도 걸려요. 교통도 진짜 진해 따로 창원 따로 마산 따로. " (B12, 취업자)

"제일 불편했던 점이 버스 정류장에 전광판이 없다는 거. 귀를 열고 계속 듣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 불편했어요." (A12, 미취업자)

"여기는 지하철이 없잖아요.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는데 아무래도 저녁이 되면 택시 타는 것도 무섭고 버스에 혼자 있어도 무섭고." (A3, 미취업자)

"도로랑 인도랑 가격이 너무 좁아서 위험해요." (B19, 미취업자)

"제가 마산에 있는 학교에 통학하는데 수도권이나 위쪽 지방과 비교해 약간 배차 시간이 길고." (B3, 취업자)

- 군지역의 교통 인프라는 매우 열악하고, 경남내 지역간 이동을 위한 시외버스 노선은 제한적이며, 이 외에도 이동시간이 길고 매표소 이용 또한 불편한 것으로 나타나 경남 지역내 이동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일단 시외버스 문제가 정말 심각해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선착순으로 타고. 예매나 키오스크 문제도 있어요. 아직 현금을 내야 하는 곳이 있고." (A11, 미취업자)

"다른 지역에 가려고 하면 시외버스 하나 밖에 이동 수단이 없으니까 불편해요." (B15, 미취업자)

"남해는 도로에 사람이랑 차가 같이 다녀요. 신호등도 이제야 설치되고." (B4, 미취업자)

"고성은 시내버스도 없고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읍내로 왔다 갔다 하셔야 하니까 그럴 때 탈 수 있는 버스들 뿐." (B1, 미취업자)

"부산을 한 번 가려고 진해에서 시외버스를 탔는데 마을버스처럼 매 정거장마다 다 서는 거 보고 이러면 시외버스를 왜 타나, 그냥 버스를 타지. 오래 걸리더라도 한 번에 가는 버스를 집 앞에서 타지 뭐하러 시외버스터미널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시외버스를 타나 싶을 정도로." (A7, 취업자)

- 경남에서 서울로 가는 교통편 또한 시간, 배차, 비용 측면에서 불만이 높아 수도권과의 연결성이 매우 떨어짐

"KTX도 대구까지 올라갔다가 대전으로 꺾어 서울로 올라가다 보니까 진짜 뭐랄까. 이게 무궁화호를 타고 있는 건지, KTX를 타고 있는 건지. 그런데 왕복 10만원이에요. 버스랑 왕복으로 4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속도가 전혀 보장되지 않죠." (A11, 미취업자)

"경남에 관광지는 다른 곳에 있는데 KTX나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건 창원이나 김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로 라는 기차가 있는데, 사실 다른 데는 들러도 경남에는 들리기 힘들어요. 경남 내에서 관광하려면 통영이나 거제로 가야 하는데 수도권과의 교통 루트는 없어요." (A6, 미취업자)

"서울 가기 불편해요." (B16, 미취업자)

"KTX 타는거 너무 오래 걸리고 엉덩이도 아프고." (B17, 미취업자)

□ 교육

○ 대다수의 청년여성들이 경남의 교육 인프라를 부족한 것으로 인식함. 지역 대학의 낮은 경쟁력, 교육훈련 관련 정보 습득의 어려움, 교육 시설(학원 등) 부족 및 질 낮은 수업, 평생교육 시설 부족 등이 지역 내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남

- 지역 대학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는 경남 청년여성들은 향후 지역에서의 진로를 정하고 취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원으로의 진학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에 인구가 감소하면서 창원에 있는 대학들이 경쟁률 낮은 대학으로 뜨더라고요. 4년제 대학인데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A6, 미취업자)
>
> "솔직히 대학원 진학도 지방에 있다는 거에 자격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여기 있으면 뭘 할 수 있을지...대학원은 서울 위주로 생각한다" (A11, 미취업자)
>
> "대학원 고민할 때 경남 내에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거에요. 대학원은 서울로 가야지 하다가 경북이나 부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경남은 대학원으로 이어지는 교육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냥 지역에 대학원생이 없어요." (B4, 미취업자)
>
> "대학이라 하면 취직이랑 많이 연결되어 있어서 창원에 있는 대학들은 취직까지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약한 것 같아요," (B20, 미취업자)
>
> "대학 내 교육환경이 다른 광역시에 있는 대학교보다 부족한 것 같아요. 부산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를 보니까 자동차학과도 시뮬레이션하는 실 자체도 크고 좀 더 전문적이고. 저희학교는 실습실이나 그런 것들이 열악해요. 옛날에 만들어진 것들을 쓰고, 부족하고..." (B3, 취업자)

- 중등교육 단계 때 고등교육으로의 진학 관련한 정보가 지역에서 활발히 공유되지 않고 있고, 대학 설명회와 같은 대학 정보도 경남에서는 접하기 힘들다는 점이 교육 환경의 질을 떨어트리는 것으로 나타남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조카가 있는데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도 도입에 대해 부모가 알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학생들한테만 알려주는데 학생들이 뭘 알겠어요. 진해는 인문계가 한두 개밖에 없어서 그런지 설명회도 없어요." (A2, 자영업)

"대학 입시 컨설팅도 많이 안 와요. 대학에서 우리 학교 이러니까 오라는 홍보도 좀 오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적었어요." (B16, 미취업자)
업준비생)

- 무엇보다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 등의 인프라 자체가 경남 지역은 매우 열악해 청년여성 대다수가 인근 광역시인 부산이나 멀리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응답함
-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하고자 할 때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타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으나, 교통 환경의 불편 등으로 교육훈련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여기 와서 놀란게 학원이 많지 않더라고요. 토익, 자격증, 간호사 학원도 없고. 공무원 준비하러 부산으로 가더라고요." (A1, 취업자)

"창원에 실기 음악하는 학원이 없어요. 보컬 댄스학원에 다니고 싶으면 부산으로 가더라고요." (B16, 미취업자)

"뭐 하나 배우려면 부산까지 가야되고.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무조건 부산 아니면 서울 가서 수업을 들어요. 여긴 없어요." (B18, 미취업자)

"내일배움카드가 있는데, 문제는 창원에 배울 수 있는 학원이 하나도 없어요." (B12, 취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는데, 교육 검색을 하면 굉장히 적어요. 저는 학교 근처인데도 교육 인프라가 너무 부족해요. 사회조사분석사는 대중적인데도 여기 주변에는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B10, 취업자)

"제가 영어회화 배우려고 찾아봤는데 그 흔한 영어회화 학원이 제대로 된 곳이 없더라고요." (B9, 미취업자)

"제일 가까운 학원이 부산에 가야되는 거고, 본인이 좀 진지하게 배우고 싶으면 거의 서울로 가는 편이더라고요." (B15, 미취업자)

- 지역내 교육(학원)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교육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사를 포함한 교육의 질이 매우 낮아 전반적인 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황임

"학습이나 교육 환경이 대구에 비하면 너무 차이가 나고." (A9, 미취업자)

"토익학원이 있긴 한데 규모도 작고 수준도 낮아요. 여기서 학원을 다니고 싶지 않은 기분? 수강생이 적으니까 비용은 비싸고. 돈은 더 많이 냈는데 수업은 안 좋으니 만족도가 낮아요." (B2, 미취업자)

"다른 지역에서 강의 하시다가 온 학원 선생님들이 경남에서는 이것만 해도 평타를 친다고. 부산만해도 가르치는 수준에서 차이 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녀는 경남에서 가르치고 싶지 않다 하시더라고요." (A9, 미취업자)

"창원에서 제일 유명한 학원이었는데도 만족도가 높지 않았어요. 선생이 수업은 안하고 자꾸 잡담을, 핸드폰 어떻게 쓰냐 묻고. 뭐 했냐 뭐 먹었냐 이런 잡다한 얘기들로 수업 시간을 채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력이 더디게 늘었어요." (B14, 미취업자)

- 지역 내 평생교육은 시설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설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평생교육도 홍보가 좀 필요해요. 젊은 층이 퇴근하고 배울 수 있는 그 시간대 자체가 홍보가 되지 않으니 폐강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무 하고 싶은데 인원이 적다 보니 폐강 문자가 날라와요." (A2, 취업자)

"평생교육 관련해서 창원시는 그래도 프로그램 수가 많고 시설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고." (B2, 미취업자)

"평생교육을 저희 엄마는 부산 가서 들어요. 강사진도 없고 배우고 싶은 수업도 없어서 창원에서 듣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B13, 미취업자)

"제가 바리스타나 뭐 시간 날 때 배워보려고 찾아보니까 개설된 평생교육이 잘 없더라고요." (A7, 취업자)

"평생교육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수화 같은 거 공부하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교육이 존재하지만 홍보가 안 된 느낌이에요." (B3, 취업자)

- 특히 지역에서 제공되는 교육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이 제한적이고 여전히 과거의 획일화된 프로그램 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여 청년여성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획일화되어 있어요. 수공예, 비즈, 공예, 노래 교실. 과연 여성들이 하고 싶을까." (B4, 미취업자)

"너무 옛날 그대로 갖다 놓은 느낌. 베이킹이나 비즈 공예 이런거. 저는 굴삭기 배우고 싶은데 여성들이 이런 거 좋아할 거다 하는 것만 있고." (A2, 취업자)

"직장 다니다 보면 저희도 자기개발 하고 싶어요. 코딩 공부 배우고 싶은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목록을 보면 없습니다. 바리스타, 정리 수납 전문가, 네일 미용. 저 그거 안 배우고 싶거든요." (A10, 취업자)

"빅데이터 교육이라고 해봤자 대학에서 방학 때 한 두 달 잠깐 그거 말고는 배울 데가 없는 것 같고. 시대는 변하는데, 경남은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느려요." (A3, 미취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았는데 배우고 싶은 게 아예 없더라고요. 대부분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이나 요리 자격증에 한정해서 쓰더라고요." (B13, 미취업자)

□ 복지·문화

○ 경남 청년여성 대다수가 경남내 문화시설 인프라를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시설 자체의 열악함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구성 또한 질적인 측면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됨

- 청년들이 모여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 및 시설, 경남 내 명소(관광지), 가족 단위의 문화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OO아트홀, OO미술관 말고 경남에 뭐가 있나요? 당장 부산만 가도 달라지는데." (A11, 미취업자)

"경남에서 즐길 수 있는 것은 영화 정도." (A9, 미취업자)

"부산에 가면 전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게 있다는 걸 작년인가 처음 알았어요. 창원에는 새롭게 즐길만한 이색문화라던지 문화공간이 없구나. 즐기고 싶을 때 갈만한 곳이 없는 거." (B4, 미취업자)

"최근에 영화 소모임하시는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같이 영화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겨우 빔프로젝트 하나 구해가지고...." (B4, 미취업자)

"다른 지역은 뮤지컬이나 콘서트가 쉴 틈 없이 있는데 경남은 창원 외에는 즐기지 못할뿐더러 유명한 콘서트나 뮤지컬은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봐야해요." (A9, 미취업자)

"창원에서 만든 센터나 문화공간이 있어도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인스타 감성처럼 꾸며 놓지도 않고 진짜 별로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B9, 취업자)

"다른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창원 가면 뭐 해야 해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하다못해 야구장 때문에 창원 내려가야 되는데 뭐 먹여야 해? 이러면 추천해줄 게 없어서. 가로수길도 밥 먹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다는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아기 데리고 갈 수 있는 곳도 저기 OO 체험관? 그거 하나밖에 없고." (B12, 취업자)

"청년여성이나 청년층을 위한 랜드마크라고 할 건 없고. 경남은 뭐 있는데? 하면 마산아구찜 한 개 정도? 기대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A4, 취업자)

- 문화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시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설의 접근성도 떨어지며, 지역 내 문화예술 인력 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남

"헬스장이 비싸서 시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가면 바벨 관리가 안 되어서 막 녹슬고. 이 벤치에 누워서 들어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럽고. 그런 시설을 좀 깨끗하게 조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B4, 미취업자)

"진주만 하더라도 문화시설이 생겼다 하면 도심이랑 멀어요. 대중교통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 사람들이 안가고." (A11, 미취업자)

"OO의 바다인가 엄청나게 큰 도서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는 것도 저희집에서 버스가 한 대밖에 없어서 진짜 불편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강당을 개조한 거라 동네 구석까지 가야 해요." (B12, 취업자)

"마산에 놀이동산이 생겼다고 해서 갔는데 땅끝마을처럼 너무 외각인 거예요. 차가 없으면 절대 이동이 안 되고 버스도 안 되어있고. 왜 굳이 저기에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B20, 미취업자)

"저는 문화생활을 소중히 여기는데, 창원에서 문화생활을 기획하려고 페스티벌이나 콘서트 기획하는 걸 자주 봤었거든요? 항상 같은 사람이 기획하고 자문하고 이러니까 가면 항상 똑같은 사람 만나고. 항상 오는 밴드가 있는데 진짜 실력 없거든요? 노래도 못 만들고 실력도 없는데 그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 사람들 위주의 공연이 열리고." (B13, 미취업자)

"저수지도 철새 축제 그런 거 할 때만 잠깐 했다가 이후 다시 시설을 방치하고 그러는 느낌?" (B12, 취업자)

"OO미술관 인력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거든요. 학예사만 해도 몇 분 안 계세요. 전국 최하위 수준에서 규모 있는 질 높은 전시를 하기란 어려워요." (A10, 취업자)

- 지역 내 문화시설이 열악하고 프로그램 수준이 낮다 보니 청년여성 대다수가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인근 광역시나 서울로 가고 있음

"기차로 가기 쉬우니까 전시회는 대구 가서 보고. 저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부산에 가면 게임박람회가 있어요." (B14, 미취업자)

"다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문화생활 때문에 다시 못 오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B10, 취업자)

"부산은 전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게 있다는 걸 작년인가 재작년에 처음 알았어요. 부산 사는 친구가 고흐 그림 전시하는 곳이 있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그때 그런 전시관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B4, 미취업자)

"얼마 전에 뮤지컬을 보고 왔는데 뮤지컬도 부산이랑 창원 공연장 차이가 크게 나고. 얼핏 들었는데 서울보다 규모를 많이 축소해서 공연했다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봤으면 더 크게 봤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고. 물건을 살 때도 선택지가 너무 없어요." (A6, 미취업자)

"뮤지컬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최소 연 6회 이상은 서울 가서 2박 3일로 보고 오고 그래요. 창원에서는 10년 전에 본 게 다거든요. 특히 여자들은 문화생활 즐기려고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해요." (A4, 취업자)

- 무엇보다 지역에서 문화 정책 지원 등에 관심 정도가 매우 낮고,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시설 이용의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남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발전은 힘들 것으로 인식함

"지역예술가분들이랑 얘기하면 경남은 예술 지원 사업이 굉장히 없다 하더라고요?" (B13, 미취업자)

"창원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안이 있다 해도 사람들의 수요가 없어서 굳이 문화시설을 설치하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B18, 미취업자)

"그런데 여기서 콘서트를 연다고 해서 타 지역 사람들이 창원에 가야겠다, 창원을 관광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진 않아요. (문화)개발이 안 되거나 더딜 수 있다고 생각해요." (B14, 미취업자)

"경남 지역 인구가 줄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문화 부분도. 많은 인구가 보러 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B3, 취업자)

"인구밀도가 높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B16, 미취업자)

- 경남 청년여성 대다수가 경남 지역 내 의료시설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시설은 낙후되어 있으며 의료서비스 질 역시 낮은 것으로 평가함

"저는 인천에서 왔는데 의료에서 차이가 크게 났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산부인과를 갔는데 대기판에 이름이 떠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을 일일이 다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상담하는데 문을 안 닫고 사람들이 다 보는 개방적인 곳에서 상담하고. 지방은 이렇게 의료시설 서비스가 안 좋나 싶고 병원을 가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A3, 미취업자)

"산부인과에 가면 여자 의사가 부족하고 남자 의사가 많아요. 그리고 대기를 몇 시간씩 걸어야 하고. 필요 없는 검사를 추가해서 돈이 더 나간 경우도 있어요." (B14, 미취업자)

"어린이병원이 마산 OO병원만 특화되어 있어서 한 번 가면 4-5시간 기다려야 해요. 애가 갑자기 아파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돌아도 자기들은 인턴밖에 없으니까 OO병원 가라는데, OO병원에서는 지금 오셔도 내일 아침에 진료받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에요." (A1, 취업자)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처음이니까 당황스러운 것도 있는데 친절하지 않으셔서 좀 그랬거든요. 병원 쪽도 서비스직이고 요즘 체온측정에 해야 하는 게 많으니까 응대를 그렇게 할 순 있어요. 그래도 조금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강요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큰맘 먹고 검진받으러 갔는데,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좀 그랬어요." (A7, 취업자)

□ 사회적 관계망

○ FGI에 참여한 경남 청년여성 대다수는 창원 내 거주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응답자들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임

- 최근 청년여성은 코로나 19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일상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 형성하는 것에 회의적이거나 신체·정신건강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요즘은 살기가 어려워서 관계를 맺는 게 지친 상태예요.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직장에 취업하고 생활이 안정된 친구 남친이 밴드를 하고 있데요. 저도 나중에 때가 됐을 때 하게 될 것 같고, 지금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껴서." (B16, 미취업자)

"어디 가기 너무 멀고 그래서 (사회 관계 형성을 위한)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B17, 미취업자)

"경남에서 4년째 살고 있지만 타지역이란 느낌을 지우지 못하고 있어요. 학교가 아니면 그대로 붕 떠버리는 느낌." (A11, 미취업자)

"저는 솔직히 친구가 없어요. 가족들이랑도 유대감이 없고." (B14, 미취업자)

- 한편으론 가족과 친구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지역에서 구축된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향후에도 경남에 거주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남

"울산엔 친구가 없고, 마음의 안식처? 이런 거 때문에 돈 포기하고 다시 창원으로 돌아왔어요." (A5, 취업자)

"부산에서 혼자 지내고 그러다가 창원에 오니 좋은건 가족이랑 살아서." (A4, 취업자)

"울산에 기댈 곳이 없고 애착이 안 생겨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어요. 인맥도 저의 능력이고 재산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A5, 취업자)

"가족이나 친구들이 거의 마산에 있어서. 사실 부산에 있을 때는 잘 못 만났거든요. 마산에 친구들이 거의 다 있으니까. 창원에 계속 있고 싶어요." (A6, 미취업자)

"인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거주 할 생각입니다." (B6, 취업자)

"창원이 취업에 유리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건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인맥이 형성되다 보니까 취업 제안도 들어오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원에 거주를 계속할 것 같아요." (B13, 미취업자)

□ 정책에 대한 요구

○ 경남 청년여성들은 일자리, 기업문화 개선, 주거, 교육·문화, 의료 및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 요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먼저 비대면 여성 일자리 창출, 기업 내 보육시설 확충, 양성평등교육 확산, 유연한 근무환경, 가족친화제도의 활용 등 경남의 기업이 전반적으로 여성(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봄

"결혼하면 애 낳는 걸 생각하는데 경남 기업에는 돌봄 공간이 없어요. 사기업에서 돌봄 공간 만들려고 하면 반응이 시원찮고. 공간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주던가 세제 혜택을 주던가 남녀 모두 함께 아이를 맡기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A10, 취업자)

"코로나 시대를 맞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면 여성들도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 국가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성 일자리를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A2, 취업자)

"코로나로 재택근무가 활발한데 이를 활용해서 아이 낳고 빠르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5, 취업자)

"여성친화적인 기업 지원할 때 입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어떤 여성친화 환경을 조성했는지 그런 잣대를 가지고 확실히 하면 좋겠어요." (B7, 취업자)

"육아휴직을 보장해줘서 경력단절이되는 불안을 덜어주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B16, 미취업자)

"시간을 유연하게 쓸 수 있는 근무환경이 늘어나면 좋겠어요." (B7, 취업자)

- 주거 영역에 있어서는 전세자금 대출 등에서 신혼부부 중심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높아 미혼 및 1인가구의 주거비용 지원을 비롯해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완화를 요구함.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내, 지역 외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봄

"정부산하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어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실정인데 정부산하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내일채움 공제라던지 창원 월세 지원 사업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지원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정부산하기관에 근무한다는 이유였어요." (A5, 취업자)

"LH에서 청년주택 청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용보험이 7년 이하인 청년을 우선으로 해줘서 예전부터 일했던 청년들은 자격이 박탈되더라고요. 저도 오랫동안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어서 조건이 안되더라고요." (B7, 취업자)

"최근 5년에서 7년으로 바뀌었어요. 여자는 보통 대학 졸업하고 24살부터 사회 생활하잖아요. 그럼 28~29살만 되도 제한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여자보다 늦고. 여자들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A5, 취업자)

"대출을 한 번쯤 고민해 보셨을 텐데 혜택이 다 신혼부부 위주예요. 저같이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청약순서가 오질 않아요. 금리도 신혼부부는 저금리지만 저희는 보금자리론 하나밖에 없어요. 집을 사는데 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이 있어야 다른 여유도 생기잖아요." (A10, 취업자)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사를 갈 때 친구들 몇 명 모아서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포장이 80만원 너무 비싸거든요. 이삿짐 지원 서비스를 도나 지자체에서 제공해 주면 좋겠어요." (B4, 미취업자)

"미래에 내 집 마련 시기가 올텐데 이러다가는 내 집 없이 평생 월세만 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세대가 결혼을 목표로 하는 세대도 아닌데 1인가구 대출 정책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A7, 취업자)

"결국 교통. 교통이 확실해야 기업도 들어오고 그에 따른 수익도 많아지고 정부 혜택도 추가로 생기지 않을까." (A2, 취업자)

"외근하는 일이 많은 직업인데 경남 내 지역, 통영으로 출장을 한 번 가면 왕복 5시간이 걸려요. 자동차로 가면 세 시간 반이면 가는데. 대중교통으로 갔다 오면 기진맥진해서 일을 못 해요. 교통 지원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A10, 취업자)

- 교육·문화영역의 경우, 청년(여성)들이 모여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지역에서 조성해 주고, 시대 흐름에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되길 바람

"경남의 시·군에서도 안 쓰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청년들에게 아이디어를 내라고 하더라고요.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공동체를 쌓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B4, 미취업자)

"시·군에서 주관을 해서 청년들이 참여하는 마라톤이라던지, 삼삼오오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관여해 줬으면 좋겠어요." (A2, 취업자)

"청년 동아리 사업을 크게. 경남에서 돈 주고 우리 하고 싶은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A10, 취업자)

"경남도에서 안 쓰는 공간이 많으니까 방음을 철저하게 해서 음악밴드라든지 노래나 춤연습하는 공유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B4, 미취업자)

"비슷한 관심사나 취미를 가진 청년여성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동호회를 활성하면 더 좋은 경남이 되지 않을까." (B5, 취업자)

"창원은 문화 향유 프로그램이 있어야 해요. 창원에서 했던 것 중 제일 좋았던게 비건 프로그램. 채식주의 음식 만들고 명상도 하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아요." (B13, 미취업자)

"클래스 101만 봐도 프로그램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만 좀 따라해도." (A2, 취업자)

"지역 주민들이 지역센터에서 배우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B1, 미취업자)

"스마트팩토리나 앱 개발 같은 거. 실제로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회사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이런 교육이 개설되면 좋겠어요." (B7, 취업자)

- 의료 영역의 경우, 전반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며, 청년여성을 위한 산부인과 진료 지원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자궁경부암 백신 비싼데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B4, 미취업자)

"지금 자궁경부암 주사도 일정 나이대만 무료고 나머지는 몇 십만원이나 주고 해야는데." (A10, 취업자)

"자궁경부암 주사가 너무 비싸요. 정말 작은 건데 그런 걸 지원해주면 충분히 만족할만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B13, 미취업자)

"응급실조차 없는 군이 있어요. 아프면 급하게 대도시로 나가야 하는데 대기하고 있는 차도 없고. 그런 서비스가 마련되면 좋겠어요." (B2, 미취업자)

"저 아는 분 아버지는 서울 병원만 왔다갔다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걸 보면서 지역에서는 앰뷸런스가 갈 곳이 없어서 다른 데로 돌리고. 의료 개선이 필요해요." (B12, 취업자)

□ 청년여성으로서의 인식 및 향후 거주 의향

○ 경남 청년여성 대다수는 경남에서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저는 일단 삶의 수준을 따져본다면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지역에서 제 사업을 꾸리고 있고, 창원이 살기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A2, 취업자)

"아직 경제적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 그런지 삶의 수준은 만족하는 편이고요." (B19, 미취업자)

"창원이 그래도 대도시라 저는 삶이 되게 만족스러워요." (B1, 미취업자)

"집도 마산이고 큰 욕심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삶에 만족하고 있어요." (B11, 취업자)

"경남에 온 지 4년 정도 됐는데 삶의 수준을 점수로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8점 정도? 아무래도 부산보다 조용하고 안정된 분위기." (A7, 취업자)

"부산만 놀러 가도 공기도 안 좋고 대중교통도 답답한 부분이 많아서 몸으로 느끼는 게 많아요. 환경적인 부분에서 만족하고." (B20, 미취업자)

"특별한 불만 사항이 없다고 생각해서 만족도가 보통 이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B8, 취업자)

○ 경남 청년여성 대다수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결혼·출산 정책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결혼과 출산이라는 생애과정을 경험하는 것에 있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임

"공동체 정신의 회복을 염원하며 공동육아 정책을 만드는데, 저희 이미 핵가족에서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공동육아나눔터는 현실에 맞지 않아요." (A10, 취업자)

"연애나 출산이 필수적이지도 않은데 정치권에서는 애 낳으면 얼마 준다 이런 식으로 돈으로 회유하잖아요. 이건 옳지 않아요." (B4, 미취업자)

"창원시였나 진주시였나.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청춘 남녀 만남의 자리를 시에서 대놓고 주관하더라고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젊은 남녀 모여 결혼까지 하면 상품을 준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B4, 미취업자)

"애 셋 낳으면 1억 준다고 했잖아요. 애 세 명 낳으실 겁니까? 여자 사회진출 막겠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A10, 취업자)

"제 친구들 대다수가 비혼을 결심한 상태에요. 결혼한 친구는 한 커플밖에 없고." (A10, 취업자)

"누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내 한 몸 건사하기 힘든데 누구랑 같이 살고, 마련하고, 누군가를 키워내는 거 자체가 벅찰 것 같아요." (A11, 미취업자)

"남자친구가 있지만 다른 지역 남자랑 비교하면 남자친구는 (가부장적이어서)결혼 못 하겠다는 확신이 들어요." (B13, 미취업자)

"2세를 낳으면 경력단절 되는 것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경력단절되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결혼은 하되 출산은 하지 말자는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A5, 취업자)

"올해 든 생각은 아이를 키우면 여기선 힘들 것 같아요. 육아휴직 하는 사람은 다 여성이고 경남은 특히 그런 경향성이 많고. 여자가 무조건 육아휴직하고 남편 따라서 지역 이동하는게 무조건이더라고요." (A4, 취업자)

○ 타지역에서 경남으로 이주하였거나, 경남 내에서도 여러 시·군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경남을 벗어나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으로 이

동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에서 타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남 청년여성의 대다수는 더 나은 직장과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얻고자 이동을 계획하고 있음

> “취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취업이 되는 곳으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A6, 미취업자)
>
> “저는 취업 상태인데도 수도권으로 갈 예정입니다. 좀 더 큰 병원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어요,” (B3, 취업자)
>
> “창원에 직장이 몇 군데 없어요. 가족 때문에 왔지만 가족과 함께 이동할 계획도 있어요, 경남에서는 비전이 없다고 생각되는게 있어요. 새로운 곳을 찾아보고 있는 상황이예요.” (A4, 취업자)

- 특히 타지역에서 경남으로 이주한 청년여성의 경우, 향후 경남에 거주해야 하는 구조적·개인적 요인이 없다고 인식해 타지역에서 이주한 청년여성들을 붙잡을 수 있는 지역 내 환경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경남 내 여러 지역을 이동한 청년여성의 경우, 경남에서 태어났다는 귀속적 이유로 경남에 거주하고 있을 뿐, 타지역 거주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게 된다면 향후 얼마든지 이동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대학교)졸업하고 나서가 걱정이에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A11, 미취업자)
>
> “빠르면 이번 해에 졸업하고 내년에 올라갈 것 같아요. 본가가 인천에 있으니까 굳이 여기서 돈을 내면서 살 이유가 없어요.” (A3, 미취업자)
>
> “여기서 취직하고 싶지 않고 졸업하자마자 갈 것 같아요,” (A12, 미취업자)
>
> “여기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딱히 경남에 사는 이유는 없어요. 제 진로가 여기에 있는게 아니라면 떠나고도 남을 것 같아요.” (B4, 미취업자)

"같은 일을 한다면 여기보다는 더 큰 지역이 나을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B1, 미취업자)

○ 경남의 한 지역에서 태어나 이동 없이 거주한 경우, 타지역으로 이동하기보단 현 지역에서 머물고자 하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남

- 현재 거주하는 지역에서 계속 머물고자 하는 이유로는 이동에 따른 막연한 두려움과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너무 여기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막상 다른 지역에 가려니까 인맥이 없는 거예요. 가족이랑 친구들 다 여기 있는데 굳이 내가 다른 지역에 가면 외롭고 힘들지 않을까?" (B18, 미취업자)

"일단 밖에 나가 살면 집값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굳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커서. 집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B12, 취업자)

"타지역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도 만만치 않고 불안하잖아요. 다른데 가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게 아니라면 굳이." (B17, 미취업자)

"경남이 타지역에 비해 집값이 저렴한 건 맞고. 서울에선 가족이 없어도 월 250으로 살기 힘들거든요." (B9, 취업자)

- 이 외에도 현 생활의 안정감, 주거 요건, 지역에 대한 만족감 등이 경남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요인으로 확인됨

"여기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인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계속 거주할 생각이에요." (B6, 자영업)

"제 성격상 너무 복잡하고 시끄러운 곳은 맞지 않아서 경남에 살 것 같고. 부산만 놀러 가도 공기도 안 좋고 대중교통도 답답해서. 창원은 그거에 비하면 편해서 만족하는 부분이 많아요" (B20, 미취업자)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경남이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인 것 같아서 계속 거주할 생각이에요. 결혼도 했고." (B5, 취업자)

- 한편,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한 청년여성이라 하더라도 향후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타지역으로 이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내 청년여성들의 일자리 문제가 청년여성 유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여기 직장이 있어서 계속 거주할 것 같은데, 만약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수 있다면 타지역으로의 이동도 고려하고 있어요." (B9, 취업자)

"저는 대학원 진학을 고려하고 있어서 향후 몇 년 정도는 경남에 있을 것 같은데, 대학원이 끝나면 수도권처럼 일자리 많은 곳에 가서 살지 않을까요?" (B19, 미취업자)

"큰 병원에서 여러 질환을 접하며 공부하고 싶고, 그런게 쌓이면 제 스펙이 되잖아요.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서." (B14, 미취업자)

"정규직에 좋은 자리가 있다면 당장 떠나도 아쉽지 않은 처우를 지금 받고 있어요. 청년인 지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굳이 경남에." (B8, 취업자)

3. 소결

1) 설문조사 분석

□ 청년여성 인식 및 의향

○ 경남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정주 및 이주의사에 대한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경남에 계속 정주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1.0%만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

- 정주 의사에 대해서는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

데 특히 19-24세의 경우 전체의 44.9%가 경남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에 정주 의사가 없는 경우 이주하고 싶은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부산(42.3%), 서울(35.0%)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이주하고 싶은 지역에 대한 선호 또한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서울을 더 선호하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부산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서울 및 수도권' 또는 '부산·울산 등 인근 대도시'로 이주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서울 및 수도권'보다는 '부산·울산 등 인근 대도시'로 이주하고 싶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더 높게 나타남

○ 경남 청년여성 중 현재 혼인상태가 미(비)혼인 713명을 대상으로 결혼 의향을 질문한 결과, 54.4%는 결혼 의향이 있고 45.6%는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후에도 경남에 거주할 의향 대해서는 66.2%만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결혼 후 경남 거주 의향이 없는 경우 가장 주된 이유는 일자리 때문으로 나타남

○ 경남 청년여성들은 결혼 및 자녀출생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문제'(34.9%) 또는 '경력단절 및 고용에 대한 불안'(27.1%)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 일자리

○ 설문조사에 응답한 946명 중 현재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89명(51.7%)이며, 취업자의 직장 유형은 민간회사(개인 사업체), 업종은 제조업(사무종사직), 고용형태는 정규직, 월평균 소득(세후 기준)은 200-300만 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취업자들 대상으로 고용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직장 내 인간관계', '평균 업무시간', '고용 안전성 보장' 순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고,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급여(소득) 수준'이었음

○ 하지만 응답자 전체를 대상으로 경남지역 일자리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고용 만족도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음. 이는 현재 취

업 중인 응답자가 실업자(구직중)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응답자보다 고용이나 일자리 전반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경남지역 일자리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경남지역 일자리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2.70점)이고,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노동시장 문화가 조성되어 있다'(2.30점)로 나타남

□ 주거

○ 전체 응답자의 87.0%는 경남지역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거환경과 생활 편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주거하는 곳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대형유통시설 및 상업시설 이용 편리성,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공공기관 이용 편리성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모두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남. 다만, 문항별로 시·군, 동서부 지역, 정주의사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해서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중교통 또는 도보' 이용률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가용/오토바이/자전거'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 청년여성에게 필요한 주거정책에 대해서는 '매입/보증/전세금 지원'과 '월세/관리비 지원'과 같이 주거비 직접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 교육 및 복지·문화

○ 전체 응답자 대상 최종학교 소재지를 질문한 결과 경남과 부산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8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청년여성 대부분은 경남 또는 부산 소재 학교를 졸업한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 가능함

○ 경남지역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았는데, 특히 '수준 높은 초·중·고등학교 교육 제공'보다 '수준 높은 대학·평생 교육 이수 가능' 부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고등평생교육

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임

○ 교육 및 복지·문화 만족도, 지역의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전반적 평가 모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가운데, 경남 청년여성들은 현 거주지에 가장 필요한 여가시설은 '공연/전시장'이고, 청년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여가·문화 정책은 '다양한 문화예술/취미생활 프로그램 개설'이라고 응답함

□ 사회적 관계망

○ 경남 청년여성들은 가족, 친구, 단체와 같은 사회적 관계망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망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하지만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정책에 대한 요구

○ 경남 청년여성들은 지역에서의 자아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참여 보장 정도에 대해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청년여성을 위한 정주여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일자리 환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택문제', '문화(여가생활) 환경', '보육·양육 환경'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일자리 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왔지만, 19-24세 집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문화(여가생활), 안전, 생활편의서비스, 교통' 부문의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25-29세와 30-34세 집단은 '보육·양육' 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남

○ 경남지역으로 청년여성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거비용 부담 완화', '쇼핑, 공원 등 근린생활시설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관내 기업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19-24세 집단은 '대중교통의 편리성 강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30-34세 집단은

'근린생활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청년여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거안정 정책', '자녀출생 및 보육지원 정책',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 순으로 나타남

- 모든 연령대에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19-24세 집단은 '의료·건강서비스 지원, 교통시설 확충'에 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30-34세 집단은 '자녀출생 및 보육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경남 청년여성들의 정책 수요를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청년여성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일자리 분야의 정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다만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라 시급하게 인식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청년여성을 하나의 통일된 집단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연령, 지역, 취업상태, 혼인상태 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FGI 분석

□ 일자리

○ 경남 청년여성들은 제조업 중심의 경남 산업구조로 인해 구직활동과 직장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조업 중심으로 발달한 경남의 산업구조에서 대다수의 기업들은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고, 인문·사회 및 예체능을 전공한 청년여성은 이공계를 전공한 청년보다 지역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 경남지역의 기업문화는 보수적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역 내 청년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수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청년여성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혹은 제조업에서도 사무종사자와 같은 여성 친화적인 직업군에 대부분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를 제외한 직업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며 지역내 청년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의 다양성이 부족, 대학에서 전공을 통해 진로를 찾고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 경남 지역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낮은 처우, 여성의 승진 제한, 기업의 남성 선호, 성차별 등이 여전히 존재해 가부장적인 조직문화와 함께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처우에 위치하여 있다는 것으로 확인됨
- ❍ 경남 청년여성 대다수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인근 광역시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음

□ 주거(교통환경)

- ❍ 청년여성들은 주거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음. 특히 청년층의 거주율이 높은 대학가 주변의 원룸촌,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남
- ❍ 청년여성들은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였고, 청년여성의 경우 대출에 제약으로 인해 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해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 ❍ 경남 지역에서 제공되는 대중교통 수단은 제한적이고 이용에 있어서도 불편한 것으로 확인됨. 경남 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상당 수준 불편할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과의 경남 지역의 연결성 또한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

- ❍ 경남 청년여성 대다수는 지역 내의 대학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향후 지역에서의 진로를 정하고 취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원으로의 진학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남
- ❍ 지역내 교육훈련(학원 등)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교육의 질이 매우 낮아 대다수가 인근 광역시인 부산이나 서울에서 교육을 듣고 있음.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하여 지역 내 직업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자 할 때 해당 인프라가 부족하여 타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으나, 연계가 되지 않는 등의 아쉬움이 있음
- ❍ 평생교육은 시설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설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고 보고 있

음.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여 청년여성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복지·문화

○ 청년여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과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프로그램 수준 또한 낮아 대다수가 오히려 지역 내 보다는 인근 광역시나 서울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엇보다 지역에서 문화 정책 지원 등에 관심 정도가 매우 낮고,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시설 이용의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남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발전은 힘들 것으로 인식함

○ 경남 지역내 의료시설 수는 타지역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으며 서비스의 질 또한 낮게 평가됨

□ 사회적 관계망

○ 청년여성 대다수는 지역에 거주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 긍정적인 사회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와 같이 지역에서 구축된 인맥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에 머물며 거주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남

○ 한편, 청년여성은 코로나 19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일상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 형성하는 것에 회의적이거나 신체·정신건강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정책에 대한 요구

○ 일자리의 경우 비대면 여성 일자리 창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기업 내 양성평등 교육 및 보육시설 확대 등 경남의 가부장적인 기업문화가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

○ 거주 지원 정책은 청년여성들이 주거 마련을 위해서 미혼 및 1인가구의 주거비용 지원을 비롯해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내, 지역 외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봄

○ 교육·문화영역의 경우, 청년(여성)들이 모여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지역에서 조성해 주고, 시대 흐름에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

운영되길 바람

❍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뿐만 아니라 청년여성들을 위한 산부인과 관련 진료 지원 등 건강 증진 서비스가 요구됨

□ 청년여성으로서의 인식 및 향후 거주 의향

❍ 결혼 및 출산 정책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향후 결혼과 출산 경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임

❍ 경남에서 타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남 청년여성 대다수는 더 나은 직장과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얻고자 이주하려 함

❍ 향후에도 경남 지역에 머물고자 하는 이유로는 이주에 대한 두려움과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하였으며, 이 외에도 현 거주지에서의 안정감, 주거 요건, 만족감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V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방안

GNWFF

V.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방안

1. 요약 및 결론

1)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 경남 청년여성의 인구 현황, 청년여성의 인구이동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을 정리하면, 〈표 Ⅳ-1〉과 같음

〈표 Ⅴ-1〉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요약 및 결론

구분	요약
경남 청년 인구 현황	▪ 최근 20년간, 총인구 대비 청년인구 비율이 27.3%에서 17.3%로 10.0%p 하락하여 지속적으로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 청년인구 이동 패턴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청년은 일반적으로 20대 정도에 타 지역에서 인적자본을 쌓은 후, 30대에 숙련된 인적자원으로 귀향하는 경향을 보이며, 경남은 이 패턴이 약화되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한번 이동한 청년인구가 돌아오지 않는 패턴으로 전환됨**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청년여성 인구의 평균 순이동률은 -0.3%로 -0.8%~-0.5% 범위 안에서 움직였으나, 2016년부터 박스권을 이탈하여 청년남성보다 더 급격한 감소세가 진행됨. **특히 20~24세 청년여성의 인구 순유출 수준이 25~29세와 30~34세 청년여성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여성 인구가 경남을 떠나 향하는 주요 목적지는 서울, 경기, 부산 등임. **서울과 경기는 전통적인 유출 목적지이나, 부산은 2019년을 기점으로 유출 목적지로 전환됨. 이 외에도 경남 청년여성 인구는 경남 인근 지역인 영남권(대구, 경북, 울산 등)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여성은 주로 직업, 교육의 이유로 경남을 떠나고, 가족을 이유로 경남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음. **연령별 청년여성 인구이동 이유를 생애주기에 따라 살펴보면, 약간의 차이를 나타냄. 3개 연령층 모두 직장이 가장 큰 순이동 이유였으나, 고등교육으로 진입하는 시기인 19~24세의 경우 교육의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결론	
▪ 경남 지역에서 청년여성이 우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고 노동시장(경남인적자원-경남지역대학-경남일자리)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라 유출되는 요인이 다르므로 연령을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 ▪ 경남 지역과 인근지역과 연계, 즉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한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마련 필요	

2) 청년·인구정책과 선행연구 검토청년·인구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 경남 청년 및 인구정책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을 정리하면, 〈표 Ⅳ-2〉와 같음

〈표 Ⅴ-2〉 청년·인구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요약 및 결론

구분	요약
청년 및 인구정책	▪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은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음.** 중앙정부나 경남 지역 모두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수행은 여러부서에서 진행함과 동시에 청년 정책을 집중으로 지원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이자 여성인 청년여성에 대한 지원 정책은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중앙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과 경남의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0-2024)〉,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2022-2026)〉 등을 바탕으로 진행 중임. **해당 정책에서는 결혼, 임신, 자녀출생, 돌봄 및 가족구성원, 즉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접근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청년이자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접근할 때, 경남의 경우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와 인구정책 그리고 여성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 등과의 지속적 협업이 필요함
청년·인구 이동 관련 선행연구	▪ 청년 관련 정책연구는 일자리, 교육훈련, 주거, 복지·문화 등 연계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전국 종합정책연구기관 및 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인구이동과 관련된 연구 중 청년을 대상으로 다룬 연구를 지난 10년 간 살펴보면, 인구 이슈를 다루는 연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여 진행하기보다는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 ▪ 청년 인구 및 청년여성 연구 분야는 일자리에 집중된 연구들이 많은 부분 수행되어 분야 및 주제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청년에게 일자리 관련된 연구주제는 가장 주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분야이지만, 청년여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함** ▪ 경남에서는 최근 청년 종합계획연구 및 인구유출 대응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남 지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청년의 이슈는 부산, 울산 등 일부 지자체 간 협동 연구를 추진하여 연구의 폭을 넓히는 방안도 필요함
결론	
▪ 경남의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와 인구정책,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의 지속적 협업 필요 ▪ 경남 청년정책 추진사업(청년정책, 청년교류, 청년지원)에서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청년이자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접근 필요 ▪ 경남 교류 및 지원 사업(청년정책네트워크 등)에서 성인지적 관점과 함께 청년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필요 ▪ 청년여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령별, 생애단계별, 지역별 요구사항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 협동 연구 추진 및 정책 수행 필요	

3)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1) 설문조사 분석

○ 경남의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청년여성 인식 및 의향, 일자리, 주거, 교육 및 복지·문화, 사회적 관계망, 정책에 대한 요구 등 7개 영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을 정리하면, 〈표 Ⅳ-3〉과 같음

〈표 Ⅴ-3〉 설문조사 분석 요약 및 결론

구분	요약
청년여성 인식 및 의향	[정주 및 이주의사] ▪ 경남에 계속 정주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71.0%만 정주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정주 의사에 대해서는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19-24세의 경우 전체의 44.9%가 경남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혼인상태 및 결혼출생 영향 요인] ▪ 현재 혼인상태가 미(비)혼인 713명을 대상으로 결혼 의향을 질문한 결과, 54.4%는 결혼 의향이 있고 45.6%는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함 ▪ **결혼 및 자녀출생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적 문제'(34.9%) 또는 '경력단절 및 고용에 대한 불안'(27.1%)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음**
일자리	[취·창업 현황] ▪ 현재 취업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489명(51.7%)이며, 취업자의 직장 유형은 민간회사(개인 사업체), 업종은 제조업(사무종사직), 고용형태는 정규직, 월평균 소득(세후 기준)은 200-300만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취업자 고용 만족도] ▪ **'직장 내 인간관계', '평균 업무시간', '고용 안전성 보장' 순으로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했고,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급여(소득) 수준'이었음** [경남 지역 일자리 평가] ▪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경남지역 일자리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2.70점)이고,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노동시장 문화가 조성되어 있다'(2.30점)로 나타남**
주거	[거주 기간 및 주거환경 만족도] ▪ 전체 응답자의 87.0%는 경남지역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현재 거주하는 곳의 주거환경과 생활 편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거지역 편리성 및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 현재 주거하는 곳의 편리성에 대해서는 **대형유통시설 및 상업시설 이용**

구분	요약
	편리성,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공공기관 이용 편리성으로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모두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남. 다만, 문항별로 시·군, 동서부 지역, 정주의사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해서는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대중교통 또는 도보' 이용률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가용/오토바이/자전거' 이용률이 높게 나타남 [청년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 ▪ **'매입/보증/전세금 지원'과 '월세/관리비 지원'과 같이 주거비 직접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도 높은 편으로 나타남
교육 및 복지·문화	[교육현황 및 교육환경 평가] ▪ 경남지역 교육환경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았는데, 특히 '수준 높은 초·중·고등학교 교육 제공'보다 **'수준 높은 대학·평생 교육 이수 가능' 부분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임** [교육/복지·문화 만족도,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요구] ▪ 경남 청년여성들은 **현 거주지에 가장 필요한 여가시설은 '공연/전시장'이고, 청년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여가문화 정책은 '다양한 문화예술/취미생활 프로그램 개설'이라고 응답함**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관계망 인식 및 만족도] ▪ 경남 청년여성들은 가족, 친구, 단체와 같은 사회적 관계망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사회적 관계망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하지만 사회적 관계망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정책에 대한 요구	[청년여성 정책 참여 인식] ▪ 경남 청년여성들은 지역에서의 자아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참여 보장 정도에 대해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청년여성을 위한 정주여건 중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일자리 환경'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택문제', '문화(여가생활) 환경', '보육양육 환경' 순으로 나타남** ▪ **경남지역으로 청년여성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관내 기업의 일자리 확대'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주거비용 부담 완화', '쇼핑, 공원 등 근린생활시설 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순으로 나타남**

결론

- 경남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 강화와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경남 청년여성의 전·월세자금 등의 주거비 직접지원과 주거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제도적 완화 필요
- 경남의 문화예술, 취미를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청년여성을 위한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 설치 필요(시·군 지역 고려)
- 청년여성의 진로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고등평생교육기관 확대 필요

(2) FGI 분석

○ 경남의 주요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일자리, 주거(교통환경), 교육, 복지·문화, 사회적 관계망, 정책에 대한 요구, 청년여성으로서의 인식 및 향후 거주 의향 등 7개 영역에 대한 FGI를 실시하고 주요 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을 정리하면, 〈표 Ⅳ-4〉와 같음

〈표 Ⅴ-4〉 FGI 분석 요약 및 결론

구분	요약
일자리	[지역 산업구조 및 여성 일자리] ▪ 제조업 중심으로 발달한 **경남의 산업구조에서 대다수의 기업들은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하고, 인문·사회 및 예체능을 전공한 청년여성은 이공계를 전공한 청년보다 지역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지역의 기업문화, 직업의 다양성 및 처우] ▪ 경남 지역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낮은 처우, 여성의 승진 제한, 기업의 남성 선호, 성차별 등이 여전히 존재해 **가부장적인 조직문화와 함께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처우에 위치하여 있다는 것으로 확인됨** [구직활동] ▪ 경남 지역 직업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며 지역내 청년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의 다양성이 부족하여 비대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대학에서 전공을 통해 진로를 찾고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청년여성 대다수는 더 좋은 일자리를 찾고,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인근 광역시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음**
주거 (교통 환경)	[주거시설 환경 및 안전] ▪ **청년층의 거주율이 높은 대학가 주변의 원룸촌,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남** [주거비 마련 고민] ▪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였고, 청년여성의 경우 대출에 제약으로 인해 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해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대중교통시설 이용 편리성 및 만족도] ▪ 경남 지역에서 제공되는 대중교통 수단은 제한적이고 이용에 있어서도 불편한 것으로 확인됨. 경남 내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상당 수준 불편할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과의 경남 지역의 연결성 또한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	[지역 내 대학 경쟁력] ▪ 지역 내의 대학의 낮은 경쟁력으로 인해 향후 지역에서의 진로를 정하고 취업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원으로의 진학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남 [기타 교육훈련(학원 등) 시설 및 프로그램] ▪ 지역내 교육훈련(학원 등)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교육 인프라가 부족하고, 교육의 질이 매우 낮아 대다수가 인근 광역시인 부산이나 서울에서 교육을 듣고 있음.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하고자 할 때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하여 타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으나, 연계가 되지 않는 등의 아쉬움이 있음**

구분	요약
	[평생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 평생교육은 시설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개설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여 청년여성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복지·문화	[문화시설 및 인프라 및 만족도] ▪ **청년여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과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프로그램 수준 또한 낮아 대다수가 오히려 지역 내 보다는 인근 광역시나 서울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남**.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시설 이용의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남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발전은 힘들 것으로 인식함 [의료시설 및 서비스] ▪ 경남 지역내 의료시설 수는 타지역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낙후되어 있으며 서비스의 질 또한 낮게 평가됨
사회적 관계망	[가족 및 친구관계와 지역 내 커뮤니티 만족도] ▪ 청년여성 대다수는 지역에 거주하며 가족 및 친구들과 긍정적인 사회 관계를 형성하였고, 이와 같이 지역에서 구축된 인맥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에 머물며 거주하고자 하는 경향성이 높게 나타남 ▪ 한편, **청년여성은 코로나 19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고 일상의 어려움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고 형성하는 것에 회의적이거나 신체·정신건강에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정책에 대한 요구	[청년여성 지원 정책, 여성 친화 환경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 ▪ 일자리의 경우 비대면 여성 일자리 창출,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기업 내 양성평등 교육 및 보육시설 확대 등 경남의 가부장적인 기업문화가 성평등한 조직문화로 변화될 필요가 있음 ▪ 청년여성들이 주거 마련을 위해서 미혼 및 1인가구의 주거비용 지원을 비롯해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완화를 요구함. 교통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역 내, 지역 외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봄 ▪ 교육·문화영역의 경우, 청년(여성)들이 모여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지역에서 조성해 주고, 시대 흐름에 맞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운영되길 바람 ▪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 및 청년여성들을 위한 산부인과 관련 진료 지원 등 건강 증진 서비스가 요구됨
청년여성으로서의 인식 및 향후 거주 의향	[삶의 전반적 만족도와 결혼 및 출산 관련 태도] ▪ 결혼 및 출산 정책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향후 결혼과 출산 경험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임 [향후 거주 의향] ▪ 경남에서 타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남 청년여성 대다수는 더 나은 직장과 다양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얻고자 이주하려 함
결론	
▪ 지역대학의 전공과 일자리를 연계하고 진로와 취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청년여성 비대면 직종 개발, 창업 플랫폼 지원 필요 ▪ 경남 기업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 필요 ▪ 청년층의 거주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높으며, 청년여성의 경우 대출에 제약으로 인해 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해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됨 ▪ 경남 지역 직업교육훈련기관·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확대, 타 지역과의 인프라 연계 지원 필요 ▪ 경남 지역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위한 청년 문화 지원 정책 강화 필요 ▪ 지역 보건소 등 기관을 활용한 청년여성의 신체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추진 필요	

2.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방안

○ 연구의 주요 결론을 바탕으로 청년정책의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영역과 함께 청년여성정책 및 연구기반 강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Ⅴ-5〉 결론 및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방안 영역

구분		결론	대응 방안 영역
경남 청년여성 인구이동 현황		▪ 경남 지역에서 청년여성이 우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고 노동시장(경남인적자원-경남지역 대학-경남일자리)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교육
		▪ 청년의 생애주기에 따라 유출되는 요인이 다르므로 연령을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	정책 및 연구 기반 강화
		▪ 경남 지역과 인근지역과 연계, 즉 부울경 메가시티를 통한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마련 필요	정책 및 연구 기반 강화
청년·인구정책과 선행연구 검토		▪ 경남의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와 인구정책, 여성가족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의 지속적 협업 필요	정책 및 연구 기반 강화
		▪ 경남 청년정책 추진사업(청년정책, 청년교류, 청년지원)에서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있어서는 청년이자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접근 필요	정책 및 연구기반 강화
		▪ 경남 교류 및 지원 사업(청년정책네트워크 등)에서 성인지적관점과 함께 청년여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 필요	참여·권리
		▪ 청년여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연령별, 생애단계별, 지역별 요구사항을 고려한 맞춤형 연구, 협동 연구 추진 및 정책 수행 필요	정책 및 연구 기반 강화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설문조사	▪ 경남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유지를 위한 정책 강화와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일자리
		▪ 경남 청년여성의 전·월세자금 등의 주거비 직접지원과 주거비 부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제도적 완화 필요	주거
		▪ 경남의 문화예술, 취미를 복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청년여성을 위한 복합문화 커뮤니티 공간 설치 필요(시·군 지역 고려)	복지·문화
		▪ 청년여성의 진로 및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고등평생교육기관 확대	교육

구분		결론	대응 방안 영역
	FGI	▪ 지역대학의 전공과 일자리를 연계하고 진로와 취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청년여성 비대면 직종 개발, 창업 플랫폼 지원 필요	일자리
		▪ 경남 기업의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 필요	일자리
		▪ 청년여성의 경우 대출에 제약으로 인해 지역에서 주택을 마련해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어 개선 필요	주거
		▪ 경남 지역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타 지역과의 인프라 연계 지원 필요	교육
		▪ 경남 지역의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을 위한 청년 문화 지원 정책 강화 필요	복지·문화
		▪ 지역 보건소 등 기관을 활용한 청년여성의 신체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추진 필요	복지·문화

○ 세부적으로 청년여성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영역별(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정책 및 연구 기반 강화)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청년여성의 인구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단기적 접근도 필요하나, 중·장기적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노력이 지속될 때 지역 청년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인구이동을 완화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제시함

1) 일자리

□ 경남 청년여성을 위한 일 경험 프로그램 제공

○ 경남은 청년여성이 일자리에 진입하기 전 일 경험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함.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취업제도 일 경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일과 관련된 경험을 통하여 구직자의 직장 적응력을 향상할 수 있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나, 경남 지역의 기업들이 본 프로그램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남의 기업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청년여성의 전공 비율이 높은 인문·사회계열 등의 학생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 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경남 지역에서는 청년인싸희망로드맵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더욱 홍보 및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남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청년여성이 일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경남 청년여성을 위한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

○ 경남 지역 기업은 남성중심의 조직문화가 만연하고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초한 경우가 많아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 경남 지역의 기업체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성차별 발생, 수직적 조직문화가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청년여성에게 수평적이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지원하고 청년여성의 일-가정양립을 넘어서 일·생활균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족친화기업, 여성친화기업 등을 확대하고 성평등한 기업문화와 건강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힘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경남 청년여성 대상 일자리 요구 파악 및 사업 모니터링

○ 경남의 주된 일자리 및 산업구조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지역 산업 구조를 고려하여 여성 일자리로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나, 경남의 청년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동향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등이 마련되어야 함

○ 그리고 경남 지역의 일지라는 신규 정책을 통해 청년여성에게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나, 일자리 정책에서 청년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어느정도 인지, 추진 중인 사업에서 청년여성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청년여성 수혜자를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2) 주거

□ 청년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경남 주거비용 지원

○ 청년층의 주거비용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청년 중 1인가구 형태가 보편화되어 주거형태로 자리잡고 있으나, 청년을 지원하는 주거비용 및 대출 등은 신혼부부 등 일반가구를 지원하는 주거 정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하는 것이 요구됨

○ 특히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에서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을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청년여성의 경우 결혼, 임신, 자녀출생 등으로 노동시장으로 진입이 늦어진 경우 혜택이 34세 이후에는 해당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경남에서만이라도 대상을 보다 확대하여 별도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경남 청년여성의 주거 안전 지원

○ 경남 청년여성의 거주율이 높은 대학 주변의 원룸, 다주택 등 대학가 주변의 경우 안전에 대한 불안도가 높은 편으로 청년여성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함

○ 주거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여성 및 1인가구를 지원하는 안심홈 지원 확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안전 모니터링, 다양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 공유 및 교육과 홍보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3) 교육

□ 경남 인적자원-경남 지역대학-경남 일자리로의 선순환 체계

○ 경남지역 대학은 경남의 인적자원이 지역 대학을 통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선순환 체계를 지원해야 할 것임. 먼저, 지역 대학은 경남의 산업을 고려하여 청년들이 지역대학에서 전공한 경험을 토대로 진로 및 취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이 이루어져야 함

○ 또한 지역 대학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USG 공유대학과 같이 대학 간 협업 체계가 지속될 수 있고, 청년여성들의 전공이 높은 비율을 고려하여 융합전공을 확대하여 운영해야 할 것임. 이때 지방출자출연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중요함. 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함. 이렇듯 경남은 산-학·연-관 체계를 바탕으로 경남지역 인재가 경남에서 취·창업을 하여 지역에서 성장하고 경남을 발전시키는 선순환 생태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임

□ 경남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 확대

○ 경남의 청년여성이 자신의 직업능력 및 역량을 향상하는 데 요구되는 교육훈련기관 및 프로그램의 확대가 요구됨. 먼저, 경남 지역에는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를 활용하여 교육훈련을 받을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직업교육훈련기관이 지역 내 청년여성들을 위한 맞춤형을 운영하면서 시설들이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설계되어야 함

○ 특히 4차 산업혁명, 코로나 19 발생 등으로 기술혁신과 노동환경 변화에 따라 경남에서는 청년여성이 비대면으로 취·창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청년세대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취·창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경남 평생교육기관의 역할 및 프로그램 확대

○ 경남 지역 대학 내에서 청년여성이 지속적으로 경력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의 대학이 청년여성에게 전문교육, 청년 재직자의 교육훈련 뿐만 아니라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우수 인적자원 및 전문가로 육성시키는 시스템, 대학평생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리고 경남 지역은 평생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경남평생교육

진흥원을 중심으로 경남의 청년여성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홍보하는 방안이 필요함

4) 복지·문화

□ 경남 청년여성을 위한 신체·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지원

○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인하여 경남 청년여성들은 사회적 관계 축소, 노동시장에서의 취약한 위치 및 조건 등으로 인하여 신체·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청년여성의 신체·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청년시기에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것으로 보여 지역사회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회적 위축으로 삶의 질 저하, 만족도가 낮은 청년여성을 대상으로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청년마음단디 경남청년조기중재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청년들에게 홍보하고 확대하여 18개 시·군의 청년들 모두가 심리증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야 할 것임

□ 경남 청년여성 복합 문화 여건 조성 및 인력 양성

○ 경남은 문화의 주체에서 청년여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청년여성은 자신이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커뮤니티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이에 경남은 청년여성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함께 취·창업 등이 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공간 및 커뮤니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경남은 청년을 위한 새로운 공간(청년온나 등)을 조성하고 있고, 이미 활동하고 있는 민간의 청년여성을 위한 공간 및 커뮤니티들에 대한 협력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여성이 선호하는 분야별 문화 정책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강화해야 함. 특히 예체능 계열을 전공한 청년여성이 경남에서 전문 예술인으로 육성될 수 있는 환경 역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5) 참여·권리

□ 경남 청년지원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 확대와 청년여성 참여 촉진

○ 경남은 청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청년세대의 경우 젠더이슈, 페미니즘 등을 둘러싼 성별 인식의 격차가 큰 만큼 경남은 청년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확대, 올바른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청년 대상 지원 정책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하여 청년여성과 청년남성 모두 청년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경남 청년정책네트워크와 같이 참여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모임에서는 다양한 청년여성(농산어촌, 한부모, 다문화 등)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특히 경남은 청년정책의 거버넌스로써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청년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노력이 요구됨

6) 정책 및 연구기반 강화

□ 경남 청년의 다양성과 여성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 추진

○ 경남은 청년이 아동·청소년기를 겪으며 각기 다른 자본을 갖고 성장하며 특히 여성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라 결혼, 임신, 자녀출생, 돌봄 등을 경험하므로 세심한 정책이 요구됨. 청년정책 추진에 있어 청년의 다양성, 여성으로서의 생애주기 등을 고려한 정책, 청년여성에 대한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이에 다양한 정책 대응 방안 간의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계, 경남 내에서는 여성정책, 청년정책, 인구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간의 연계, 청년여성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간 협력, 민간 단체들과의 협업 등 전체적인 거버넌스 구성이 필요함

○ 무엇보다 경남이 추진 중인 〈(2022~2026년)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 등 청년의 인구인동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또한 경남 지역은 18개 시·군으로 이루어진 바, 시·군의 특성 역시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경남 청년여성을 위한 다학제적 연구 추진

○ 청년여성의 인구이동에 대한 이슈는 일자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 관련된 이슈가 주된 문제이므로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되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의 쟁점들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정책연구가 추진되어야 함. 이러한 이슈는 경남 지역에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여성 지원 정책은 부울경의 동남권 메가시티, 그리고 영남권이 연계한 정책과 연구 등을 통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위한 연구 추진이 필요함

○ 그리고 경남 청년여성을 위한 다학제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추진이 필요하며 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 일자리 단계에서의 이슈, 그리고 여성 생애주기에 따른 이슈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남은 청년여성을 위한 다방면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면 청년여성의 순유출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GNWFF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관계부처 합동.

관계부처 합동. (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경상남도. (2019). 2019-2023년 경상남도 청년정책기본계획. 경상남도.

경상남도. (2020). 2020-2024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 경상남도.

경상남도. (2021). (2022~2026년)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 경상남도.

김경수, 허윤수, 서옥순, 최효비, 이우평, 이진숙. 최청락. (2022). 부산 청년인구 유출입 특성과 청년인구 유지 방안. 부산연구원.

김명화, 진혜민, 정원칠. (2021). 경북 농산어촌 청년여성 정주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김민아, 김혜경, 안선정. (2021). 경북 청년 여성의 창직 활동을 위한 방안 연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김용현. (2012). 대구경북지역 청년 역외유출원인과 해소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김유현, 김태영, 이관후, 변철희, 이문호, 이언상, 장연주. (2020). 경상남도 청년실태조사. 경상남도·경남연구원.

김유현. (2021). 경남 청년인구 유출 확대의 원인과 일자리 문제 분석. 경남연구원.

김준영. (2019). 비수도권 청년인구의 유출과 수도권 집중: 최근의 변화. 지역고용동향 브리프 2019년 봄호. 한국고용정보원.

박민정. (2021). 울산지역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서옥순, 김종욱, 김도관. (2011). 부산지역 대졸자의 지역이동 분석 및 청년고용 활성화 방안. 부산연구원.

서옥순, 김종욱. (2020). 부산지역 청년층 지역이동과 취업성과 분석. 부산연구원.

심인선, 박철민, 이혜진, 김태영, 하경준, 이언상. (2019). 경남 인구구조 변화와 청년이동에 따른 지역대응 방안: 비(非)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경남연구원.

유은경. (2021). 강원도 청년여성 일자리 실태 및 욕구조사. 강원여성가족연구원.

이윤주, 하형석, 김기헌. (2017). 청년정책 추진 체계 발전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임정아, 김희영. (2021). 코로나19 이후 부산청년 지역이동과 젠더차별. 부산연구원.

임형석. (2021). 지역 청년층 취업이동 분석 및 정책적 대응. 광주전남연구원.

정여진, 신승배, 김종우. (2021). 코로나 시대 제주 청년여성의 정신건강 실태와 대응 전략.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회훈. (2018). 지방소멸대응 청년유입 특별법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주혜진, 최성은. (2019). 대전·세종지역 청년인구감소의 지역 내 불균형: 성인지적 관점을 활용한 논의의 확장. 대전세종연구원.

채종현, 유병규, 김지훈. (2018). 지방소멸대응 경북 지역맞춤형 청년정책. 대구경북연구원.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s://www.gyeongnam.go.kr에서 검색 및 인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https://www.opm.go.kr에서 검색 및 인출.

통계청 (각 년도). 국내인구이동통계. https://kosis.kr에서 검색 및 인출.

통계청 (각 년도). 주민등록인구현황. https://kosis.kr에서 검색 및 인출.

[부록] 설문지

GNWFF

설문지

『2021 경남 여성청년 인구유출 대응 방안』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은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으로 경상남도 여성 · 가족 · 아동에 관한 정책 연구 및 교육 ·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본 재단에서는 '경남 청년 여성 인구유출 대응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지역의 청년여성으로서 인식 및 의향, 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 등에서 겪는 문제점과 이슈를 파악하여 청년여성의 인구이동을 완화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보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1항에 의해, 설문의 응답 내용에 관한 보안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조사 주관기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일생활정책실
조사 수행기관	EMBRAIN

Q1. 귀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까?

① 동의합니다 ② 동의하지 않습니다(☞ 설문종료)

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남자(☞ 설문종료) ② 여자

A. 청년여성 인식 및 의향

A1. 현재 귀하가 생각하는 청년여성으로서 삶의 만족도 수준을 체크해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역안에서의 전반적 행복감이 크다.	①	②	③	④	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청년여성으로서의 삶의 질 수준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청년여성으로서의 건강 수준은 높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장래에 대해 긍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현재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A2. 귀하가 평소 생각하시는 이주 또는 이직에 해당되는 답변에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나는 기회가 된다면 대도시(서울 및 수도권)로 진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기회가 된다면 인근 대도시(부산, 울산)로 진출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 이직(이사)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 미래를 위해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A3. 귀하는 경남지역 내 계속 거주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A4. [A3=2 응답자들만] 귀하가 지역 외로 이동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선택]

① 직장이 더 가까워서 ② 근린생활이 잘 조성되어
③ 교육여건이 좋아서 ④ 주거비용이 더 저렴
⑤ 거주환경이 더 안전 ⑥ 부동산 투자가치가 있어서
⑦ 합가/분가/결혼 ⑧ 보육 및 양육환경
⑨ 기타(_____)

A5. [A3=2 응답자들만] 귀하가 이주를 고려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1개선택]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제주 ⑰ 해외

A6. 귀하의 혼인 상태를 선택해주세요.

① 기혼(유배우자) ② 미혼 ③ 이혼/별거/사별(무배우자)

A7. [A6=2 응답자들만] 귀하는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비혼)

A8. [A7=1 응답자들만] 귀하가 앞으로 결혼 후 경남에 거주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A9. [A7=2 응답자들만] 귀하가 앞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선택]
① 고용상태 불안정 ② 결혼비용 및 주거비용 부족
③ 생활비 부담 ④ 일과 육아 병행의 부담
⑤ 결혼 시기의 문제 ⑥ 기타(_____)

A10. [A8=2 응답자들만] 귀하가 앞으로 결혼 후 경남에 거주하실 생각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개선택]
① 일자리 이유 ② 주거환경 이유
③ 문화환경 이유 ④ 보육·양육환경 이유
⑤ 보건·의료환경 이유 ⑥ 교통환경 이유
⑦ 교육환경 이유 ⑧ 안전환경 이유
⑨ 기타(_____)

A11. 귀하가 생각하는 청년여성의 결혼 및 자녀출생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개선택]
① 자녀출생, 육아, 돌봄의 부담 ② 금전문제(결혼, 생활비용 등)
③ 경력단절 및 고용에 대한 불안 ④ 내집 마련의 부담
⑤ 사회적 성공에 대한 부담 ⑥ 기타(_____)

B. 일자리

B1. 귀하의 현재 취·창업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취업자 ② 창업자
③ 실업자(구직상태) ④ 비경제활동(교육기관재학)
⑤ 비경제활동(육아 및 가사) ⑥ 비경제활동(쉬는중)

B2. [B1=1, 2 응답자들만] 귀하의 현재 취·창업처는 어디입니까?
① 거제시 ② 거창군 ③ 고성군
④ 김해시 ⑤ 남해군 ⑥ 밀양시
⑦ 사천시 ⑧ 산청군 ⑨ 양산시
⑩ 의령군 ⑪ 진주시 ⑫ 창녕군
⑬ 창원시 ⑭ 통영시 ⑮ 하동군
⑯ 함안군 ⑰ 함양군 ⑱ 합천군
⑲ 기타(_____)

B3. [B1=1 응답자들만] 귀하의 직장유형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①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
② 공공기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③ 비영리기관 및 단체
④ 특정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지 않음
⑤ 기타(_____)

B4. [B1=1, 2 응답자들만] 귀하의 업종을 선택해주세요. [1개선택]

① 의료·보건업
② 사회복지서비스업
③ 교육서비스업
④ 금융 및 보험업
⑤ 부동산 및 사업시설관리
⑥ 숙박 및 음식점업
⑦ 기타 개인서비스업
⑧ 유통서비스(운수, 통신, 도소매업)
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부문 민간위탁
⑩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⑪ 농림수산업 및 광업
⑫ 제조업(생산직)
⑬ 제조업(사무종사직)
⑭ 기타(_____)

B5. [B1=1 응답자들만] 귀하의 고용형태를 선택해주세요.

① 정규직
② 무기계약
③ 기간제
④ 파트타이머(단시간 노동자)
⑤ 파견용역
⑥ 독립적 계약노동
⑦ 기타(_____)

B6. 귀하의 개인 월 평균 (세후)소득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⑤ 500만원 이상
⑥ 소득 없음

B7. [B1=1 응답자들만] 고용 만족도를 항목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현직장의 업무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현직장의 급여(소득) 수준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현직장 내 인간관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적성 및 전공과 내 업무는 적합하다.	①	②	③	④	⑤
평균 업무시간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현직장에서의 고용 안정성은 보장된다.	①	②	③	④	⑤
현직장에서의 물리적 환경 (안전성, 위생 등)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현직장은 향후 자기계발 및 발전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B8. 지역 내 일자리 평가에 관해 항목별 만족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역의 경제적 측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경남지역 일자리는 발전 가능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경남지역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경남지역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경남지역에는 고용기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경남지역 일자리의 질적 수준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지역의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노동시장 문화가 조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C. 주거

C1. 귀하의 경남지역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총 거주기간 합산)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3년 이상 5년 미만 ④ 5년 이상

C2. 현재 주거환경 만족도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매우 불만족이다	다소 불만족이다	보통이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현재 주거환경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현재 주거지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현재 주거지역은 높은 청결도를 가진다.	①	②	③	④	⑤
현재 주거지역은 치안에 있어 안전성이 높다.	①	②	③	④	⑤
현재 주거지역은 소음과 재해 등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⑤

C3. 귀하는 지역의 일상생활의 편리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이다	다소 불만족이다	보통이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현재 주거지역은 대형유통시설 및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현재 주거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현재 주거지역은 공공기관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C4. 귀하가 생각하는 경남 청년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을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개선택]

① 도보
② 대중교통
③ 택시
④ 자가용/오토바이/자전거
⑤ 기타(_____)

C5. 귀하가 생각하는 경남 청년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을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개선택]

① 매입/보증/전세금 지원
② 월세/관리비 지원
③ 공공임대/소형평수 공급
④ 안전한 주거환경
⑤ 대중교통
⑥ 문화시설 확충
⑦ 주차문제
⑧ 기타(_____)

D. 교육

D1. 귀하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경남지역의 교육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남지역은 수준 높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경남지역에서는 수준 높은 대학·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D2. 현재 거주하고 계신 경남지역 내 사회, 경제, 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만족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의료복지 인프라 측면의 만족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교육 인프라 측면의 만족도가 높다	①	②	③	④	⑤

E. 복지문화

E1. 귀하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경남지역의 문화·체육·레저 활동에 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구분	매우 불만족이다	다소 불만족이다	보통이다	약간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공연과 영화와 같은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운동과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취미와 여가활동을 위한 소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E2. 귀하의 거주지역에서 가장 필요하다 생각하는 여가시설은 무엇입니까? [1개선택]

① 공연/전시장
② 영화관
③ 공원
④ 스포츠센터
⑤ 문화센터
⑥ 경기장(축구/야구 등)
⑦ 도서관
⑧ 등산/산책로
⑨ 기타(_____)

E3. 현재 거주지역에서 여가·문화활동을 즐기려는 청년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1~3순위까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필수/3순위 선택]

① 다양한 문화예술/취미생활 프로그램 개설
② 생활권 주임의 청년활동공간 조성
③ 청년여성의 여가활동비용 지원 및 보조
④ 지역 소모임/동호회 육성 및 지원
⑤ 취미/여가생활 정보공유 사이트 및 어플 개발
⑥ 기타(_____)

F. 참여권리

F1. 현재 귀하가 느끼는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부모님 및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가족은 내 삶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오랜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단체(동아리, 동호회, 종교, 봉사활동 등)의 인간관계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나의 삶에서 집단 소속감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F2. 현재 귀하가 생각하는 청년여성으로서 삶의 만족도 수준을 체크해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사회적관계망 수준에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인간관계·친숙함·호감 측면의 만족도가 크다	①	②	③	④	⑤

G. 정책 요구

G1. 현재 귀하가 생각하는 청년여성으로서 삶의 만족도 수준을 체크해주세요.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지역내 자아실현 가능성은 높다.	①	②	③	④	⑤
청년여성의 정책참여는 보장된다.	①	②	③	④	⑤

G2. 경남지역으로 청년여성 유입을 촉진하는 유인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1~3순위까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필수/3순위 선택]

① 관내 기업의 일자리 확대
② 주거비용 부담완화
③ 의료시설 확충
④ 근린생활시설(쇼핑, 공원) 지원
⑤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공공돌봄서비스 강화
⑥ 문화프로그램 지원
⑦ 대중교통의 편리성 강화
⑧ 전입지원 혜택 강화
⑨ 주민커뮤니티 소통강화
⑩ 기타(_____)

G3. 귀하는 현재 거주하는 경남지역의 청년여성을 위한 정주여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선택해 주십시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1~3순위까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필수/3순위 선택]

① 일자리 환경
② 주택문제
③ 문화(여가생활) 환경
④ 보육·양육 환경
⑤ 보건·의료서비스 환경
⑥ 교통 환경
⑦ 교육 환경(평생교육, 직업교육훈련)
⑧ 안전 환경
⑨ 자연 환경
⑩ 생활편의서비스 환경

G4. 귀하는 경남지역에서 청년여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1~3순위까지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필수/3순위 선택]

①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
② 자녀출생 및 보육지원 정책
③ 주거안정정책
④ 교육여건 개선
⑤ 문화·체육 기반시설 확충
⑥ 교통시설 확충
⑦ 의료·건강서비스 지원
⑧ 기타(_____)

P. 인적사항

P1. 귀하의 출생년도는 언제입니까? [출생연도로 응답]
출생연도 (　　)년 = 만 _____세
(☞ 만 19세 이상~34세 이하만 조사 진행)

P2. 귀하의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아래 지도에서 선택하여 주십시오. [지도에서 선택]
(☞ 17개 시/도 지도로 표시, 경남만 조사 진행)

P2-1. 귀하의 경남지역 내 거주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거제시	② 거창군	③ 고성군
④ 김해시	⑤ 남해군	⑥ 밀양시
⑦ 사천시	⑧ 산청군	⑨ 양산시
⑩ 의령군	⑪ 진주시	⑫ 창녕군
⑬ 창원시	⑭ 통영시	⑮ 하동군
⑯ 함안군	⑰ 함양군	⑱ 합천군

P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졸업
⑤ 전문대/4년제 대학 재학 중	⑥ 대학원 재학 중

P4. 귀하의 최종 학력 교육기관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① 경남	② 서울	③ 부산
④ 대구	⑤ 인천	⑥ 광주
⑦ 대전	⑧ 울산	⑨ 세종
⑩ 경기	⑪ 강원	⑫ 충북
⑬ 충남	⑭ 전북	⑮ 전남
⑯ 경북	⑰ 제주	⑱ 해외

본 연구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본 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연구보고서 2021-10

경남 청년여성 인구유출 대응 방안

인 쇄 2022년 4월 29일
발 행 2022년 4월 29일
발 행 인 민 말 순
발 행 처 (재)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0 (우 : 51430)
Tel (055)713-7074 Fax (055)713-7093
홈 페 이 지 gnwff.or.kr
인 쇄 처 새롬씨앤피
Tel (055)266-5865 Fax (055)267-6898

ISBN : 979-11-977350-4-2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